

지리산권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듭니다.

구례 X 남원 X 산청 X 하동 X 함양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백서

2018 - 2023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함께 만드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역에 필요한 작은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과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의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백서

2018 – 2023

일러두기

-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백서〉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발행했습니다.
- ※ 활동백서는 2024년 1월~12월에 걸쳐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와 서술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르되 인용구 속 인터뷰 대상의 말투와 표현은
규정과 다르거나 비문이어도 되도록 입말을 살렸습니다.
- ※ 사업명, 도서명 등에는 가랑이표 (< >)를, 프로젝트나 단체명, 중요한 고유명사나
강조하는 사항에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했습니다.
- ※ 수록된 사진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직접 촬영했거나 활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함께 살기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발돋움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며, 이와 같은 개인적·사회적 변화의 움직임에
‘작은변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자 내에서는 ‘작은변화’와 ‘작은 변화’가 함께 쓰입니다.
-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작은변화지원센터’, ‘센터’로 혼용 표기하며, ‘아름다운재단’은 ‘재단’으로 혼용 표기합니다.

들어가며

본 활동백서는 지난 6년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진행해 온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되었다. 더 나아가, 이 백서를 통해 센터의 활동 경험을 지리산권 시민사회와 전국의 공익활동에 공유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난 6년 동안 해 보고 싶었던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과감하게 시도해 왔다. 매년 현장의 요구와 현실에 맞춰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매년 새로운 시도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지원 방향은 센터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기에, 백서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일정한 틀을 갖추어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마냥 쉽지 않았다.

또한 활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화자찬 격으로 센터의 역할을 너무 크게 평가하거나, 반대로 활동의 가치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려 노력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종료된 시점인 것을 감안해 실천이 가능한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찾는 것도 고민이 많았다.

활동백서가 단순히 지난 활동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백서를 통해 센터가 이룬 성과와 한계, 그리고 도출된 과제들이 현실성있고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4년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이사장 임현택

1장. 운영 개요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출발	10
2.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기틀	14
3. 주요 연혁	16

2장. 사업 및 활동 현황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업 영역	28
2. 연도별 사업 현황	31
3. 숫자로 보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98

3장. 지원 방식

1. 사람 중심 지원	115
2. 유연한 지원	125
3. 연결 중심 지원	134
4. 기록을 통한 지원	142

4장. 시선과 회고

1. 이해관계자의 시선	156
2. 간담회를 마치고	171
3. 아름다운재단의 회고	180
4. 지리산이음의 회고	185

부록.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활동가 지원 영역	196
2.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212

1장 운영 개요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출발

2.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기틀

3. 주요 연혁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출발

아름다운재단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변화 실현을 위한 변화지원조직 설립

아름다운재단은 2016년 한국 사회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누구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했다. 재단은 그 해법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비영리단체를 주목했다. 이들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할 방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현장에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실행에 앞서 지역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재단의 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2016년 6월부터 1년간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기획단과 함께 지역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4개 권역(전라, 충청, 경상, 강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역 시민사회의 토대가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강화하고 재건하는 것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현안과 시민사회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모델을 무작정 이식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역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이 만들고자 하는 지원조직은 시민사회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재단이 추구한 지원조직의 모델은 민관 협력 모델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반영한 ‘변화지원조직’으로 정의했다.

변화지원조직이 설립될 지역은 앞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과 역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재단과 협력할 파트너가 있는 지역인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지리산이음’이 있는 지리산권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2016년 이전부터 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변화지원조직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지역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노련한 파트너 단체와 함께라면 재단의 첫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2017년 4월 지리산이음과 함께 변화지원조직 설립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 지리산권을 아우르는 변화지원조직 설립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이 자리한 남원시 산내면에서 작은 마을카페 ‘토닥’을 열면서 시작했다. 산내면은 1998년 실상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귀농학교를 계기로 꾸준히 귀농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인구 약 2천 명의 이 작은 마을에 500여 명이 귀농, 귀촌하여 정착하고 있다. 각자의 사연을 품고 귀농, 귀촌을 선택한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며, 50여 개의 자치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된다. 대부분의 모임은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마을을 꿈꾸며 시작되었으며, 이웃을 돕는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2년 문을 연 마을카페 ‘토닥’은 사람들 간 편안한 만남과 이야기가 이어지며 다양한 활동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산이음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청 시의 사업명 ‘지리산이음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명칭이다. ‘토닥’의 운영 주체들은 산내 마을에서 쌓은 공동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지리산권의 사람과 마을을 연결하고 대안적 가치가 넓게 소통되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본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리산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산내 마을과 지리산권 내 대안적 활동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모은 책 <시골생활>을 정식 출판하였고, ‘공간’, ‘여행’, ‘매체’, ‘예산’, ‘적정기술’ 등을 주제로 공동체의 실험과 안착을 위한 워크숍이 여러 차례 열리며 마을과 지리산권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연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넘어 새로운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골살이학교>와 전국 공익 활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지리산포럼>도 이 시기에 시작하였다.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을 설립했다.

변화지원조직 설립 흐름을 알게 되었을 때, 지리산이음에서는 지리산권이 선정되기를 기대했다. 지리산이음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지리산권 내의 연결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리산권이 변화지원조직 설립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조사 활동부터 함께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변화지원조직의 활동 기반이 될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조직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며 본격적인 센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변화지원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산권 5개 시군(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의 지역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변화지원조직의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2017년 7월부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별 기본 현황과 시민사회의 자원 및 욕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지역 활동의 주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조사 과정에 지역의 활동가들이 조사 담당자로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군의 조사 담당자들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활동가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지역의 다양한 모임과 커뮤니티를 일일이 만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조사보고서는 지리산권 각 지역의 특성과 활동 주체들이 잘 담아낼 수 있었고, 그 후 변화지원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때 참여한 조사 담당자들은 이후 ‘협력파트너’로 참여해 각 지역과 변화지원 조직을 잇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개소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 두 조직이 협력하여 지리산 변화지원조직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무국 구성이 필요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에서 간사(현재 매니저 해당) 1인을 1년간량(2018년 1월~2019년 2월) 파견하여 지리산이음과 공동 사무국을 구성하여 사무국 업무와 배분사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파견 간사의 역할로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초기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변화지원조직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단 간사 파견 외에도 두 조직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공동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변화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긴 준비 끝에 문을 연 변화지원조직의 이름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로 최종 결정되었다. 기존의 ‘변화지원조직’이 담고 있던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주체성의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름 아래 문을 연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간 지리산 5개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의 제언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된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는 각 지역의 특성 및 시민사회의 자원과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변화지원조직이 활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으며, 특히 지역 시민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제언들은 센터의 활동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다.

(1) 연구 조사 결과 공유와 공동의 비전 마련 과정 구축

지리산권 시민사회는 과거 행정구역이나 활동 분야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 이슈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맺어 온 경험이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자원들이 존재하며, 이는 타 지역과는 다른 지리산권 시민사회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에서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과 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들과의 협업 관계를 마련하고,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확인하고 공동의 과제와 비전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변화지원조직 및 지역의 활동만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지역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일, 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 민간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지역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제 파악 및 관련 의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와 같이 지역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3) 변화지원조직 활동을 위한 지역별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

5개 시군에서는 변화지원조직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각 지역 현장에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동일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5개 시군 전체를 고르게 아우르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 재정적, 인적 자원 측면에서 쉽지 않다. 따라서 변화지원조직의 내부 인력 체계 외 5개 시군 단위를 출발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변화지원조직의 활동 협력 체계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에서는 지역사회에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는 활동 주체들의 양성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지원조직의 지원 활동도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관점에서 그 내용과 방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방식 마련

지역은 작은 단체나 모임 형태가 주를 이루고, 전문행정인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단체가 많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경험이 미비한 새로운 주체 발굴 및 주민들의 참여를 북돋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외부민간지원사업과는 차별성 있게, 지리산권 시민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 내용 및 방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기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간 설립, 민간 운영의 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그 길의 시작점에 세운 방향성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자 네 가지 주요 운영 원칙을 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으로서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의 주요한 기틀을 수립했다.

운영 원칙

한국사회의 돌봄, 인권, 정의에 있어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는 지역 격차 속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한국사회의 변화가 마을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람과 일상의 작은변화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지역사회 밖이 아닌 지리산권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리산권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갑니다.

1) 지역사회의 공익을 향상시키는 작은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작은변화를 만들겠습니다.

2) 지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웃과 마을을 고민하고 돌보는 주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성숙해지는 이웃공동체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공존하고 통합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만큼,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웃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모든 세대와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사회에 세대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미션

지리산권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든다

비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확산

주요 사업

- ①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익 활동의 주체 발굴과 양성
- ② 지리산권 공익 활동 지원
- ③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사람과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 ④ 지리산권 공익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 ⑤ 지리산권 시민사회를 위한 인적·물적·지식 기반 구축
- ⑥ 기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

핵심 가치

- 민주와 투명 :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운영
- 참여와 자치 :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 주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자치
- 협동과 자립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간 협동과 연대, 사회경제적 자립
- 균형과 공존 : 개인과 공동체, 사람과 생태환경의 균형과 공존 추구
- 사람과 과정 :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증가와 성장, 성과보다 민주적·참여적인 과정 중심

브랜드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와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두 개의 가치가 만났습니다. 지리산은 씨앗의 나무를 품고, 푸르게 성장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심볼마크인 씨앗의 나무, 그리고 잘 익은 열매를 상징하는 주황색. 지리산이음의 심볼마크인 지리산과 지리산의 숲, 강,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의 철학과 가치, 변화와 행동이 만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CI가 되었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주요 연혁

2018



지역협력파트너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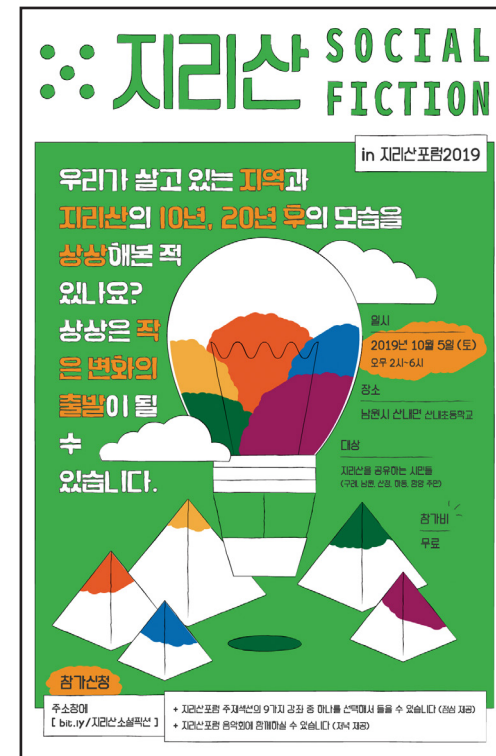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이후 산청 지역 간담회

- 1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개소
- 2월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역협력파트너 공동 워크숍
- 3월
지역협력파트너 협약식
- 4월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공고
〈정보공개 청구 교육〉 1차 개최
- 6월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공고
- 9월
〈정보공개 청구 교육〉 2차 개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개최 (~12월, 총 9회)
- 10월
〈지리산포럼2018 : 작은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 지리산섹션 '지리산에서 시작하는 작은변화의 물결'〉 개최
- 12월
〈지리산권 청년 현황조사 보고서〉 발행

2019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현장



〈지리산섹션 '지리산 소셜픽션'〉 포스터

- 1월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개최 (~11월, 총 10회)
- 2월
상반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공고
- 3월
〈청년 모임 지원사업〉 운영
- 4월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운영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 개최
- 6월
하반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공고
- 7월
〈미디어 활용 교육〉 : 남원, 산청, 하동, 함양 (~8월)
- 10월
〈지리산포럼2019 : 변화의 씨앗을 나누는 숲
- 지리산섹션 '지리산 소셜픽션'〉 개최
- 11월
〈지리산 청년 활동 네트워킹 워크숍〉 개최
- 12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공고
〈지리산권 청소년 현황조사 보고서〉 발행

2020



2020년도 작은변화활동가 워크숍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현장

- 2월
2020년도 작은변화활동가 협약 및 워크숍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발행
상반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공고
- 3월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운영 (~12월)
- 5월
하반기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작은모임 지원사업〉 공고
- 8월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운영
- 9월
〈2020 작은변화커뮤니티공간 만들기 캠페인〉 및 모금 홍보 영상 제작
- 10월
〈지리산포럼2020 : 로컬라이프
- 지리산섹션 '기후변화와 지리산'〉 개최
〈작은 지리산포럼〉 개최 : 구례, 산청, 하동, 함양

2021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속 농부 인터뷰 현장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 2월
2021년도 작은변화활동가 협약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공고
- 4월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11월)
- 6월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오픈 프로그램 개최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농부 인터뷰〉 운영 및 콘텐츠 발행 (~11월)
- 8월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운영 및 제작 (~9월)
- 10월
〈지리산포럼2021 : 위기와 전환
- 사전 프로그램 ‘지원의 전환’ 워크숍〉 개최
- 11월
〈지리산포럼2021 : 위기와 전환〉 개최 (~12월, 총 4회)
- 12월
〈작은 지리산포럼〉 운영 : 공유공간, 지리산권 언론, 책 생태계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논발생활포럼〉 개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결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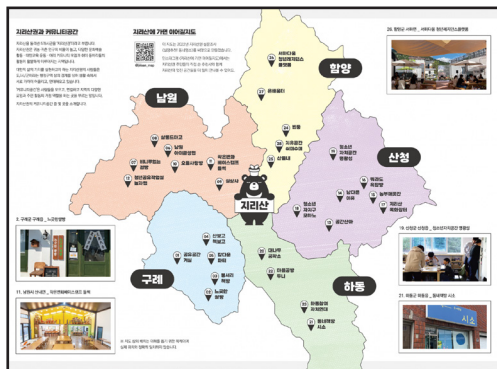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오리엔테이션



〈지리산쌀롱 : 무장애공간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2월

2022년도 작은변화활동가(네트워크활동가, 기록활동가) 협약
〈작은변화 공모지원사업 : 교육/학습, 조사/콘텐츠〉 공고
작은변화활동가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발행

3월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 공고

4월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봄)〉 공고
〈작은변화 공모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5월

상반기 〈작은변화활동가 네트워크데이〉 개최

6월

〈지리산쌀롱 : 청소년 공간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최

7월

〈지리산쌀롱 : 기후 정의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최

8월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가을)〉 공고

9월

〈지리산쌀롱 : 작은도서관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최
〈지리산포럼2022 : 10년 후 OO〉 개최

10월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부리는 사람들〉 발행
〈지리산쌀롱 : 기록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최

11월

〈지원의 전환 워크숍 : 지역에서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 개최
〈지리산쌀롱 : 무장애공간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개최
하반기 〈작은변화활동가 네트워크데이〉 개최

12월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발행
〈작은변화 공모지원사업 : 교육/학습, 조사/콘텐츠〉 결과공유회 개최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구례 사업 기획 워크숍



하반기 〈지리산 활동가대회 : 내가 발견한 작은변화〉

2월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지역별 선정위원회 회의

3월

기록활동가 간담회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지역별 설명회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지역별 기획 워크숍 및 선정 (~4월)

4월

상반기 〈지리산 활동가대회〉 개최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프로젝트 수행 (~11월)

6월

〈지리산쌀롱 : 남해 - 동고동락이 그리는 농촌마을공동체의 미래〉 개최

7월

〈지리산쌀롱 : 홍성 - 지금 여기서, 좋은 삶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개최

10월

논발생활백과와 농사기록 연계, 〈딸기밭에서 열세 달〉 출간
〈지리산쌀롱 : 경주 - 이것이 인디인디〉 개최

11월

〈지리산쌀롱 : 제주 - 씨앗으로 이어가는 미래〉 개최
〈지원의 전환 워크숍 : 지원아, 힘내!〉 개최

12월

〈지리산쌀롱 : 남원 - 조상의 기백으로 지켜낸 우리 역사와 문화〉 개최
하반기 〈지리산 활동가대회 : 내가 발견한 작은변화〉 개최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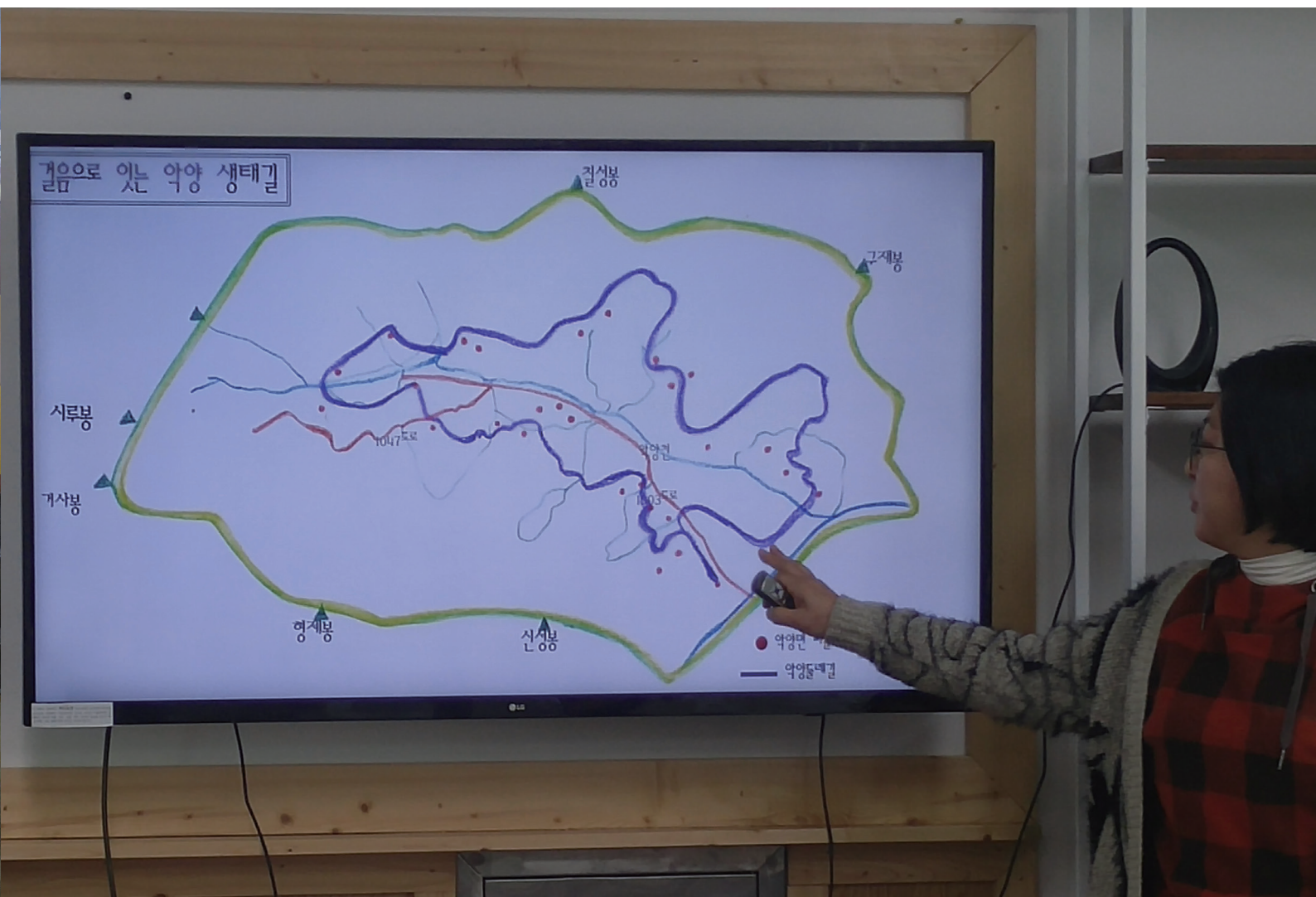
2018 지역협력파트너 협약식



2018 모이고 떠돌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2018 함양 작은변화포럼 '우리동네 지역의제'



2019 <작은조사 자원사업> 결과공유회

2장 사업 및 활동 현황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업 영역

2. 연도별 사업 현황

3. 숫자로 보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업 영역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 5개 시군 현장 조사에 기반하여 ‘지리산권의 공익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든다’는 사명과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확산’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운영 규칙과 사업을 수립하며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년간 진행한 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유형화하여,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으로 구분했다. 센터는 지역 현장의 욕구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성과와 평가 의견을 점검하며 여러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6년 동안 영역별 사업들의 세부 목표와 명칭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4개 영역의 핵심적인 목적과 방향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1. 활동가 지원 영역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인 활동가를 지원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센터가 활동가들에게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 영역에서 진행한 사업으로는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센터와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으로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중점적 지원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를 지역별로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량으로 판단된 ‘네트워크활동가’와 ‘기록활동가’로 작은변화활동가를 세분화하여 지원했다.

또한,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병행했다.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활동비 외에도 <지역 의제 지원사업>,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별도로 지원하여, 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슈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위 지원사업들로 작은변화활동가들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낳았다.

2.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위한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펼치는 공익 활동을 지원한 영역으로, 사업으로는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과 같은 공모 지원사업을 주로 진행했다.

지리산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 활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활동 모임, 시민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역 현실에 꼭 필요한 작은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영역을 통해 <지리산권 공동의제 지원사업>, <청년 모임 지원사업>, <청년공간 지원사업>,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센터 주도의 기획배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센터는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비 지원 외에도 공모 지원사업과 기획배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주체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내 프로그램을 활용한 네트워킹 기회를 다수 제공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활동 주체들간 연결이 강화되고, 지리산권으로 활동이 확장되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역량 지원 영역

활동가들이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지원’ 영역에서는, 여러 방식의 역량 지원 사업이 펼쳐졌다. <모이고 떠돌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지리산쌀롱> 등은 지역의 필요를 센터가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으로 만들어 낸 경우다. <정보공개 청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같은 경우, 활동가들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센터가 마련하여 진행했다. 또,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역량 지원은 <지리산쌀롱>이나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처럼 지리산권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지리산 외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사회 의제를 다채롭게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며 역량의 범주를 확장하길 기대했다.

4. 지역이해 및 기록 영역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년간 센터 주도의 <지리산권 청년 조사 사업>,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센터 사무국 역량 한계 등의 이유로 조사사업의 지속이 어려웠다. 이에 지역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인터뷰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연을 맺은 다양한 활동 주체를 인터뷰하고 이를 기록하여 활동보고서 <한발짝>, 커뮤니티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을 발간했다.

센터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기록함으로써 작은변화의 사례를 남기고, 이를 공유 확산하여 더 많은 작은변화를 길어올리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자료집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리산권 내외부로 발신했다. 또, <온라인 설문조사>,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을 기록하기도 했다.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처럼 지리산권 농부들의 기록으로 지역이 마주한 기후위기, 농업 등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업도 펼쳤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전체 사업 구성표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2018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지리산권 공동의제 지원사업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정보공개 청구 교육	•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2019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 청년 모임 지원사업 •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미디어 활용 교육 •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	•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 • 온라인 설문조사 • 활동보고서 <한발짝>
2020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작은모임 지원사업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온라인 설문조사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2021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온라인 설문조사
2022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네트워크활동가 • 기록활동가 •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교육/학습 • 조사/콘텐츠 •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 지리산살롱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작은변화활동가 보고서 <윤슬> •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 온라인 설문조사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2023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네트워크활동가 • 기록활동가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 따로활동 •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 지리산살롱 • 지리산 활동가대회	•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2. 연도별 사업 현황

2018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2018년은 센터가 문을 연 첫해로, 지역사회에서는 센터의 존재가 아직 낯선 상황이었다. 센터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지리산권 5개 시군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에 ‘작은변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활동 주체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진행한 지리산권 5개 지역 조사에 지역 조사원으로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큰 힘이 되었다. 센터는 2017년 지역 조사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을 ‘지역협력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5명의 지역협력파트너들은 센터와 지역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 의제를 찾는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찾고,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자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기본 모델로 하여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공모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는 지리산권에서 센터의 인지도가 아직 낮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적어 신청이 매우 저조했다. 센터는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지역협력파트너와 논의했고, 지역의 특성과 활동가들의 욕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재기획하여 실행했다.

또한 지역 현황 조사와 이해가 기초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리산권 5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작은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청년’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 하에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의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는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진행했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지리산권 공동의제 지원사업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정보공개 청구 교육	•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2018

활동가 지원 영역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센터 설립 전 진행한 조사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원조직이 중점을 두어야 할 지원 내용으로 ‘활동가 직접 지원’을 꼽았다. 지역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열악한 지역 시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센터는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으로 활동가 지원 영역의 사업을 시작했다. 첫째 ‘지역협력파트너’는 2017년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원 중에서 선정했다. 이들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활동가들이었다. 협력파트너로서 센터와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작은변화의 의미가 확산되는 것을 돕고, 지역의 여러 활동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센터는 지역협력파트너에게는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지역 안에서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력했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논의 구조도 만들었다. 5개 시군 지역협력파트너 정기 모임 및 월별 정기 지역 방문에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지역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논의했다. 특히 활동비 외에 <지역 의제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와 지역협력파트너 간 밀도 있는 컨설팅으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협력파트너의 지속 가능한 활동이 진행되도록 지원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1인 • 정태연(구례), 유지선(남원), 김병준(산청), 이순경(하동), 이은진(함양)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61,000,000원 • 활동가 1인당 월 100만원 (3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 활동가 1인당 연간 200만원이내 지역 활동 운영비 지급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간 57회 진행 • 지역협력파트너 정기모임 및 워크숍 : 연간 10회 진행 • 지역협력파트너 협약을 위한 워크숍 1회 • 연간 활동 평가 워크숍 1회
	역량강화지원	• <모이고 떠돌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및 <정보공개 청구 교육> 연계
	연계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로 사업 운영
산출물	협력파트너 5인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	196p	

● 지역 의제 지원사업

센터는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지역 의제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제가 시민들 안에서 논의되고, 나아가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발전돼 실천의 영역에서 다뤄지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제를 논의할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우선되어야 했다. 지역협력파트너는 이 사업의 주요한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지역협력파트너들은 지원사업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지역 활동가들의 공동 관심사를 모으고자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지역의 단체와 모임의 대표들이 정기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토대로 지역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8년 <지역 의제 지원사업>의 결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여러 해를 거쳐 구성원과 활동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지역별 시민사회를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지원대상	지역협력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2,900,000원				
		• 지역별 지원 현황				
		구분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2	4	1	1
	지원 금액	6,000,000	7,900,000	7,000,000	2,000,000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지역협력파트너와 공동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논의 지원 • 지역 간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내에서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등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06p					

2018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 주체를 발견하고자 마련한 공모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전체 틀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참고했으며, 심사, 선정, 사업 집행 방식 등은 지리산권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했다. 특히, 공모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지역 활동가들에게 선정 과정이 딱딱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세심하게 기획했다. 선정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현장실사는 평가 절차보다는 센터와 함께 작은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활동 방향과 목표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 활동가와 모임, 단체들은 사업 평가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첫해 진행된 공모 지원사업으로 센터 및 사업의 인지도가 낮아 참여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리산권에도 시민사회와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겼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센터는 지원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12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34,3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남원	산청
		활동 개수	3	5
	지원 금액	9,000,000	15,000,000	10,300,000
활동지원	• 지역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12p			

●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

센터의 첫 번째 공모 사업인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최대 20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5개만 접수되었고, 이 중 12개 사업만 선정했다. 이에 첫 번째 공모 사업 평가 후, 신속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신청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강좌와 지역 조사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필요한 강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좌 활동이나 지역 의제를 주민들 스스로 조사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조사 활동은 작은변화의 마중물을 붓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었다.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 의제와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이어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적고 기간도 짧았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반응은 뜨거웠다.

<작은조사 지원사업>의 결과 공유회는 지리산권 5개 지역을 통합하여 남원에서 개최했다. 지역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조사의 다양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공유가 활동가들에게 학습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동모임, 활동가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0,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 작은강좌 : 10개 활동 10,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활동 개수	1	6	2
	지원 금액	1,000,000	6,000,000	2,000,000	1,000,000
	활동지원	• 작은조사 : 10개 활동 10,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활동 개수	1	3	2
		지원 금액	1,000,000	3,000,000	2,000,000
		하동	2,000,000	2,000,000	2,000,000
활동지원	• 지역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13p				

2018

● 지리산권 공통의제 지원사업

〈지리산권 공통의제 지원사업〉은 지리산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리산권이 다뤄야 하는 공통의제를 발굴하고자 기획된 지원사업이다. 기존 지리산권에서 활동해 온 ‘지리산 시민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지리산권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자 했으나, 협의회 차원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협의회와 간사 단체인 ‘지리산생명연대’의 지리산 댐 건설 백지화를 지역에 알리는 〈NO DAM 축제〉를 지원하고,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연대에 대해 고민하는 〈지리산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당시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리산권 의제를 도출하고, 활동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이 경우, 센터 사무국의 인력 투여가 더 많이 필요했다. 센터 초기 단계로 위와 같은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차년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지리산권 공통의제를 발굴하게 되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역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000,000원 • 지원현황 • 지리산권 시민사회연대 1,000,000원 • 지리산댐 백지화 대책위 1,000,000원	
	활동지원	• 행사 공동주최로 참여 • 〈지리산 시민사회 포럼〉 발제자로 참여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4p		

역량 지원 영역
.....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새로운 방법(이하 ‘모떠꿈’)〉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지리산권 지역 활동가 및 주민들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당초 지역협력파트너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역협력파트너와 지역 활동가들이 연결되고 서로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강좌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지역별 별도 교육도 마련하여 지역 안의 활동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참여대상	지역협력파트너 및 교육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문 강사 지원	
	교육횟수	• 총 9회 진행 (하동, 구례, 남원 등 지역 순회)	
	교육내용	• 참여와 소통의 다양한 방법들 • 모두가 함께하는 회의 문화 • 리빙 라이브러리, LETS 등 민주주의 기술	
참여인원	180명 내외 (회당 15명 내외)		

● 정보공개 청구 교육

〈정보공개 청구 교육〉은 지역협력파트너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교육이었다. 정보공개 청구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의제 발굴 및 문제 제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모떠꿈〉과 마찬가지로 지리산권 안에서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기회도 함께 마련했다.

참여대상	지역협력파트너 및 교육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문 강사 지원	
	교육횟수	• 총 3회 진행 (남원, 하동, 산청)	
	교육내용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방법 교육	
참여인원	40명 내외 (회당 13명 내외)		

2018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지리산포럼〉은 지리산이음이 2015년부터 주최해 온 행사이다. 1년에 한 차례 지리산에 모여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성, 경험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포럼을 지향해왔다.

지리산이음이 센터의 역할로 활동하며 개최한 〈지리산포럼2018 : 작은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지리산섹션’을 별도로 열어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리산의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리산권 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활동가들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산권 안팎의 활동 주체들과 네트워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참여대상	활동 사례 발표자, 지역협력파트너 및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활동 사례 발표자로 초대 • 지리산권 활동가 무료 초대 방식으로 지원	
	교육횟수	• 지리산권 총 10개의 사례 발표	
	교육내용	• 지리산권 시민사회 활동 사례 4명 발표 • 시군 단위 시민 활동 네트워크 경험 3명 발표 • 마을 속 청소년과 함께 자라는 지리산 3명 발표	
참여인원	지리산포럼 전체 120여 명 (지리산권 활동가 20여 명 참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지리산포럼 › 지리산포럼2018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센터는 〈지리산권 5개 시군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현황과 의제, 시민사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 조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했다. 센터 활동 첫해에는 지역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조사를 목표로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지리산권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세대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고자 했다. 외부 조사자와 함께 센터 사무국 활동가가 연구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사무국 역량 및 연구 결과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했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로 진행됐으며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와 접촉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2019년 진행한 〈청년 모임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발간물	지리산권 청년 현황조사 보고서		
운영방식	문헌조사	• 지리산권 지역별, 인구, 주거, 교통, 경제분야 및 각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조사	
	면접조사	• 지역과 성별, 연령대, 직종을 고려하여 총 17명의 청년 면접조사	
	그룹 인터뷰	•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	
산출물	• 〈2018 지리산권 청년 기본현황 조사 보고서〉 200부 인쇄물 제작 및 배포 • 온라인판 PDF 홈페이지 발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19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센터의 존재가 지리산권 지역사회에 점차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다. 센터는 단순히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를 함께 기획하고 고민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2018년 첫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등장하고 지역 모임과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지역협력파트너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활동한 5인의 지역협력파트너는 각 지역의 활동 주체와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모임, 단체, 활동가들이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별로 작은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원사업 개발도 이어졌다.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공모 형태의 〈청년 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청년 모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류회와 워크숍도 지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리산권 청년들의 활동이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센터 사무국도 점차 안정화됐다. 1년 차 활동의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사무국은 2019년에 사업의 범위와 횟수를 확대하며 더 많은 활동 주체와의 만남을 늘리고자 노력했다.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찾아내고 이를 연결하는 기회도 많아졌다. 특히,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의 연구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을 이끄는 주체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을 연내 추가로 기획하여 추진했다.

이처럼 사전에 기획된 지원사업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작은변화의 씨앗을 심고 성장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 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 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온라인 설문조사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 미디어 활용 교육	• 활동보고서 〈한발짝〉
	• 청년 모임 지원사업	•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	
	•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활동가 지원 영역

●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2018년에 구성된 5인의 지역협력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동일한 활동가의 연속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산청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지역협력파트너 활동을 중단하게 된 기존 활동가의 추천과 재단-이음의 공동 실무회의 논의를 통해 산청에서 활동할 새로운 지역협력파트너를 선정했다.

2019년에도 지역협력파트너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이어졌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역 의제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이 마련한 네트워크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2년간 활발한 활동이 지역 안에서 두드러지면서 지역 대표 활동가라는 외부 인식에 지역협력파트너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역의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이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 센터의 역할과 중장기 전망을 논의하고자 센터와 협력파트너들은 매월 공동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협력파트너는 일상을 나눌 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현안도 공유했다. 이와 같은 자리는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작은변화의 의미와 지역협력파트너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했다. 또한 재단, 센터, 지역협력파트너 세 주체가 모인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센터의 역할과 중장기 전망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지역협력파트너는 센터의 중요한 운영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1인 • 정태연(구례), 유지선(남원), 김은영(산청), 이순경(하동), 이은진(함양)
	지원금	• 총 지원금 60,000,000원 • 활동가 1인당 월 100만원 (1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간 49회 진행 • 지역협력파트너 정기모임 및 워크숍 : 연간 11회 진행 • 활동 평가 및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1박2일)
	역량강화지원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연계
	연계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의 운영 주체로 사업 운영
산출물	지역협력파트너 5인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	196p	

2019

● 지역 의제 지원사업

2019년 <지역 의제 지원사업>은 2018년 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역별 네트워크가 새로운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활동 주체인 지역협력파트너와 논의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례 지역도서관 이전 문제와 하동 산악열차 설치 문제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지원했는데, 이는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이 지역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원대상	지역협력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40,000,000원					
		• 지역별 지원 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1	2	2	3	1
	지원 금액	8,000,000	11,000,000	5,000,000	8,000,000	8,000,000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지역협력파트너와 공동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논의 지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내에서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등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개수						
참고	207p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2018년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평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지역 내 활동과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9년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서는 참여 주체들의 활동과 고민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사업에도 변화를 주었다.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을 상하반기 2차례 진행하여, 각 시기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금 규모를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지원 대상의 숫자를 늘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서에도 변화를 주었다. 예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대신 사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부터 작성하기보다는,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예산서는 사업 선정 후, 센터의 컨설팅을 받고 별도의 작성 가이드를 통해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2019년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사 과정에 있었다. 심사 과정 자체가 모임과 단체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또 하나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심사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센터는 이를 통해 지역 모임과 단체의 현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13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6,000,000원					
		• 지역별 지원 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1	2	4	1	5
	지원 금액	2,000,000	4,000,000	8,000,000	2,000,000	10,000,000	
	심사단계	• 1차 선정단계 간담회 후 최종 선정 단체 발표					
	활동지원	• 지역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및 지역별 결과 공유회					
	참고	215p					

2019

●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

2019년도에 연속으로 진행된 <작은조사 / 작은강좌 지원사업>은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 사업은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과 달리 강좌와 조사를 주요 활동 방식으로 삼아 면접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원 신청서에서 강좌와 조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역의 작은변화가 무엇인지 질문하여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참가자를 포함해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열어서 지역 활동가 간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결과 공유회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지리산권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활동가와 모임 및 단체 간의 연결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동모임, 활동가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0,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 작은강좌 : 14개 활동 14,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2	3	5	3	1
		지원 금액	2,000,000	3,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
	• 작은조사 : 6개 활동 6,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함양		
	활동 개수	2	1	2	1		
	지원 금액	2,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활동지원	•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역량강화 지원	• <작은조사 지원사업> 지리산권 결과 공유회 개최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및 지역별 결과 공유회						
참고	216p						

● 청년 모임 지원사업

2018년에 진행된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 모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전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의 청년 지원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공익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활동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조사 과정에서 만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구성될 때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 청년 공익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청년 모임 3개 활동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9,000,000원 • 지원현황 : 3개 단체 각 3,000,000원 • 지원단체 : 작은자유 (남원), 청년정책네트워크 (남원), 있다 (산청)
	활동지원	•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7p	

●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에 이어, 2019년에는 지역 이해 활동의 일환으로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모임과 단체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모임 공간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 소도시 청소년들의 일상과 진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별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와 모임의 활동 특성에 맞춰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했다. 지역별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기반해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준 지원사업으로 평가받았다.

2019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공간 활동가들은 모임을 조직했다. 이 모임은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공간 운영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 종료 후에는 ‘지리산권 청소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과 공간 운영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및 모임 5개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15,000,000원 • 지원현황 : 단체당 각 3,000,000원 지원 • 가온누리(남원), 하마(산청), 모하노(산청), 우악스(하동), 물음느낌표(함양)	
	활동지원	• 개별 지원단체의 활동 공유모임 운영 • '지리산권 청소년 활동 지원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모임 운영 지원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8p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와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참여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사업 과정에서 진행한 〈지리산권 청소년 워크숍〉에서도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자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랐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을 기획했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기반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무국에서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공정여행, 미디어캠프)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7,500,000원 • 지원현황 • 공정여행 : 3,000,000원 (1인당 300,000원, 10명) • 자유주제 자치활동 : 4,500,000원 (1팀당 500,000원, 9팀)	
	활동지원	• 공정여행 및 미디어 캠프 : 제주도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여행과정에 대한 촬영등을 통한 미디어 학습 기회 제공 • 자유주제 자치 활동 : 모하노 토론동아리(산청)등 총 9개 활동 지원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8p		

역량 지원 영역

●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2018년도 역량 강화 지원의 하나로 추진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이하 ‘모떠꿈’)에 대한 지역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이 지역의 모임과 활동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기를 희망했고, 2019년에는 열린 교육 방식으로 〈모떠꿈〉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참여대상	지역협력파트너 및 교육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문 강사 지원	
	교육횟수	• 총 9회 진행 (남원 생협 교육장 활용)	
	교육내용	• 참여와 소통의 다양한 방법들 • 소셜픽션, 오픈 스페이스, menti 활용법등 민주주의 기술 교육 • 수원 삼삼오오학교 사례 공유	
참여인원	120명 내외 (회당 13명 내외)		

● 미디어 활용 교육

2018년에 진행된 지역 활동가 대상의 교육 수요 조사에서, 대부분의 활동가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 제작 실습 교육을 요청했다. 이에 센터는 진주시민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활동가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대상	지역협력파트너 및 교육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문 강사 지원 (진주미디어센터 협력)	
	교육횟수	• 총 7회 진행 (남원, 산청, 하동 각 2회, 함양 1회)	
	교육내용	• 웹자보 제작 • 카드뉴스 제작 • 스마트폰 영상기술 제작	
참여인원	55명 (지역별 10명 내외 참석)		

2019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2018년에 이어 2019년 <지리산포럼2019 : 작은변화의 씨앗을 나누는 숲>에서도 ‘지리산섹션’을 운영했다. 전년도에는 지리산권 공익 활동을 소개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9년에는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시민교육 방법론 중 하나인 ‘소셜픽션’을 활용하여, 지리산권 활동가들과 함께 30년 후의 지리산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지리산권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대상	지역협력파트너 및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문 강사 지원 • 참가자 무료 참가 지원	
	교육횟수	• 지리산섹션 1회	
	교육내용	• 지리산 지역의 30년 후를 상상하는 소셜픽션 워크숍	
참여인원	지리산권 활동가 30명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지리산포럼 > 지리산포럼2019		

●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

지리산권의 청년 모임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했다.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과 2019년 <청년 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한 모임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교류회 방식으로, 하반기에는 타 지역 청년 활동 공간을 방문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 2회 활동으로 지역을 넘어 지리산권 청년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대상	•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에 참여한 청년 • 2019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모임 또는 단체 구성원		
지원내용	지원방식	• 상반기 : 워크숍 운영비 지원 • 하반기 : 사례 탐방 1박2일 워크숍 운영비 지원	
	교육횟수	• 총 2회 (상반기, 하반기)	
	교육내용	• 상반기 : 지리산권 청년살이, 시골살이 이야기 테이블 • 하반기 : 남해 팜프라 청년마을 탐방, 마을 디자인 강좌	
참여인원	지리산권 청년 33명 (상반기 12명, 하반기 21명)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을 통해 청년 모임 주체들을 만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이 확장해 가는 성과를 얻었다. 2019년에는 지리산권 청소년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현장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연구 조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 과정의 성과를 사무국의 역량으로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자문회의, 문헌조사, 청소년 당사자 면접조사 등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는 청소년 관련 모임 및 단체들과의 토론회 개최, 인포그래픽 제작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했다.

연구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지역 이탈 현황,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 방과후 교실과 돌봄 수요, 학생 수의 감소 등 지역 청소년 활동가들이 관념적으로 파악하던 현황을 통계와 인터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는 센터 지원사업 기획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 모임 및 단체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간물	지리산권 청소년 현황조사 보고서	
운영방식	문헌조사	• 지리산권 지역별, 인구, 주거, 교통, 경제 분야 및 각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조사
	면접조사	• 지리산권 청소년 11명 심층 면접 및 인터뷰 조사 (구례, 남원, 함양 각 1명, 하동 3명, 산청 5명) • 청소년 활동 지원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 사례 조사
	그룹 인터뷰	• 청소년 활동 지원단체 활동가 그룹 인터뷰 및 토론회 개최
	산출물	• 〈2019 지리산권 청소년 기본현황 조사 보고서〉 100부 인쇄물 제작 배포 • 온라인판 PDF 홈페이지 발행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포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19

● 활동보고서 〈한발짝〉

2018부터 2019년까지 센터가 지원한 활동가, 모임, 단체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작했다. 이 활동보고서를 통해 지리산권 공익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 만들어진 작은변화는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센터의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위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활동보고서 제작 과정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지역 시민사회 현황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생생하게 듣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지역사회 활동을 기록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터뷰 방식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발간물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운영방식	대상	- 지역협력 파트너 및 지역 활동가 20명 - 구례 : 정태연, 강은경, 이민정, 수수 - 남원 : 유지선, 권영애, 서진희, 상이 - 산청 : 김은영, 유훈정, 김한범, 김명철 - 하동 : 이순경, 정명희, 배혜원, 이정희 - 함양 : 이은진, 최홍성미, 김현임, 채화석
	방식	기록 전문가 면접 인터뷰 15명, 서면 인터뷰 5명
산출물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인쇄물 200부 제작 배포 - 온라인 PDF 제작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프로젝트〉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통합 자료실	

● 온라인 설문조사

지리산권 5개 시군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변화’라는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센터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에 대한 질문과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총 150개의 답변이 모였고, 지역에 필요한 작은변화의 키워드를 확인하여 빅데이터 노출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공개하였다.

대상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세부내용	설문 제목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설문 기간	2019년 8월 19일 ~ 9월 8일
	참여인원	총 150명 (구례 26명, 남원 49명, 산청 15명, 하동 38명, 함양 22명)
	주요 결과 키워드	- 구례 : 일자리〉청년〉아이 - 남원 : 일자리〉문화〉청년 - 산청 : 청소년〉일자리〉문화 - 하동 : 청년〉문화〉농업 - 함양 : 문화〉일자리〉청년
산출물	- 빅데이터 노출 방식으로 키워드 정리 -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결과를 콘텐츠로 시각화함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프로젝트〉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센터 소식	

2020

2020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모여서 하는 활동 자체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역별, 마을별로 진행되는 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맞춰 지원 내용이나 규모 등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크게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였다.

활동가 지원 영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은 센터와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은 작은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지역 활동가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에 다양한 연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진행한 사업이다. 또 지역협력파트너로서 활동가들이 부담감을 가진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기존에 지역별 1인이었던 활동가를 3인으로 늘려 총 15명의 ‘작은변화활동가’를 지원했다.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갔다.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은 유지했으며, 〈작은모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지역의 작은 모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에서 총 9개 지원사업을 운영, 73개 활동을 지원했다. 2018년 41개, 2019년 57개 활동을 지원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센터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외에도 섬진강 인접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한 해였다. 구례, 남원, 하동의 마을과 시장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해당 지역 활동가들과 모임, 단체들은 수해 극복에 힘을 보태며, 복구 작업에 간간힘을 쏟았다. 센터는 활동가들을 통해 지역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수해 피해 복구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 활동도 이어서 지원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암담한 예상과는 달리 센터는 지역과 밀착한 유연한 지원으로 시의적절한 사업들을 해낼 수 있었다. 위기의 순간에 지역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 센터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코로나 팬데믹과 수해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힘썼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0년은 센터의 역할이 더욱 명료해지고, 지역 안에서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는 한해가 되었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 공모 지원 사업	• 지리산포럼 ‘지리산색션’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 온라인 설문조사

활동가 지원 영역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2018년~2019년 활동가 지원 영역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은 지역의 주요 활동가를 지원하여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활동가 지원사업이 가진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센터만의 독창적인 사람 지원 사업으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협력파트너가 지역 내 활동 주체들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동시에 개별 의제 활동도 진행하는 등 해야 하는 역할이 점점 많아졌다. 또한, 지역별로 1인만 지원하는 데 대한 활동가 당사자들의 부담감도 심화됐다.

2020년부터는 5인의 협력파트너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낼 활동 주체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활동가 지원사업에 변화를 꾀했다. 지역별 활동가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지역협력파트너라는 명칭도 ‘작은변화활동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활동가의 정체성을 센터와 지역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작은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으로 분명히 하고자 했다.

새로운 작은변화활동가 선정을 위하여 기존 지역협력파트너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센터 사업에서 만난 이들 중, 활동가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종합하여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들 중,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에 공감하며 활동 의사를 표한 활동가 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방향은 활동가가 해온 활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작은변화활동가가 지역의 활동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는 교육, 워크숍,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협력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활동비 외에 별도의 활동 운영비를 ‘씨앗기금’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활동 실험 및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원대상	-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3인 - 구례 : 정태연, 김은경, 차승아 - 남원 : 유지선, 김양오, 장소영 (3월~5월) - 산청 : 김은영, 김한범, 이종혁 - 하동 : 이순경, 배혜원, 이정희 - 함양 : 김찬두, 김현임, 최홍성미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85,200,000원 - 활동가 1인당 월 60만 원 (3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간 30회 진행 - 작은변화활동가 정기모임 및 워크숍 : 연간 6회 진행
	역량강화지원	- 작은변화활동가 정기모임을 통해 총 6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 기술 교육, 풀뿌리 시민활동 관련 전문 강사 초청 강좌 등
	연계지원사업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운영
산출물	작은변화활동가 15인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	196p	

2020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센터는 작은변화활동가들이 기존의 활동을 확장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씨앗기금’을 지원했다. 씨앗기금은 작은변화활동가에게 제공되는 정기 활동비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존 활동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활동을 실험하는 활동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지역 활동이 위축되면서 씨앗기금을 활용한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센터는 활동가의 지역 활동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작은변화를 만드는 현장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유 연성을 발휘하여 기금 활용 시기 및 규모 등을 각 활동가의 상황에 맞춰 조율했다. 그 결과 씨앗기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지원대상	작은변화활동가 15명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9,150,000원 • 지원현황 • 구례 : 3개 활동 6,500,000원 • 남원 : 2개 활동 3,450,000원 • 산청 : 3개 활동 5,700,000원 • 하동 : 3개 활동 7,500,000원 • 함양 : 3개 활동 6,000,000원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작은변화활동가 정기모임을 통한 사업 공유 및 점검 • 지역 간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내에서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등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09p	

●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지역 의제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네트워크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활동을 비롯해,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요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활동 주체로는 ‘남원작은변화포럼’, ‘구례 작은도서관네트워크’, ‘산청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함양작은변화네트워크’, ‘월간하동사람들’ 등이 있다. 센터는 이러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는 각 네트워크가 다룰 의제를 발굴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지리산 개발 이슈, 수해 등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은변화활동가들이 핵심 주체로서 네트워크를 이끌며 지역의 여러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대상	• 작은변화활동가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기존 지역협력파트너 5인) • 구례: 구례지역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 남원 : 남원 작은변화 포럼 • 산청 : 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크 • 하동 : 월간 하동사람들 • 함양 :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0,000,000원 • 지원현황 : 지역별 1개 활동 각 4,000,000원 지원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작은변화활동가와 공동 정기모임을 통한 활동 논의 지원 • 지역 간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내에서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등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08p	

2020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앞서 2년간 진행해 온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지역의 모임과 단체에 좋은 활동 동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센터에게는 작은변화의 가치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제를 보며 지역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제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센터는 이러한 효과를 강화하고자 지원사업의 과정을 더욱 섬세하게 기획했다. 특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임, 단체, 활동가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썼다. 일반적인 공모 사업이 선정 과정에 집중한다면, 센터의 경우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센터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 힘썼다. 심사과정을 단축하여 현장실사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자 했다. 이 과정으로 지원사업 참여 모임, 단체, 활동가와 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하던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을 연 1회로 줄이고 활동 기간을 확대했다. 더불어 문턱이 낮은 <작은모임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지역 내 일상적 모임에 소액을 지원해 새로운 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실험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8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4,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활동 개수	2	4	1	1
	지원 금액	6,000,000	12,000,000	3,000,000	3,000,000	
	활동지원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 보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19p					

●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의 단체와 모임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역의 대규모 행사뿐 아니라 소규모 모임과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었다.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작은강좌 / 작은조사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들 지원사업이 지역의 소소한 활동을 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작은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활동가가 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활동모임, 활동가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0,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 작은강좌 : 10개 활동 10,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함양
		활동 개수	1	5	3	1
		지원 금액	1,000,000	5,000,000	3,000,000	1,000,000
		• 작은조사 : 10개 활동 10,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활동 개수	3	4	3	
		지원 금액	3,000,000	4,000,000	3,000,000	
활동지원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20p					

2020

● 작은모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활동에 활기를 더하고자 <작은모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기획했다. 본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소모임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했다. 4개월간 50만 원의 소액 지원임에도 신청하는 모임이 많아 계획했던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했다. 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정산 없이 활동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상황에 맞는 시의성 있는 사업으로 지역 시민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활동 소모임 16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8,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합양
		활동 개수	1	5	6	2	2
	지원 금액	500,000	2,5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활동지원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역별 결과보고회를 통한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참고	222p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2019년 진행한 <지리산권 청소년 기본 현황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청소년들이 타 지역의 공익 활동을 탐방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다. 기존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의 주체성 강화 활동을 하는 청소년 지원 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했다. 전년도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및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모임 외에도 새로운 활동 주체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지원 활동 주체의 확장에도 힘썼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3곳 • 구례 : 청소년공간 흥당무 • 산청 : 청소년공간 모하노 • 함양 : 청소년 축제 준비위원회 (빈동협동조합)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8,000,000원 • 지원현황 : 지역별 1개 활동 각 2,000,000 ~ 3,000,000원 지원
	활동지원	• 청소년 공간 운영자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지원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24p	

●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토종씨앗, 마을교육 활동과 같이 지역을 넘어 지리산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의제들을 만났다. 이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 활동가와 모임들이 연결되고 교류하며 지리산권 의제가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의 개별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기대했다.

우선 지역의 네트워크 활동은 각자의 활동을 지리산권으로 확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센터는 이를 지원하고 타 지역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네트워크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활동가 및 활동 단위들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과 힘이 되며 연대를 이어갔다. 본 지원사업 이후 지리산권 네트워크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역으로 활동하는 팀 5곳		
지원내용	지원금	• 구례 : 지리산 시민과학자, 기후위기 지리산 비상행동	
		• 남원 : 지리산 마을교육 공동체	
		• 하동 : 지리산 게더링	
		• 함양 : 함양 토종씨앗 모임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16,100,000원	
		• 지원현황 : 지역별 1개 활동 각 1,600,000 ~ 4,000,000원 지원	
지원내용	활동지원	• 작은변화활동가 모임에서 활동 내용 공유 및 사업 연계 지원	
		• 중간방문 및 사업 컨설팅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23p		

●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구례, 남원 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작은변화활동가들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피해가 심각한 구례와 남원에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수해복구 활동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복구 이후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책 대응 활동도 지원했다.

작은변화활동가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 모임,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지역의 필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이나 여타의 민간기관이 할 수 없는 시의적절한 지원이었으며 지역 시민사회가 서로 연결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대상	수해 관련 당사자 활동을 하는 지역 단체	
	• 구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 남원 : 남원시농민회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5,000,000원 • 지원현황 : 구례 3,000,000원 / 남원 2,000,000원
	활동지원	•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참고	224p	

2020

역량 지원 영역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과 〈작은 지리산포럼〉

〈지리산포럼〉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리산포럼〉을 진행하는 것에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팬데믹을 이유로 7년간 이어온 포럼을 쉬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지리산포럼2020 : 로컬라이프〉는 우여곡절 끝에 소수의 청중만 현장에 참가하는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5일 동안 진행했다.

〈지리산포럼〉중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진행하거나 주요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지리산섹션’에서는 ‘기후변화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 이야기를 다루었다. 지리산 5개 시군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지리산포럼〉도 신설했다.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지리산포럼〉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지리산포럼〉은 지역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경험을 나눠줄 활동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소규모의 오프라인 포럼을 운영했다. 이는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활동이 가지는 장점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참여대상	활동사례 발표자, 작은변화활동가 및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지리산포럼2020 온/오프라인 사례 발표 지원 - 지역별 사례발표 워크숍 지원 - 지리산권 활동가 무료 초대 방식으로 지원
	교육횟수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1회 - 작은 지리산포럼 5회
	교육내용	- 지리산섹션 : 기후변화와 지리산 (3명 발표) - 작은 지리산포럼 - 구례 :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 남원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민사회 활동 - 산청 : 마을에서 만나는 발달장애 청년 - 하동 :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잇는 텃밭 - 함양 : 로컬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참여인원	- 지리산포럼 : 참석자 24명 (온라인 시청 372명) - 작은 지리산포럼 : 93명 (하동 28명, 함양 12명, 남원 23명, 구례 13명, 산청 17명)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지리산포럼 > 지리산포럼2020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2018년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2019년 〈청소년 조사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의제를 깊이있게 다룬 조사연구가 지역 시민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한 명의 사무국 활동가가 계속 전담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런 차원에서 2019년에 진행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은 조사연구 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조사연구같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깊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역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조사연구 사업의 목적이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를 환기시키고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도 일정 정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역의 변화와 현재 고민 등이 기록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와 같은 활동가 인터뷰의 장점을 살려 2020년에는 조사연구 대신 지역 활동가와 활동을 기록하는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사업을 본격화했다.

지역 활동가와 활동 모임, 단체를 인터뷰하고 이를 기록하는 글쓴이로는 산청과 함양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활동가의 시선으로 기록함으로써 지역을 눈높이에서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간 14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 인터뷰 글은 센터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비롯해 ‘오마이뉴스’에도 시리즈로 연재했다. 센터의 활동을 외부에 알릴 뿐 아니라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 단위와 의제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발간물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온라인 게시물)	
운영방식	대상	- 지역 활동가 13개 단위 (개인, 모임/단체) - 구례 : 자연스레 자연농, 위대용 활동가 - 남원 : 조희은 활동가, 김양오 활동가, 오순도순사회적협동조합, 산내놀이단 - 산청 : 대안공간 모하노, 목화장터 청년 기획단 - 하동 : 책보따리 도서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지리산미안해 프로젝트 - 함양 : 카페 빈둥, 최홍성미 활동가
	방식	지역 활동을 하는 기록 전문가의 인터뷰 방식
산출물	- 온라인 인터뷰 콘텐츠 〈지리산활동백과〉 시리즈 발행 2021년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제작 배포 및 PDF판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20

● 온라인 설문조사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지역 활동이 위축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오프라인 활동을 전면 취소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역 안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상기시키고, 서로의 목소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다.

그 방법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지리산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생대회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을 묻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고 예상보다 많은 답변으로 지역사회가 응답했다. 사업 종료 후 결과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 제목	• 코로나 시대 미래 예보	
	설문 기간	• 2020년 7월 6일 ~ 7월 24일 (3주)	
	참여인원	• 총 73명	
	세부질문	• 코로나시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 앞으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산출물	•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세대별 답변으로 정리 •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결과를 콘텐츠로 시각화함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 제목	• 우리끼리 사생대회 <로컬이 사랑한 풍경>	
	설문 기간	• 2020년 9월 21일 ~ 10월 8일 (3주)	
	참여인원	• 총 24명	
	제출방식	• 직접 그린 그림 (파일 제출)	
산출물	• 선정 작품을 활용해 2021년 달력 제작 •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결과를 콘텐츠로 시각화함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2021

2021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2020년에 이어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역활동도 위축되어 갔다. 사회 전반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며 농촌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센터는 지역 활동가들의 안전을 지키며, 동시에 지역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했다.

2021년은 센터가 중장기 운영 계획을 세우고 맞는 첫 해였다. 2021년에 세운 중장기 운영계획의 핵심은 ‘사람’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의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사회에 작은변화를 만들어 갈 사람을 발굴, 성장, 촉진, 연결하여 시민사회 생태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정비하였다. 이미 가고 있는 방향이었지만, 중장기 계획을 명문화하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은 2020년에 선정한 작은변화활동가들을 연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년에 걸친 지원으로 활동가들의 활동에 깊이를 더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지원사업을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활동 주체인 사람을 지원하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등 여러 변화를 꾀했다. 또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도 개인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센터는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와 <논발생활백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활동 열기를 유지하고, 지역 소식을 지리산권 5개 지역 전역과 외부로 전파하는 활동에도 힘을 실었다. 함께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활동 소식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공유하는 것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했다.

2021년에는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썹’(이하 들썹)이 문을 열면서 공간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힐 계기가 만들어졌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교류와 학습 공간을 지향하는 ‘들썹’에서는 다양한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다양한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리산에서도 유의미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 온라인 설문조사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2021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협력해 만든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작은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변화의 주체인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하며 협력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리산 자락의 남원시 산내면에 문을 열었다.

지리산이음은 2016년에 공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오래된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해 이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아름다운재단 주도로 마련되었다.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지리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활동가들에게도 유용한 커뮤니티 거점이 되고자 한다. 들썩에서는 다양한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활동가들이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며, 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활동가 지원 영역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2021년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선정한 활동가 14인을 연속하여 지원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동가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자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전년도 활동 결과가 21년도 활동의 마중물이 되어 활동의 깊이를 더하거나 확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년도에는 활동가 개인의 역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작은변화활동가 간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 배우며 지리산권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져가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021년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흔적은 컸다. 그러나 연속 지원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다진 작은변화활동가들의 활동은 지역에 꾸준한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3인 (남원 2인) - 구례 : 정태연, 김은경, 차승아 - 남원 : 유지선, 김양오 - 산청 : 김은영, 김한범, 이종혁 - 하동 : 이순경, 배혜원, 이정희 - 함양 : 김찬두, 김현임, 최홍성미
	지원금	- 총 지원금 100,800,000원 - 활동가 1인당 월 60만 원 (1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간 24회 진행 - 전체 활동가 모임, 지역별 활동가 모임, 전체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방식으로 매월 순차적으로 모임 운영
	역량강화지원	- 작은변화활동가 정기모임을 통해 총 3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연계
	연계지원사업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운영
산출물	작은변화활동가 14인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	196p	

2021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2021년도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은 새로운 배분 방식을 시도했다. 지역별로 작은변화활동가 3인이 한데 모여 지역에 필요한 의제와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여 씨앗기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센터는 그 결정에 따라 기금을 배분했다. 씨앗기금의 배분 방식을 고민하며, 지역에서 집중할 의제에 대해 작은변화활동가 간의 공감대를 쌓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논의 구조와 협력 관계를 다지고자 했다.

기존에는 작은변화활동가가 상대적으로 자신의 관심 주제에 몰입했다면, 씨앗기금을 논의하며 타 활동가의 의제와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활동을 바라보며 개인 활동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지원대상	작은변화활동가 14인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8,400,000원 • 지원현황 - 구례 : 3개 활동 5,000,000원 - 남원 : 2개 활동 5,000,000원 - 산청 : 2개 활동 4,000,000원 - 하동 : 3개 활동 5,000,000원 - 함양 : 3개 활동 6,400,000원 - 지리산권 : 1개 활동 3,000,000원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작은변화활동가 정기모임을 통해서 사업 공유 및 점검
	역량강화 지원	• 지원금 내에서 참여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등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0p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센터의 노력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리산권 지역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다. 활동 및 의제 지원사업은 사업 분야를 늘리기보다 내실을 갖추어 작은변화를 만들어갈 사람이 남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런 이유로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작은강좌 지원사업>, <작은조사 지원사업> 등으로 나뉘었던 공모 지원사업을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다. 개인, 단체, 모임의 구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면서도 지원금 내의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지원 예산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서 활동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과정에서 지역 활동가, 모임, 단체가 센터 이외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 설립 이후로 지리산권 내외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지원을 펼치면서 기존에 센터 지원을 받던 활동 주체들도 외부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센터는 이를 지역의 단체와 모임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센터의 역할 및 지원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소규모의 지역별, 의제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활동 주체들 간의 다양한 연결 기회를 마련했다. 이는 네트워킹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안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연말에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새로 문을 연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지리산권 통합 결과 공유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60,0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5	5	3	5	2
		지원 금액	15,000,000	15,000,000	9,000,000	15,000,000	6,000,000
	활동지원	• 지역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지리산권 통합 결과 공유회 개최 및 네트워크 지원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연계						
산출물	지리산권 결과 공유회 자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25p						

2021

역량 지원 영역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2021년도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이 사람을 발굴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인건비를 상향하는 등 사업 목표를 구체화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역량 지원 영역에서도 작은변화를 만들 ‘사람’에 집중하고자 했다.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은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과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리산권 활동가를 대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활용해 활동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대중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중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또 다른 활동이 되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활동가들과 소통하여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활용하기를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영상 제작, 디자인 등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 활동가들이 신청한 대부분의 강좌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 물리적 거리로 인해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활용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원대상	작은변화활동가 및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담당자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909,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합양
		활동 개수	1	2	2	2	4
	지원 금액	300,000	600,000	500,000	600,000	909,000	
지원방식	• 개별 교육 신청 내용 확인후 교육 실비 지원						
산출물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과 <작은 지리산포럼>

2020년도에 이어 지리산포럼 내 <지리산섹션>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작은 지리산포럼>을 함께 진행했다. 코로나 및 지역 상황으로 지리산포럼과 동시에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지역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

특히 <작은 지리산포럼>에서는 외부 연사를 초대해서 듣는 방식이 아닌,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이야기하고 활동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후위기, 지역 청소년, 공유공간, 지리산권 언론과 같이 지역의 생생한 의제를 중심으로 작은 지리산포럼을 진행하며,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결합하고 연결되는 장이 될 수 있었다.

참여대상	활동 사례 발표자, 작은변화활동가 및 참가 신청한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지리산포럼2021 온/오프라인 사례 발표 지원 ● 지역별 사례 발표 워크숍 지원 ● 지리산권 활동가 무료 초대 방식으로 지원
	교육횟수	●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1회 ● 작은 지리산포럼 3회
	교육내용	● 지리산섹션 : 지원의 전환 (지원 기관 활동가 워크숍) ● 청년허브, 카카오톡 셉터나눔 재단 사례 발표 ● 작은 지리산포럼 ● 구례 : 공유공간의 필요성에 관한 구례포럼 ● 구례 : 지리산권 언론들의 고민 털어 놓기 ● 남원 : 지역 책방과 출판인이 고민하는 책 생태계
참여인원	● 지리산섹션 : 참석자 30명 ● 작은 지리산포럼 : 40명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지리산포럼 > 지리산포럼2021	

2021

●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나와 지역’ 또는 ‘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화 촉진 도구로서 ‘로컬이야기카드’를 개발했다. 지역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성과 관련해 일과, 공간, 휴식, 정치 등 폭넓은 범위의 키워드를 고려했고,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깊이 있는 대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층위의 질문을 담았다.

로컬이야기카드 제작에는 지역 활동가 3인과 센터 사무국 활동가가 참여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함께 토론하며 지역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을 통해 완성된 ‘로컬이야기카드’는 지리산권 활동가들에게 무료 배포했으며,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자리에서 활용되고 있다.

발간물	로컬이야기카드	
지원내용	지원방식	• 이야기카드 제작을 위한 워크숍 및 실물카드 제작
	참여인원	• 총 6명 (지리산권 활동가 3인, 센터 활동가 3인으로 구성)
	횟수	• 총 4회 운영
	내용	• 나, 나와-지역, 지역의 관계 키워드와 질문 뽑아보기 • 이야기 카드 활용방식에 대한 워크숍 진행
산출물	• 로컬이야기카드 총 500세트 제작 및 배포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는 지리산권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이야기, 사람을 담아내는 콘텐츠로 2020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를 통해 공유공간, 마을학교 등과 같은 지역의 전통적인 관심 의제뿐만 아니라 쿼어, 보행권 등 새로운 의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지리산활동백과를 통해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리산권의 청년 이주민을 다룬 기획 기사가 외부 언론을 통해 발행된 것도 콘텐츠 사업의 간접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간물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온라인 게시물)	
운영방식	대상	• 지역 활동가 8개 단위 (개인, 모임/단체) • 구례 : 산보고책보고,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 남원 : 삼반인작당 • 산청 :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 하동 : 이정희 활동가 • 함양 : 다함께사이좋은마을학교 • 인터뷰 작가 박미숙, 정푸른
	방식	• 지역 활동을 하는 기록 전문가의 인터뷰 방식
산출물	• 온라인 인터뷰 콘텐츠 〈지리산활동백과〉 시리즈 발행 • 2021년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제작 배포 및 PDF판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21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한 기업이 농촌 지역을 후원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이에 센터는 해당 기부금 을 활용하여 지리산권 농사와 농부 관련 콘텐츠를 제작, 아카이브함으로써 지리산권 지역 특성에 맞 는 의제 및 활동 주체를 발굴하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다. 〈논발생활백과〉 기록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흩어져 있는 농사 관련 정보를 모아 공유했다.

또, 지리산권 농부 15명을 인터뷰하여 농사와 지역살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농부들과는 〈논발생활포럼〉을 개최,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논발생활백과〉 인터뷰로 만난 농부들의 이야기는 향후 기후위기 등 다른 의제로 확장되기도 했다. 센터가 지금까지 다뤄온 주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사는 사람 들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연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센터의 본질과 닿아 있는 사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발간물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플랫폼 (온라인)	
운영방식	대상	- 지역 농부 인터뷰 15명 - 구례 : 김종옥, 이지예, 한울연, 정영이 - 남원 : 서석곤, 김운숙, 정원구 - 산청 : 이종혁, 강영경 - 하동 : 왕규식, 고지민, 공문조 - 함양 : 마용운, 정미은, 채화석
	방식	- 기록 전문가의 면접 인터뷰 방식 〈논발생활포럼〉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
산출물	온라인 인터뷰 콘텐츠 〈논발생활백과〉로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프로젝트〉 논발생활백과	

● 온라인 설문조사

전년도에 이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연속해서 진행했다. 상반기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상반기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하반기에는 ‘지리산에서의 삶에서 좋아하는 순간’을 묻는 질문으로 진행했다.

센터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이를 다시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너르게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에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리산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반기에 진행한 ‘앞마당에서 기후위기를 만났습니다’ 설문조사의 높은 참여도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 제목	앞마당에서 기후위기를 만났습니다
	설문 기간	2021년 4월 22일 ~ 5월 7일 (2주)
	참여인원	총 193명
	세부질문	일상에서 피부로 느낀 기후위기 경험을 들려주세요.
산출물	- 응답한 193개 중에서 36개의 이야기를 그룹화해 콘텐츠로 제작 -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결과를 콘텐츠로 시각화함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프로젝트〉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센터 소식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 제목	우리끼리 사진대회 〈로컬이 사랑한 순간〉
	설문 기간	2021년 10월 18일 ~ 10월 31일 (2주)
	참여인원	총 111명
	제출방식	사진과 사진 설명 제출
산출물	-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 결과를 콘텐츠로 시각화함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프로젝트〉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센터 소식	

2022

2022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2021년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3년 아름다운재단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2년에는 재단의 지원 종료를 앞두고 지리산권의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람, 활동, 그리고 작은변화의 씨앗을 더 많이 마련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데 센터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작은변화활동가를 ‘네트워크활동가’, ‘기록활동가’, ‘프로젝트활동가’로 세분화했다. 특히, 지역 안의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을 연결하는 등 네트워킹 역할을 맡은 네트워크활동가는 기록활동가, 프로젝트활동가가 지역 안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협력했으며, 네트워크활동가의 역할로 지역별 활동 간 연결이 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리산권 안팎의 활동가들을 연결하기 위해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이나 〈지리산 워크스데이 지원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지리산권 밖 활동가까지 확장했다. 이러한 시도는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 개관하여 더 많은 활동가의 물리적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기록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지역의 활동과 활동가, 모임, 커뮤니티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센터는 콘텐츠 확산 역할에 힘썼다. 〈논발생활백과〉,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지도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과 더 넓은 접점을 만들며, 센터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공익 활동을 알리고자 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전적인 실험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했다. 그 결과 2022년 사업의 결실들을 2023년 센터 사업 종료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 작은변화활동가 보고서 〈윤슬〉
• 네트워크활동가	• 교육/학습	• 지리산살롱	•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기록활동가	• 조사/콘텐츠	• 활동가 교육비	•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	• 지리산 워크스데이 지원사업	• 온라인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사업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활동가 지원 영역

활동가 지원 영역의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센터의 목표 등에 따라 2년마다 명칭과 지원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센터 설립 초기 지역과 센터를 연결해 지역의 의제를 찾고, 지역 특색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2018-2019)로 시작해, 지역별 1인에서 최대 3인까지 확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지원한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2020-2021)으로 이어졌다.

2022년부터는 활동가의 역량과 분야에 맞춰 ‘네트워크활동가’, ‘기록활동가’, ‘프로젝트활동가’로 다각화하여 작은변화활동가를 지원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활동가로서의 중점 역할에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활동가는 지역 내 이슈와 의제를 파악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센터와 협력하는 활동가를 이른다. 대부분 지역협력파트너로 센터와 오랜 시간 호흡해 온 활동가들이 네트워크활동가로 참여했다. 기록활동가는 지리산권의 활동, 사람, 이슈 등을 지역 주민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콘텐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활동가는 구체적인 의제,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를 뜻한다. 네트워크활동가와 기록활동가에게는 기존처럼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원했다. 프로젝트활동가는 별도의 활동비 없이 프로젝트 사업비로 지원받았으나,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활동가를 세 역할로 구분했지만 각 역할이 서로 보완하면서 지역 안에 더 다양한 일들을 해내길 기대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여 활동가 간의 교류를 돕고,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센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지역에 작은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기획한 구성이었다.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네트워크활동가 대부분은 지역협력파트너에 참여했던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는 네트워크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이슈들이 논의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또한 민관의 영역을 넘나들며 각자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을 도맡으며 다양한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연결하며 지역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기획했다. 그동안 모호하기만 했던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활동가’의 정의가 ‘네트워크활동가’라는 이름으로 2022년 비로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네트워크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며, 개별 의제에 대한 뛰어난 역량과 동시에 네트워킹 역량까지 갖춘 활동가가 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기록활동가는 지역의 이야기, 활동, 사람을 기록하고 콘텐츠화 하는 데 주력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이를 콘텐츠로 만드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 기록활동가 특성상 선정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지역의 네트워크활동가의 도움으로 기록활동이 가능한 활동가를 지역에서 찾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실무회의를 거쳐 기록활동가를 최종 선정했다.

2022

선정과정에서 함께한 네트워크활동가는 기록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인터뷰이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센터와 함께 기록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했다. 지역별로 1명의 기록활동가가 선정되어 각자 관심있는 주제를 정해 그에 맞는 기록물을 작성했다. 기록활동가에 의해 작성된 콘텐츠는 센터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SNS를 통해 지리산권 안팎으로 공유되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은 지역사회와 활동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지리산 외부에서는 새롭게 접하는 지리산 이야기에 호기심과 관심을 보내왔다.

지원대상	•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2인 (네트워크활동가 1인, 기록활동가 1인)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네트워크활동가	정태연	유지선	김한범	이순경	김찬두
	기록활동가	이신지원	(팀) 수수와 모모	김효림	(팀) 옥동	박미숙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61,200,000원 • 네트워크활동가 1인당 월 60만원 (1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 기록활동가 1인당 월 60만원 (3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 남원 기록활동가는 3월~5월까지 운영, 산청 기록활동가는 4월부터 합류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 33회 진행 • 네트워크활동가 정기모임 : 연 10회 진행 • 기록활동가 정기모임 : 연 2회 진행 • 작은변화활동가 통합 워크숍 : 연 2회 진행				
	역량강화지원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 센터 주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연계지원사업	•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연계				
	산출물	작은변화활동가 결과보고서				
참고	196p					

●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은 스스로 프로젝트 기획과 실천이 가능한 역량을 가진 활동가나 모임, 단체를 지원하여 활동가 자신의 활동분야에 집중하고, 동시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리산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자 기획했다.

앞선 네트워크활동가, 기록활동가와 달리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은 공모 지원사업 방식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활동 의제와 활동가를 발굴하고자 했다. 특히, 프로젝트활동가의 거주지를 지리산권을 한정 짓지 않고, 지리산권 밖에 살면서 지리산권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가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었다. 그 결과, 경주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팀이 구례, 남원과 결합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은 활동의 참신성을 보여주는 데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사회 안에서 긴 호흡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프로젝트가 단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활동가 및 지리산 관련 활동을 제안한 활동가 9명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45,000,000원 • 9개의 개인 또는 팀에 500만원씩 지원
	활동지원	• 중간 방문 및 활동 컨설팅 지원 • 작은변화활동가와 통합 워크숍 지원
	역량강화 지원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 • 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산출물	협력파트너 5인의 연간 활동 결과보고서	
참고	205p	

2022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에 필요한 현안과 의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센터 설립 이후 꾸준히 지원한 사업 중 하나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활동가 중심의 연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했다.

또, 지리산권 공통 이슈인 지리산 개발 반대 활동이나 ‘기후정의행진’ 참여는 긴급하게 꾸려진 네트워크로, 센터는 이들 네트워크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편성해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대상	네트워크활동가가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 8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21,000,000원 • 구례 : 1개 활동 2,000,000원 • 남원 : 1개 활동 2,000,000원 • 산청 : 1개 활동 2,000,000원 • 하동 : 1개 활동 3,000,000원 • 함양 : 1개 활동 5,000,000원 • 지리산권 : 3개 활동 7,000,000원
	활동지원	• 네트워크활동가들과 논의하여 지역 현안을 대응하는 지리산권 활동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시민문화제, 기후정의행진 지리산권 참가) 추가 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한 활동 점검 및 컨설팅 • 네트워크활동가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 논의 지원
산출물	사업별 결과보고서	
참고	211p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교육/학습, 조사/콘텐츠 지원분야)

작은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동가 지원의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은 ‘조사/콘텐츠 분야’, ‘교육/학습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존 <작은강좌 지원사업>과 <작은조사 지원사업>의 연장선이자, 지역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강좌, 교육, 학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자 한 목적이다.

특히, 조사/콘텐츠 분야에서는 활동의 결과물을 콘텐츠로 제출하도록 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신청 시 ‘지역과 이웃’, ‘다양성’, ‘전환’을 키워드로 제시해 활동 주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같은 주제의 활동이 서로 공유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40,000,000원				
		① 교육/학습 : 11개 활동 22,000,000원 지원				
		구분	남원	산청	하동	함양
		활동 개수	4	3	2	2
		지원 금액	8,000,000	6,000,000	4,000,000	4,000,000
		② 조사/콘텐츠 : 9개 활동 18,000,000원 지원				
		구분	구례	남원	하동	함양
		활동 개수	2	3	2	2
	지원 금액	4,000,000	6,000,000	4,000,000	4,000,000	
	활동지원	• 지리산권 지원 대상 단체 오리엔테이션 진행 24명 참석				
• 지리산권 지원 대상 단체 통합 결과 공유회 개최						
역량강화 지원	• 중간 방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활동 컨설팅					
	• 오리엔테이션, 결과 공유회를 통한 네트워크 지원					
산출물	• 센터 교육 사업 참여 안내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27p					

2022

●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2021년 문을 연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이어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공동으로 만든 두 번째 큰 성과다. ‘들썩’은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하여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연결을 촉진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리산권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은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변화를 확장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들썩’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의 활동가들이 ‘들썩’을 통해 지리산권의 활동과 활동가를 만나고, 지리산권 안팎으로 활동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코로나 기간 많은 직종에서 재택근무가 시행되었고, 위케이션, 워크스테이, 리모트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 일 문화를 실험하는 곳도 늘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공익 활동 분야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워크스테이를 통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인식하고, 지리산권 활동에 대한 외부 활동가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지원대상	전국 비영리 단체 상근 활동가 30명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9,8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서울	경기	전북	충북	부산	강원	광주	합계
		봄	8	1	2	2	1	1	-	15
		가을	11	1	1	-	1	-	1	15
	지원방식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지리산 활동 소개 및 워크스테이 소개								
		• 지역 숙소 및 식당, 여행 인프라 소개, 참가자 교류								
산출물	참여자 후기 온라인 콘텐츠									
참고	• 229p									
	•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공간/연구소 >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 들썩통신									

역량 지원 영역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전년도에 이어 작은변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활동가의 역량을 기른다는 조건 외에는 지원 내용에 제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작은변화활동가 대부분이 전업 활동가가 아니어서 별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까지 낼 여력이 없다는 점을 방증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알고, 그에 맞는 교육을 찾고 수강하는 일련의 과정이 작은변화활동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교육비 사용 범위를 온라인 도구 사용 구독료까지 확장하면서, 신청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활동에서도 화상회의나 이미지 작업 등 온라인 도구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활동가들은 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도구를 지원사업을 통해 구독하거나 구매하여 활동력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지원대상	작은변화활동가 및 프로젝트활동가 16명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3,200,000원						
		• 지역별 지원현황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합양	지리산외
		인원	4	1	3	4	2	2
	지원금	800,000	200,000	600,000	800,000	400,000	400,000	
	지원방식	• 개별 교육 신청 내용 확인후 교육 실비 지원						
산출물	개별 사업 결과 보고서							

2022

● 지리산쌀롱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공간이 마련되면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센터는 ‘들썩’을 기반으로 지리산권 활동가가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얻기를 바라며, 〈지리산쌀롱〉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지리산쌀롱〉은 지리산권 안팎의 활동가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활동을 소개하는 장이다. 연사와 청중이라는 닫힌 구조가 아닌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첫째 지리산쌀롱은 ‘OO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 하에 청소년공간, 기후정의, 작은도서관, 기록, 무장애공간에 관한 전국의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참여대상	해당 키워드에 관심있는 지리산권 활동가 및 지역 주민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국의 주요 활동 사례 공유 • 관심 분야의 활동가와 교류의 기회 마련				
	횟수	• 총 5회 운영				
	회차별 키워드	• OO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 청소년 공간 : 양평 서부청소년문화의집,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초대 • 기후정의 : 광주 협동조합이공, 광주 기후위기비상행동 초대 • 작은도서관 :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제천 호숫가마을도서관 초대 • 기록 : 옥천 월간옥이네, 부산 빨간집 초대 • 무장애공간 : 제주 삼달다방,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대				
참여인원	주제	청소년공간	기후정의	작은도서관	기록	무장애공간
	인원	20	12	16	10	25
참고	• 별도의 기록자가 사업을 스케치하고 기록 콘텐츠로 온라인 발행함 •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센터 설립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활동가 역량 강화 목적으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을 지역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역 활동가의 역량이 성장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협력파트너 대상의 교육을 지리산권 지역 활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은 워크숍 학습 내용에 기반하여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촉진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센터는 이들의 활동력이 더 강화되도록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을 통해 〈모떠꿈〉의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험해 보는 기회를 지원하고자 했다.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은 매월 13명 내외의 활동가가 모여 지리산권에서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도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한 중학교의 전환기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습을 곁들인 학습으로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는 물론 성취감까지 얻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경험은 활동가들이 지역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대상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참가 신청 지역 활동가 (13명 내외)	
운영방식	지원방식	• 총 500만원 지원 : 모임 및 워크숍 운영비
	교육횟수	• 총 8회 운영
	교육내용	•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 • 전환기 청소년 관련 테이블 워크숍 • 수동중학교 청소년 워크숍 진행

2022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가 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지원사업이 가진 의미 등을 정리하여 2022년 2월에는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을 펴냈다.

이 보고서는 작은변화활동가의 활동을 돌아보며, 센터의 활동가 지원사업이 가진 사람, 과정 중심의 의미와 가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센터의 독자적인 ‘사람 지원’ 방식과 성과를 타 지원조직 및 시민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발간물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운영방식	대상	• 작은변화활동가 14인 인터뷰 • 구례 : 정태연, 김은경, 차승아 • 남원 : 유지선, 김양오 • 산청 : 김은영, 김한범, 이종혁 • 하동 : 이순경, 배혜원, 이정희 • 함양 : 김찬두, 김현임, 최홍성미 • 회고와 전망 : 센터 사무국 활동가 대담
	콘텐츠	• 기록 전문 작가와 작은변화활동가 14인의 인터뷰 • 센터 지원사업 현황 내용 정리 • 회고와 전망에 대한 대담 인터뷰
산출물	•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150부 제작 배포 • 온라인 PDF 제작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 커뮤니티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22년부터는 작은변화활동가의 기록활동가가 지역 기록을 도맡게 되었다. 기록활동가가 활동가와 활동을 인터뷰하고 기록하면서, 센터가 이전까지 해오던 역할을 일부 기록활동가가 맡게 된 것이다.

센터 주도로 기획하고 진행해 온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는 지리산권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의 인터뷰를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 활동의 움직임들을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에서 활동해 온 다양한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인터뷰 자료집을 제작했다.

2년에 걸쳐 진행한 기록을 출간하다 보니 자료집이 나오는 시점에 커뮤니티가 해산하거나 활동하는 주요 구성원이 변경되는 등 변화도 있었다. 다소 시차는 있지만 지역의 커뮤니티가 심은 변화의 씨앗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펴냈다.

발간물	2020~2022 커뮤니티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운영방식	대상	• 2022년도 신규 인터뷰 : 지역 활동가 6개 단위 (개인, 모임/단체) • 구례 : 느긋한쌀밥 • 남원 : 도공디공회 • 산청 : 극단 큰들 • 하동 : 하동주민신문 오! 하동, 지리산소멸단 • 함양 : 함양토종씨앗모임
	방식	• 지역 활동을 하는 기록 전문가의 인터뷰 방식
산출물	• 온라인 인터뷰 콘텐츠 <지리산활동백과> 시리즈로 발행 • 2021년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150부 제작 배포 • 온라인 PDF 제작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22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지리산권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논발생활백과〉 사업은 2022년에도 계속됐다. 농부의 삶과 일상, 고민 등을 들어본 ‘인터뷰’ 콘텐츠 외에도 농부들 스스로 농사를 기록하는 ‘농사 기록’도 진행했다. 농촌사회인 지리산권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리산권 사람들의 삶은 물론 기후위기, 농민수당 등 농업이 마주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계기가 되었다.

〈논발생활백과〉에 대한 지리산권 안팎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온라인 플랫폼 모금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후위기 시대 농부들의 이야기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200만 원의 모금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농사 기록’에 대한 출판 제의 또한 있었다. 지리산권 농부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보며, 본 사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간물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플랫폼 (온라인)																									
운영방식	대상	• 농부 인터뷰 4회																								
		• 구례 : 서민수																								
		• 산청 : 이은화, 이재철																								
		• 하동 : 홍삼순																								
		• 함양 : 김석봉																								
		• 농사 기록 참여 농부																								
		<table><tr><th>지역</th><th>참여농부</th><th>기록물 내용</th></tr><tr><td>구례</td><td>차승아</td><td>쌀빵을 만들며 자급자족으로 농사를 짓는 귀농인</td></tr><tr><td>남원</td><td>서석곤</td><td>생태다양성을 유지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농사기록</td></tr><tr><td>산청</td><td>이종혁</td><td>산청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청년농부</td></tr><tr><td>산청</td><td>이은화</td><td>도란들 농장을 운영하며 흙에 기반한 농사와 농부 기록</td></tr><tr><td>하동</td><td>왕규식</td><td>다품종 소량생산과 꾸러미를 운영하는 귀농 농사기록</td></tr><tr><td>하동</td><td>고지민</td><td>우진농원 농장지기로 매실, 감, 표고버섯 농사기록</td></tr><tr><td>함양</td><td>마용운</td><td>자연애플농장을 운영하며 사과농사를 짓는 농부기록</td></tr></table>	지역	참여농부	기록물 내용	구례	차승아	쌀빵을 만들며 자급자족으로 농사를 짓는 귀농인	남원	서석곤	생태다양성을 유지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농사기록	산청	이종혁	산청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산청	이은화	도란들 농장을 운영하며 흙에 기반한 농사와 농부 기록	하동	왕규식	다품종 소량생산과 꾸러미를 운영하는 귀농 농사기록	하동	고지민	우진농원 농장지기로 매실, 감, 표고버섯 농사기록	함양	마용운	자연애플농장을 운영하며 사과농사를 짓는 농부기록
		지역	참여농부	기록물 내용																						
		구례	차승아	쌀빵을 만들며 자급자족으로 농사를 짓는 귀농인																						
남원	서석곤	생태다양성을 유지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농사기록																								
산청	이종혁	산청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산청	이은화	도란들 농장을 운영하며 흙에 기반한 농사와 농부 기록																								
하동	왕규식	다품종 소량생산과 꾸러미를 운영하는 귀농 농사기록																								
하동	고지민	우진농원 농장지기로 매실, 감, 표고버섯 농사기록																								
함양	마용운	자연애플농장을 운영하며 사과농사를 짓는 농부기록																								
방식	• 농부 인터뷰 : 기록 전문가의 면접 인터뷰 방식																									
	• 농사 기록 : 지역 농부들이 스스로 일지를 작성하여 콘텐츠화																									
산출물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논발생활백과																									

● 온라인 설문조사

센터는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을 통해 보다 넓은 범주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지리산권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주제들을 쉽게 제안하고자 했다. 따라서 센터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데이터를 도출하기보다는 너른 생각을 모으고 알리는 방법으로서 활용됐다.

2022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실명추천! 동네명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리산권 명소를 찾아보고자 했다. 2회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로 다양한 공간이 발굴되었고, 이를 취합하여 커뮤니티 지도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하반기에는 지리산 산악열차 등의 개발 이슈로 시민사회 움직임이 활발해진 시기에 맞춰 〈손글씨 공모전 ‘나의 살던 지리산은’〉을 주최했다. 공모 방식으로 지리산권 주민들이 가진 지리산에 대한 기억, 감상 등을 다양하게 취합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모전의 결과물로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에 배포함으로써 지리산권에서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지리산 산악열차 등 지리산권 공동 이슈에 대해 함께 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제목	온라인 설문조사 ‘실명추천! 동네 명소’
	설문기간	2022년 4월 18일 ~ 5월 9일 (3주)
	참여인원	총 75명
	세부질문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우리 지역의 명소는?
산출물	75개 응답을 활용해 온라인 지도 제작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세부내용	설문제목	손글씨 공모전 ‘나의 살던 지리산은’
	설문기간	2022년 10월 31일 ~ 11월 13일 (2주)
	참여인원	총 33명
	세부질문	-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리산이란? - 당신에게 지리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손글씨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산출물	- 응답한 33개를 포스터 방식으로 제작 배포 - 뉴스레터를 통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2022

●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온라인 설문조사 ‘실명추천 동네명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다양한 공간 정보가 담긴 커뮤니티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지리산권의 여러 커뮤니티 공간들을 발견하고 또 연결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도는 공익 활동에 거리감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센터의 홍보 목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발간물	커뮤니티 지도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추진내용	• <온라인 설문조사 ‘실명추천 동네명소’>에서 추천된 곳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함
산출물	•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지리산권 커뮤니티공간편> 2,000매 제작 및 배포 • 지리산에 가면 이어질지도 <남원시 산내면편> 2,000매 제작 및 배포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2023

2023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아름다운재단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2023년이 되었다. 센터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한층 더 깊이 고민했다. 작은변화를 만드는 흐름이 지역과 지리산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지역과 활동가에게 남을 수 있게 하고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활동이 지역사회 안에 잘 공유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따로활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하는 활동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활동가들이 직접 배분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지역별로 사업설명회, 워크숍을 거쳐 활동가들이 지원사업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밀도 있는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의 시작과 끝에 <지리산 활동가대회>를 개최했다. 상반기에는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로 선정된 사업을 서로 소개하며 활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하반기에는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협력 관계 종료를 지리산권 활동가들에게 공식화하며, 센터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이하 ‘아삭’)도 출판했다. <아삭>은 지리산권 지역 정보를 소개하는 책으로 센터가 6년 동안 활동하며 만난 지리산의 다양한 장소, 공간, 활동, 사람 등을 종합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지리산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지역 활동가 및 다양한 창작자와 협업하여 만들었다.

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한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지리산 활동가대회>, <아삭>을 비롯해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과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의 과정에서 네트워크활동가들의 네트워킹 역량이 크게 발휘되었다. 덕분에 6년의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전 지리산권 활동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활동가 지원	활동 및 의제 지원	역량 지원	지역이해 및 기록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 지리산살롱	•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 네트워크활동가	• 따로활동	• 지리산 활동가 대회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 기록활동가	•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2023년 12월 31일 지원사업 종료 이후,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지난 6년을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센터 활동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활동 백서로 만들기로 했다. 지리산이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리산권 활동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역 내외로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작은변화활동가 네트워크와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리산권 시민사회와의 연결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3

활동가 지원 영역

●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네트워크활동가들은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동안 작은변화활동가로서 지역 안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활동들을 연결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와 지리산권 시민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주요할 역할을 맡아왔다. 이들의 활동과 역할이 지역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리며 센터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활동가 연속 지원을 유지하며 더욱 구체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네트워크활동가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센터의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데 참여했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배분에 참여하도록 한 공모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전에 필요한 지역별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단위의 실제 활동에 협력하기도 했다. 동시에 각자가 오랜 시간 진행해 온 개별 활동도 지속하며, 지역 활동가로서 또 네트워크활동가로서 역할을 해냈다.

한편 기록활동가는 인원을 재정비하여 연속 운영했다. 첫해는 기록활동가로서 기록 역량을 다져가던 한 해였다면, 2023년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또 네트워크활동가와 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기록활동가의 기록들은 지역의 활동들이 연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록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현안이나 활동들이 발굴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활동과 활동이 연결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지원대상	• 지리산권 5개 시군 각 2인 (네트워크활동가 1인, 기록활동가 1인)					
	구분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네트워크활동가	정태연	유지선	김한범	이순경	김찬두
	기록활동가	문현경	김양오	김효림	(팀) 지웃이음	박미숙
지원내용	지원금	• 총 지원금 61,200,000원 • 네트워크활동가 1인당 월 60만원 (1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 기록활동가 1인당 월 60만원 (3월~12월) 정기적으로 지급				
	활동지원	• 지역 방문을 통해 활동 컨설팅 : 연간 33회 진행 (작은변화 탐험대 워크숍 15회 및 지역 방문 18회) • 네트워크활동가 정기모임 : 연간 8회 정기 모임과 2박3일 워크숍 개최 • 기록활동가 정기모임 : 연간 2회 정기 모임 • 작은변화활동가 통합 워크숍 : 연간 1회 진행				
	역량강화지원	• 센터 주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연계지원사업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중 ‘함께활동’				
	산출물	작은변화활동가 결과보고서				
참고	196p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2018년부터 이어져 온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의 지원사업들을 통해 수많은 활동가, 활동들이 지리산권 시민사회에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리산권에 크고 작은변화를 일으켰으며, 센터에서는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활동가들이 작은변화의 움직임을 지속해 나가길 바랐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은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의 활동, 이슈, 의제, 사람, 작은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을 지역에서 스스로 선정하고 자원과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획된 지원사업이다.

본 지원사업은 ‘함께활동’과 ‘따로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원했다. ‘함께활동’은 지역별 워크숍에서 제안된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네트워크형 사업을 의미한다. ‘따로활동’은 각각의 활동가들이 기획하는 다양한 분야의 작은변화 활동들을 뜻한다.

현재 시점에서 지역에 1순위로 필요한 ‘함께활동’은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따로활동’이 무엇인지는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본 지원사업의 의미와 가치에 공감하는, 기존에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활동가들이 지역별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숙의하고 결정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를 생각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간 센터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신청서를 심사,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활동가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선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그만큼 녹록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준비 회의와 설명회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촘촘한 시민사회를 마련하고, 지역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의 시작과 끝에 <지리산 활동가대회>를 개최했다. 시작을 알리는 4월 <지리산 활동가대회>에서는 지역별 ‘따로활동’과 ‘함께활동’을 공유하며 서로의 활동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자리를 꾸려졌다. 지원사업 종료 시점에 열린 <지리산 활동가대회>에서는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동안 만들어온 작은변화의 의미를 확인하며 앞으로 지속해 나갈 의지를 다졌다.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은 모든 과정이 도전이자 실험이었지만, 그동안 다양한 연결의 접점이 되어 온 네트워크활동가들의 뛰어난 활약과 6년의 시간 동안 센터와 함께 호흡해 온 지역 활동가들의 신뢰, 그리고 작은변화에 대한 희망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 모임 20개		
지원내용	지원금	• 총 80,000,000원 지원 • 세부 지원 현황 • 따로활동 :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선정한 5개 지역 8개 사업 각각 1,000,000원씩 지원하여 총 40,000,000원 지원 • 함께활동 :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선정한 5개 지역 1개 사업 각각 8,000,000원씩 지원하여 총 40,000,000원 지원	
	활동지원	• 사업설명회, 사업 기획 워크숍 등 지원 • 중간방문 : 사업운영 참관 및 사업 컨설팅	
	역량강화	• 사업 선정 후 1차 활동가 대회 : 총 70여 명 참석	
	지원	• 사업 종료 후 2차 활동가 대회 : 총 100여 명 참석	
산출물	지역별 결과 공유회 및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30p		

●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2023년은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지리산권에
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모임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도 주력했다.

우선 2019년부터 활동을 이어 온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운영자 모임’, 2018년 <모이고 떠들고 꿈꾸
는 지리산 워크숍>의 확장으로 2022년부터 운영된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였다.

이에 더해 2023년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다시 지리산 운동 모임’을 지원
하기 시작했다. ‘다시 지리산 운동 모임’은 지리산의 개발 이슈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리산
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리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독자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네트워크로 기획되었다. 센터는 기존의 연대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연결
되는 새로운 활동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계를 허물고, 센터 설립 당시 확립한 비전과 같이 ‘이웃
이 이웃을 돕는’ 활동 방식이 확장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네트워크 방식의 한계도 일부 드러
났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 활동가들은 네트워크 활동의 당사자로 깊이 참여하며, 자발성을 강
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 네트워크는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지속할 수 있는 틀과 역량을 갖추게 되
었으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네트워크는 지리산권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네트워크들은 각자의 의제와 구성원 특성에 맞는 활동 방
식을 통해 지리산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원대상	지리산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내용	지원금	• 총 15,000,000원 지원 • 세부 지원 현황 •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운영자 모임 : 5,000,000원 •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 5,000,000원 • 다시 지리산 운동 모임 : 5,000,000원	
	활동지원	• 지리산권 1차, 2차 활동가대회 참석 • 주요 연석회의 사무국 활동가 참석 • 중간방문 및 현장 컨설팅 지원	
산출물	개별 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33p		

2023

역량 지원 영역

지리산쌀롱

2022년도에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 <지리산쌀롱>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 및 활동사례를 지리산권 안팎의 활동가와 공유하며 지역 활동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에는 ‘지역’을 키워드로 제주, 남해, 홍성, 경주, 남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자의 지역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리산권 사례도 같이 공유하며 지리산쌀롱을 중심으로 활동가와 지역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리산권 외 지역에서 참가하는 비율도 점차 늘어 나면서, <지리산쌀롱>이 갖는 확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대상	지리산권 해당 키워드에 관심있는 활동가 및 지역 주민					
지원내용	지원방식	• 전국의 주요 활동, 활동가 발표 및 교류				
	횟수	• 총 5회 운영				
	회차별 연사	• 지리산 X OO 지역 • 남해군 상주면 : 동고동락협동조합 초대 • 홍성군 홍동면 : 꿈이자라는뜰 초대 • 경주시 : 신촌서당 초대 • 제주도 : 씨앗바람연구소 초대 • 남원시 : 김양오 작가 초대				
참여인원	주제	남해군	홍성군	경주시	제주도	남원시
	인원	18	22	18	27	26
참고	• 별도의 기록자가 사업을 스케치하고 기록 콘텐츠로 온라인 발행함 •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지리산 활동가대회

2023년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함께활동’, ‘따로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를 포함해서 센터가 6년의 과정에서 관계 맺은 모든 활동가를 초대하는 <지리산 활동가대회>를 두 차례 열었다.

4월에 개최된 1차 활동가대회는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서로의 활동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리산권을 아우르는 연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12월에 진행된 2차 활동가대회는 ‘내가 발견한 작은변화’를 큰 주제로 두고, 센터의 6년 활동을 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지리산권 활동가들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더해 ‘열린 부스’ 섹션을 통해 밧줄놀이, 남원의 역사를 담은 보드게임, 비전화 워크숍 등 활동가들이 함께 체험해 보기에 적합한 워크숍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리산 활동가대회>는 지리산이음이 센터를 운영하며 배운 점들을 진심 어린 이야기에 담아 전달하는 장이기도 했다. 또 아름다운재단이 6년간 지원을 지속해 온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아름다운재단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종료를 지리산권 활동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며, 종료 이후에도 변화된 형태로 센터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참여대상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활동가	
지원내용	지원방식	• 교류회 방식의 지리산 활동가대회
	횟수	• 총 2회 운영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 상반기 • 아이스브레이킹 • 지역별 함께활동, 지리산권 네트워크 활동 소개 • 마음 열기의 기술 :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이 진행한 다양한 마음 열기 프로그램 운영 • 대화의 기술 : 기후위기, 지역개발, 문화, 청년들의 수다, 어린이 청소년 활동, 활동가 재충전, 공간과 활동, 지역모금을 주제로 모둠 토론 진행 • 하반기 • 열린 부스 : 섬진강 여행, 남원리콜 보드게임, 산내 공간 탐방, 밧줄놀이 워크숍, 평화 감수성 워크숍, 비전화 워크숍, 자원순환 워크숍 • 이야기 부스 : 지역에서 장터 만들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할수 있는 일 • 참여자, 아름다운재단, 센터의 작은변화 이야기
참여인원	• 총 170여 명 (상반기 70여 명, 하반기 100여 명)	
참고	•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센터 소식	

2023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지원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센터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에 진행해 온 활동가, 커뮤니티에 대한 인터뷰 자료집은 센터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활동가가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소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로 활성화된 ‘로컬’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리산권의 다채로운 지역적 매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리산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지역’인 지리산권의 새로운 면모를 안내하는 매체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지리산의 멋과 맛, 재미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에 녹여 소개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지리산권 주민들이 서로의 지역에 흥미를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담았으며, 지리산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센터가 만난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지리산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답변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도 실었다.

센터는 <아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 활동가와 창작자와 협업할 수 있었으며, 배포 과정에서도 기존의 시민사회를 넘어 다양한 주체와 접촉했다.

발간물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운영방식	대상	• 인터뷰 대상 65인, 작가 16인 참여	
	콘텐츠	• 지리산권의 활력을 만드는 공간, 사람, 모임 등 총 165건의 콘텐츠 게재 • 매거진의 특성에 맞게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광고 집행	
산출물	• 5개 지역 통합본으로 1,100부 제작 및 배포 • 홈페이지를 통한 PDF 발행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 프로젝트 >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 통합 자료실		

●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1년의 농사 기록이 완성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시작된 지리산권 농부들의 농사 기록 지원을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했다. 산출물에 해당하는 농사 기록은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다.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를 통해 기록되고 있는 농사 기록을 출판하자는 지역 출판사의 제안으로 센터와 농부, 출판사 간의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고, 순차적으로 농부 개인의 기록물에 대한 출판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딸기밭에서 열세 달>이 발간되었고, 센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지원했다.

발간물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 플랫폼 (온라인)			
운영방식	대상	• 농사 기록 참여 농부		
		지역	참여농부	기록물 내용
		남원	서석곤	생태다양성을 유지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농사기록
		산청	이종혁	산청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산청	이은화	도란들 농장을 운영하며 흙에 기반한 농사와 농부 기록
		하동	왕규식	다품종 소량생산과 꾸러미를 운영하는 귀농 농사기록
		하동	고지민	우진농원 농장지기로 매실, 감, 표고버섯 농사기록
		함양	마용운	자연애플농장을 운영하며 사과농사를 짓는 농부기록
	방식	• 지역 농부들이 스스로 일지를 작성하여 콘텐츠화		
산출물	• 농사기록 온라인 콘텐츠 발행 • 산청 이종혁 농부의 농사 기록을 바탕으로 단행본 〈딸기밭에서 열세 달〉이 출간됨 (함양 출판사 '다른길')			
참고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프로젝트〉 논발생활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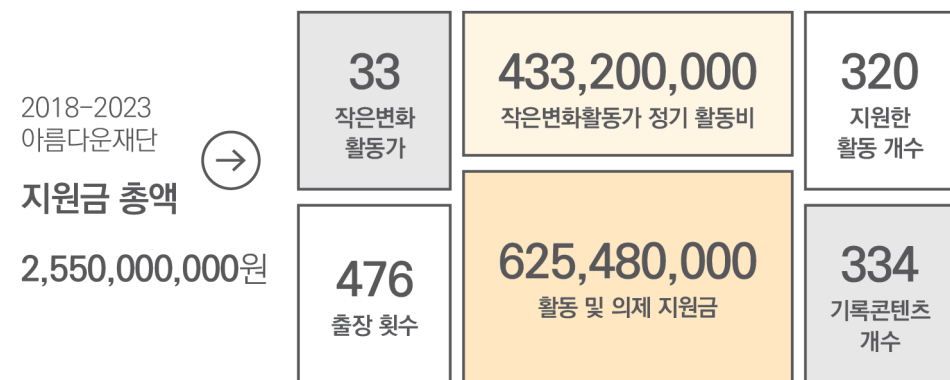
3. 숫자로 보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총괄 분석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금 총액	350,000,000	380,000,000	450,000,000	460,000,000	460,000,000	450,000,000
사업비	205,000,000	228,000,000	274,000,000	260,000,000	260,000,000	250,000,000
운영비	145,000,000	152,000,000	176,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아름다운재단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지리산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해 4~5인의 사무국 활동가 인건비를 포함한 전폭적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에 더해, 사업 초기에는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년간 1명의 간사를 파견하여 센터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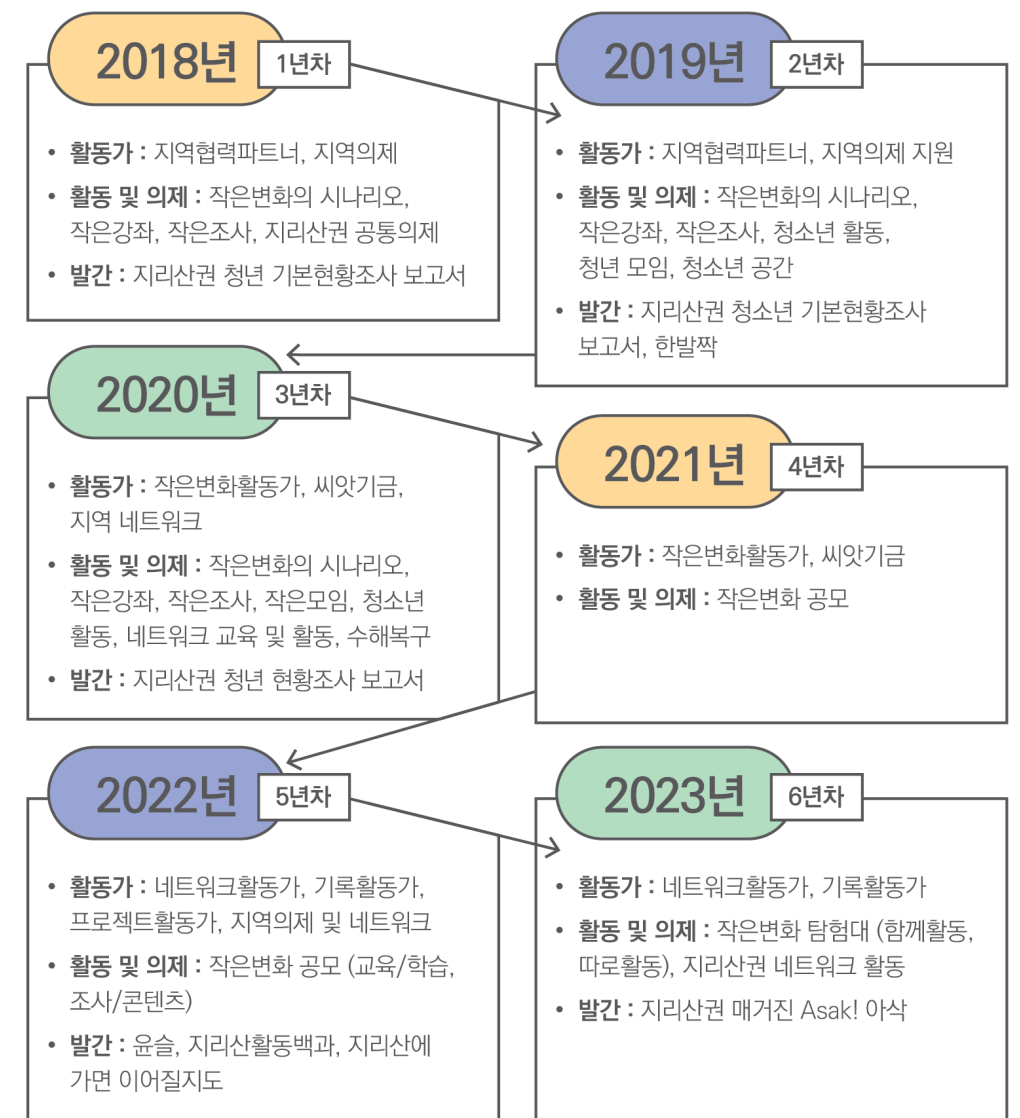
센터는 지난 6년간 총 25억 5천만 원의 재정을 통해 지리산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활동가 지원 영역에서는 24명의 작은변화 활동가와 9명의 프로젝트 활동가에게 총 4억여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의제와 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320여 개의 지역사회 활동에 6억 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했다.

센터는 이러한 지원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활용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기록하며, 지역을 꾸준히 찾아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센터의 지원사업 흐름

센터는 지역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성과와 평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활동가 지원 영역에서는 지역협력파트너, 작은변화활동가, 네트워크활동가, 기록활동가, 프로젝트활동가 등 시기와 역할에 따라 명칭을 세분화하며 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에서는 폭넓은 지역 활동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공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견에 적극 반영하여 꼭 필요한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 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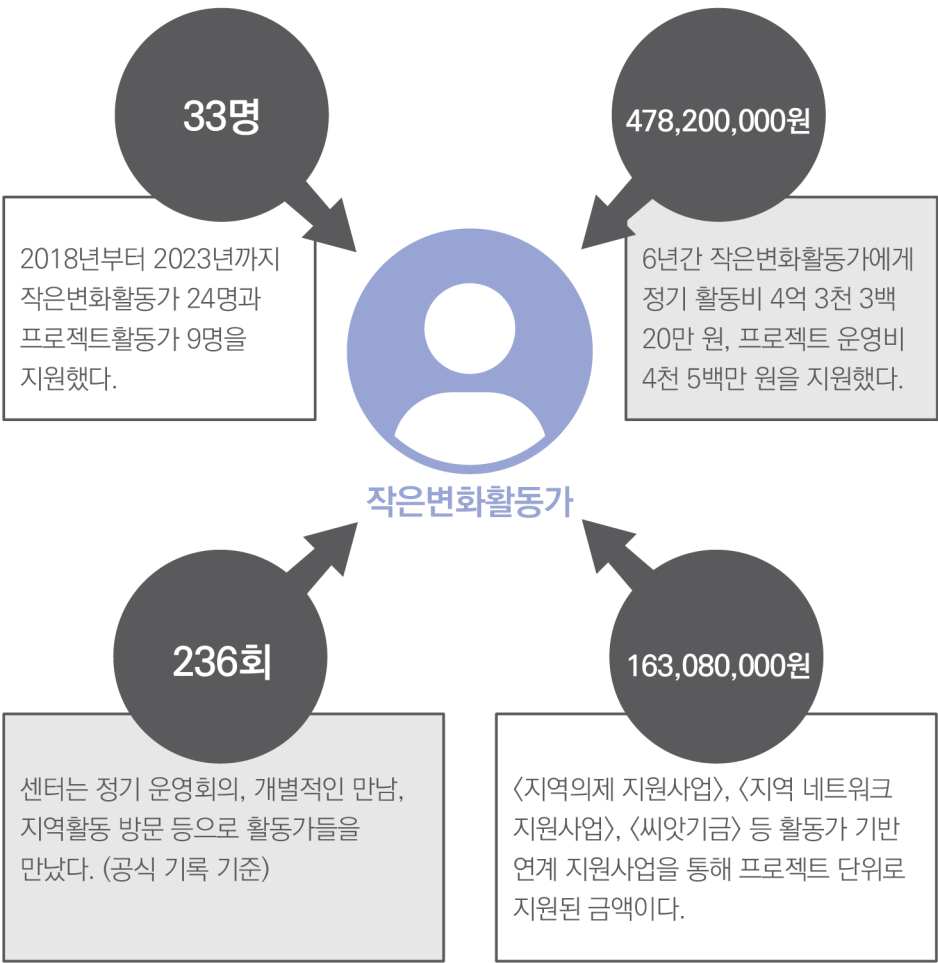


활동가 지원 영역

센터는 6년간 24명의 작은변화활동가에게 활동비를 지원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1년간 활동비를 지원했다. 또 2022년에는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9명의 활동가를 별도 지원하기도 했다.

센터는 작은변화활동가들이 지역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활동가들과 정기적인 모임과 개별적인 만남은 6년 동안 236회에 달했다.

또, 개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의제를 발굴하고 변화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계 지원사업을 만들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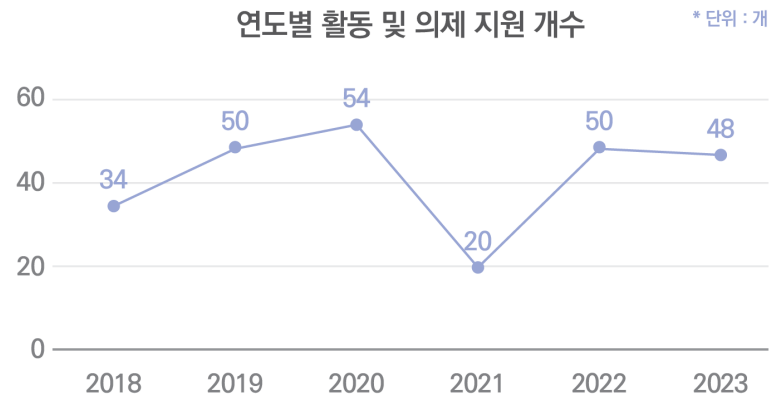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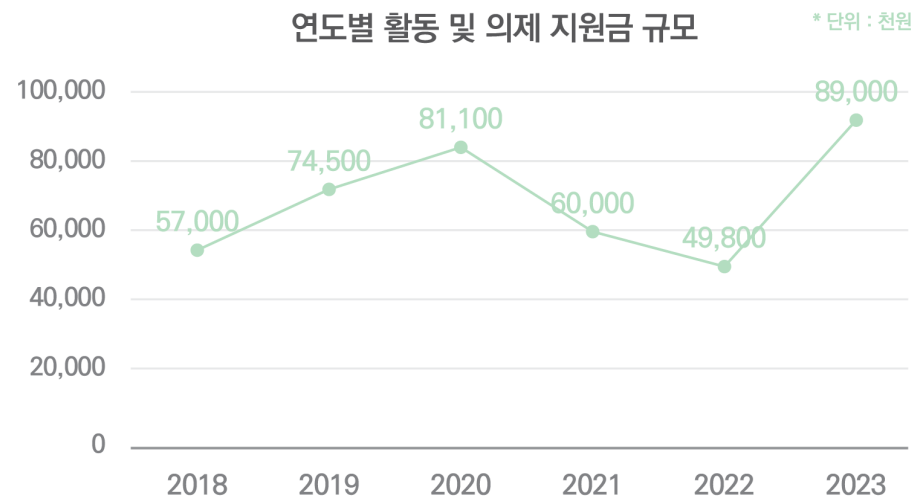
연도	사업명	개수	지원금액
2018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12	34,300,000
	작은강좌 지원사업	10	10,000,000
	작은조사 지원사업	10	10,000,000
	지리산권 공통의제 지원사업	2	2,000,000
	지원 개수	34	56,300,000
2019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13	26,000,000
	작은강좌 지원사업	14	14,000,000
	작은조사 지원사업	6	6,000,000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5	15,000,000
	청년 모임 지원사업	3	9,000,000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9	4,500,000
	지원 개수	50	74,500,000
2020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8	24,000,000
	작은강좌 지원사업	10	10,000,000
	작은조사 지원사업	10	10,000,000
	작은모임 지원사업	16	8,000,000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5	16,100,000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3	8,000,000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2	5,000,000
	지원 개수	54	81,100,000
2021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20	60,000,000
	지원 개수	20	60,000,000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조사/콘텐츠	9	18,000,000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교육/학습	11	22,000,000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30	9,800,000
	지원개수	50	49,800,000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따로활동	40	40,000,000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5	40,000,000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3	9,000,000
	지원 개수	48	89,000,000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센터는 활동가 지원 영역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작은변화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 배분사업도 운영하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모사업과 기획배분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작은변화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통합 운영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운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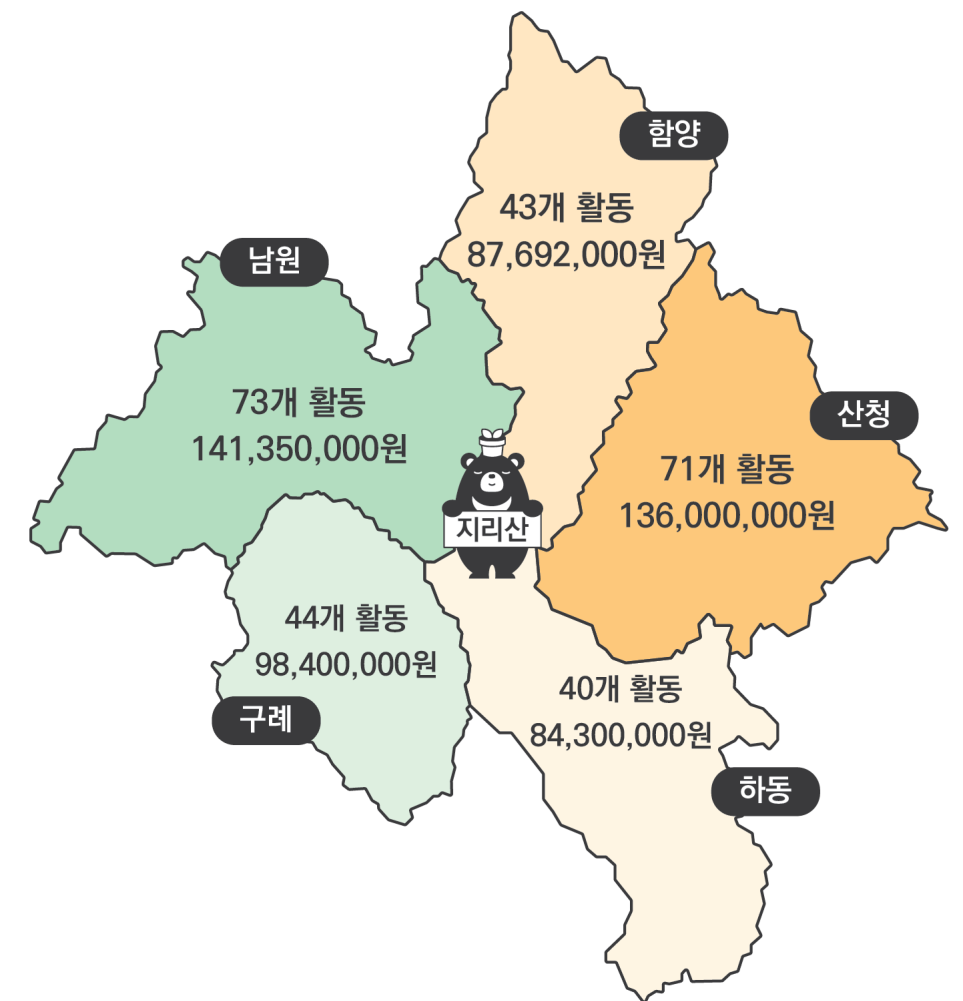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신규로 발굴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사업의 규모를 유지해나갔다.

지역별 지원사업 분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별 지원사업의 개수와 지원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장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산청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지원사업의 개수와 규모가 적은 편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지리산 개발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키워드 클라우드로 보는 지원사업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모든 지원사업 선정 프로젝트의 주요 키워드를 시각화해 보았다.

센터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개별 활동의 주제가 해당 세대에 집중된 경향과 맞물려 있었다. 또한 대안장터, 귀농·귀촌, 기후위기, 문화예술 등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욕구와 문제 의식을 담아낸 주제들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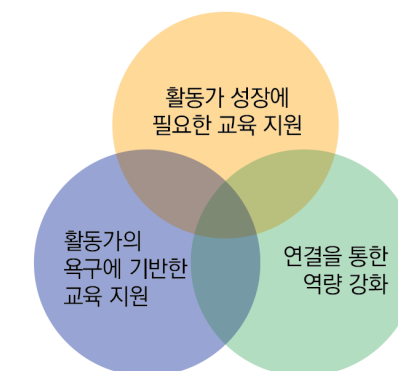


역량 지원 영역
.....

센터는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지원 활동을 다각도로 펼쳤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활동가들과 지역사회와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에 더해 활동가들 간의 모임에서 자연스러운 학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했다.

역량 지원



활동가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

센터의 기획으로 활동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활동가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지원

지역사회와 활동가들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활동가 주도로 기획한 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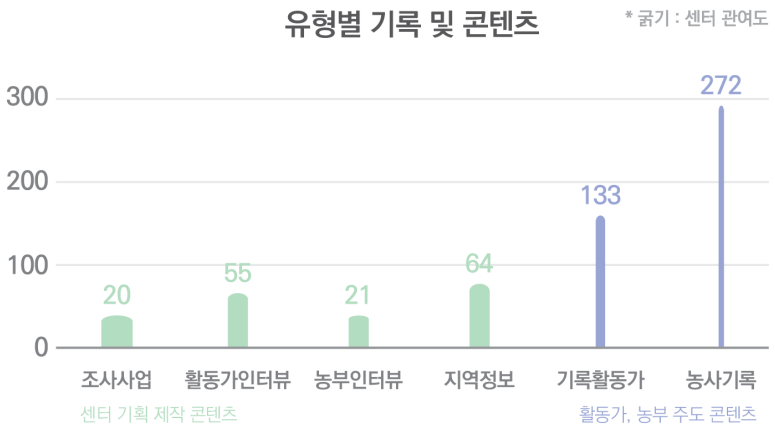
연결을 통한 역량 강화

연결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상호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도	활동가 성장에 필요한 교육 지원	활동가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지원
2018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정보공개 청구 교육	작은강좌 지원사업
2019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워크숍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작은강좌 지원사업 미디어 활용 교육 지리산권 청년 활동가 워크숍
2020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로컬이야기카드 제작 워크숍	작은강좌 지원사업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2021	지리산포럼 ‘지리산섹션’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2022	지리산쌀롱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교육/학습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2023	지리산쌀롱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지역 이해 및 기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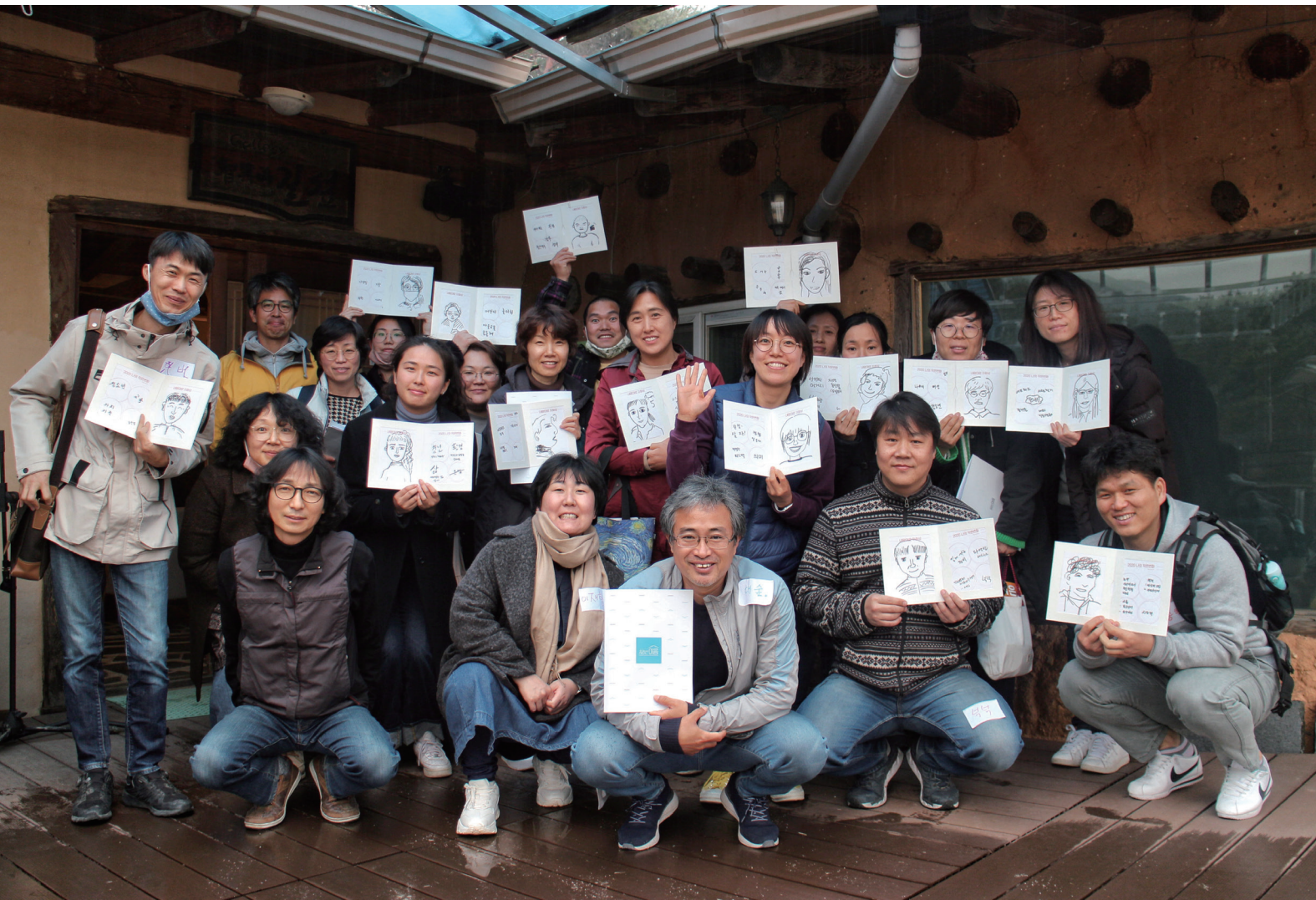
지리산권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기록은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콘텐츠로 공유했고, 보고서, 자료집, 매거진으로 발행하여 지리산권 시민사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사업별 기록 및 콘텐츠	기간	개수
지리산권 청년, 청소년 조사 사업	2018~2019	20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2019	15
커뮤니티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20~2022	26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운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1	14
논발생활백과 <손과 땅을 잇는 농부들의 이야기>	2021~2022	21
논발생활백과 <지리산권 농사기록>	2022~2023	272
기록활동가 <작은변화 기록원 : OO지역 기록실>	2022~2023	133
지역밀착형 유기농 매거진 <Asak! 아삭>	2023	64
합계		334

2018~2023 발간 기록물





2020 작은변화활동가 워크숍



2020 <지리산 작은변화커뮤니티공간 만들기 캠페인> 모금 영상 촬영



2021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3장 지원 방식

1. 사람 중심 지원

2. 유연한 지원

3. 연결 중심 지원

4. 기록을 통한 지원

들어가며

2016년,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집단이 새로운 변화지원조직을 제안했고, 그 제안들은 재단의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모델 개발, ▲ 네트워크와 사람 중심의 지역 시민사회 기반 강화, ▲ 기존 사회단체 외 새로운 참여 주체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모금 및 협력 방안 기획과 지원. 이런 제안들은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변화를 추구한 재단의 비전과 잘 맞아떨어졌다.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 제안을 수용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지원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방향성이 정해진 후,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지리산 5개 시군의 현장의 목소리였다. 센터 설립 전 진행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센터의 역할을 경청했는데, 이들의 요구는 일정한 공통점을 보였다. 주요 내용은 ▲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 ▲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공유 가능한 공간 확보, ▲ 활동가 지원, ▲ 청년을 위한 기반 구축, ▲ 어린이와 청소년 활동 지원, ▲ 단체와 모임의 일상적 활동 지원, ▲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의 인큐베이팅 및 지원, ▲ 선주민과의 연계 강화 등이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기획과 운영이 가장 중요했다. 5개 시군 활동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의 핵심 사업과 방향성을 설정했고, 그 결과는 6년간의 센터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체화되었다. 그동안 센터가 채택한 지원 방식은 지역 시민사회가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를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람 중심 지원, 2) 연결 중심 지원, 3) 유연한 지원, 4) 기록을 통한 지원.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람 중심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유연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기록을 통한 지원은 연결 중심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각 키워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이 키워드들은 센터만의 차별화된 지원 방식임과 동시에 모든 지원조직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물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지리산이음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다소 특수한 형태의 지원조직이다. 따라서 센터의 지원 방식은 때때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방향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조직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센터가 제시하는 핵심 방향은 모든 지원조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6년간 센터의 활동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런 센터의 활동 방식이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시민사회 현장에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사람 중심 지원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핵심 지원 방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주저 없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만큼 ‘사람 지원’은 센터 지원사업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답일 뿐만 아니라, 지원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또는 활동가 등 시민사회 주체들이 각 단체의 일상 활동을 넘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각 단체의 활동 성과가 지역사회에 축적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러한 활동의 전이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될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지역 지원조직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아름다운재단이 지역에서 지원조직을 설립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에 있다.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는 활동의 주체인 사람들의 참여와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조직과 지원사업은 사람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업’만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지원의 성과를 참여자 수나 행사 횟수 등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숫자에 한정짓고 있어 활동가를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실무자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는 지원사업도 많아, 지원사업의 본질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활동가들이 많았다.

“지원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활동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사업 지원은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기존의 역량을 갉아 먹어 활동가들이 점차 지쳐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8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에서는 상근 실무자가 있는 단체나 활동 모임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만약 센터가 활동가의 인건비를 보장하지 않고 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존 지원과 차

별화되지 않아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람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 ‘동료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했다. 활동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현실에서는 이는 더욱 절실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동시에 센터 스스로도 지역 활동가들의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힘썼다. 지원과 피지원의 관계를 넘어서, 활동의 동료로서 꾸준히 만나고 개별 활동 과정에 참여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더 많은 지역 활동가가 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람 지원에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이는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 활동이 시민사회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공익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사람 지원의 중요한 방향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사람을 지원하는 핵심 방향은 ▲ 활동가에 대한 인정과 보상 체계 마련, ▲ 신뢰에 기반한 지원사업 운영, ▲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방향 속에서 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구현하였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람 중심 지원의 방식 ①

활동가에 대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다

사람 지원 방식의 첫 번째 핵심은 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듯이, 현재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상황이 더 열악하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체들은 회원 모집이나 후원금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리산권 지역에서는 공익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조차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통된 사실은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전업 활동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공익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전업 활동가의 부재로 공익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활동가들이 전업에 가까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보상이 부족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여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은 시민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다.

“5개 시군 방문 조사 및 워크숍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과제 중 하나는 전업 활동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일차적으로 사무 능력을 갖춘 젊은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활동할 사

람을 찾을 수 없다는 단편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전업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 이전에 전업 활동가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하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8

지리산권의 모든 전업 활동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직접 지원하는 ‘활동가 지원사업’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장 먼저 활동비를 지급받을 활동가들은 지리산권 5개 시군 조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지역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지리산권 지역 주민들에게 변화지원조직의 의미와 센터 개설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활동가이자,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작은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2023년
활동가명칭	지역협력파트너	작은변화활동가	작은변화활동가 (네트워크활동가/기록활동가)
인원	5명	15명	10명
월 활동비	10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주요활동	• 센터와 지역의 연결자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사업	• 개별 사업의 확장 및 확산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사업	• 네트워크활동가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사업 • 기록활동가 : 지역 이해를 위한 현장 기록 사업

센터는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또는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6년간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왔다. 활동가들에게 직접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비로 6년 동안 총 4억 3천만 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이는 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약 33%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다. 물론 전업 활동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작은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이 지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잖아요. 개인의 삶과 활동을 지지하는 목적에서 활동비를 준다는 게 되게 낯설었어요. 까다로운 기준도 없고 미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유분방해서 일단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좋으니까 더 잘하도록 응원하는 거다'라고 좋은 메시지를 받았고 그냥 그대로 이해했어요.”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2

특히 활동비 지원은 작은변화활동가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센터는 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 자체가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수증 첨부나 활동 일지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 없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작은변화활동가들에게는 직접 활동비 외에도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별도로 지원했다.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제 지원사업〉,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비인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지원을 통해 작은변화활동가들이 지역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활동이 즉시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연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했다. 작은변화활동가들은 이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큰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증빙 서류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하루하루 활동 일지를 쓰게 하는 곳도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단순한 서류만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지원해 주었다. 그것이 가장 다른 것이었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공모 사업이 활동비는 없고 사업에 대한 비용만 지급한다. 일을 만들고 백조의 발처럼 물 밑에서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활동가들의 순수한 활동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엄마들의 살림 노동이 위자료에 반영이 안 되던 시대와 똑같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의 후원금은 지리산권의 활동가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어,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

기록활동가 남원 기록실, 2023

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센터는 이 사업 외에도 활동가들에게 직접 활동비를 일부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활동가들에게 직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람 지원’은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활동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활동가 인건

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센터는 공모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물론 처음부터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을 경우, 사업의 본질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사업 경험이 쌓이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인건비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매년 공모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을 점차 확대해 갔다. 첫 공모 지원사업이었던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를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20년에는 이를 50%까지 확대했다. 또한, 2021년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루었다.

공모 지원사업에서는 주로 해당 사업의 담당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담당자의 인건비가 지급되니 그동안의 관행처럼 감사비나 진행비 등으로 인건비를 숨길 필요 없이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뿐 아니라 인건비를 받는 사업 담당자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센터가 의도하는 ‘사람 지원’의 의미를 부각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에서 담당자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이 주요 활동가 1~2명에 의해 진행되고,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이다. 사업 담당자를 명확히 드러낸 것은 이런 측면에서 센터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센터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자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본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다.

사람 중심 지원의 방식 ②

신뢰에 기반한 사람 지원

센터는 작은변화활동가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자 노력했다. 비록 지원기관의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활동가들은 센터의 지원이 갖는 의미를 점차 이해하려 했고, 센터는 활동가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센터는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신뢰에 바탕을 둔 동료로서 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센터는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긴 안목으로 바라보자’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작은변화를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활동가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나 숫자에 조급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사업의 횟수나 참여 인원 등 외적인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잦았다.

“지역협력파트너로 구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일이죠.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구례의 유일한 대

규모 생산시설인 (협)아이쿱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고 구
례의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활동하는 것 등입
니다. 생태통로 문제도, 도서관 신축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밖에 지역에 필
요한 일이 무엇일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중장기
적인 플랜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맺어지는 단체나 개인들, 결국은 ‘사람들’
을 찾아내고 어렵듯이나마 작은변화의 끈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2020

작은변화활동가들은 지역 활동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긴 호흡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이 필수적이었다. 지역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과 변화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활동
가들이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센터는 최대한 독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
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활동가들과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활동의 깊이를
더해갔다.

센터와의 잦은 만남, 센터가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다. 신뢰
는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여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자 했다. 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설립된 것이 아닌 아름다운재단의 기획으로 시작된
곳이라 지역에서 생소한 존재였다. 따라서 지역에서 신뢰를 형성하며 활동하기 위해, 그래서 지역사
회에서 인지도나 신뢰를 쌓기 위해, 센터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방문횟수	96회	91회	72회	73회	60회	84회

센터는 연 평균 80회 이상 지역을 방문하며 활동가들을 만났다. 이는 평일 약 240일 중 3분의 1에 달
하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역 현장을 찾아 활동가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
며, 꾸준히 소통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센터장님도 평가는 냉정하게 하지만 또 힘을 주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 봐야
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뭐
든지 해봐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2

이와 같이 만남의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가들과 대화하면서 지역의 활동을 독려할 수
있었다. 센터의 조언이 현장 활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기 전 반드시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은 지역을 자주 찾아 활동가들과 직
접 만나면서 쌓이게 되었다. 현장 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쌓인 경험들은 다른 활동
가들에게 무게감 있는 조언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또 다른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사람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신뢰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더한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니 꼭 참여하겠다”는 지역 활동가들의 말을 들을 때, 그저 물질적인 보상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지원의 방식 ③

사람 지원과 역량 강화

‘사람 지원’은 또한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람 지원을 통한 활동가들의
성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원조직들이 교육사업 같은 역량 지원 사
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익 활동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지리산권 지
역 활동가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도 많이 작용한다. 기본적
으로 지리산권의 농촌 지역에는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과정도 쉽게 접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넘쳐나는, 함께 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기술들을 교육하는 기회도 흔치 않다. 따라서 집단 활
동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의 시작과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들 교육은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첫째, 센터가 활동가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역량을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했다. 둘째, 지역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셋째, 활동가들 간의 상호 학습을 촉진하도록 장을 마련했다. 세 가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센터는 첫 번째 역량 강화 교육으로 <모이고 떠돌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이하 ‘모떠꿈’)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산권 5개 시군 조사보고서에서 제안된 민주적 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다소 생소한 주제였지만 지역 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했다.

교육이 시작되자 지리산권 활동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2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모떠꿈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센터의 다양한 활동에서 강사나 진행자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술에 대한 심화 학습 욕구가 생겨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이라는 자발적 네트워크로 발전하기도 했다. 센터는 이러한 모떠꿈을 포함한 공익 활동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했다.

센터는 또한 활동가들이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미디어 활용 교육>과 <정보공개 청구 교육>은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은 해당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를 더욱 쉽게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지리산이음이 운영하는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 2020년 하반기부터 활동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됐다.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을 더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센터는 ‘들썩’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리산쌀롱>을 기획하고, 지역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로, 센터는 활동가들이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강좌 지원사업>을 공모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했다. 지역 활동은 종종 교육을 계기로 시작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은 활동가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며,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활동가들 사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데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매우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작은강좌 지원사업>은 참여도가 높았고, 강좌의 내용도 무척 다양했다. 지리산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부터 ‘우리동네 예산 들여다보기 강좌’, ‘민관 거버넌스 사례 강좌’, ‘성평등 양육자 강좌’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총 34개의 강좌가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활동가들이 자기 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됐을 때, 센터 역시 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기회가 많아졌고, 센터는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

하는 담당 활동가를 대상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 간의 만남 자체로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는 활동가 워크숍에서 많이 배우고 큰 힘을 얻었어요. ‘명왕성’을 운영하면서 구경이든 탐방이든, 인터뷰로든 누군가 ‘명왕성’을 찾아오면 제법 신경 쓰이거든요. 실제로 배우는 것들도 많았지만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이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지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배웁시다’ 하지 않아도 각자 활동을 이야기하고 작은변화지원센터가 그리는 그림을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자고 할 때 파트너로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2

작은변화활동가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 활동을 공유하는 동시에 서로의 활동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으며 상호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의제와 마주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까운 곳에서 활동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 모임, 단체, 커뮤니티 등과는 오리엔테이션, 결과 공유회를 통해 다양한 단위 및 활동가들에게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단순히 센터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교류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사람 지원은 지원기관이 가져야 할 핵심 가치

사람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센터는 사람 지원의 경험 없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방식이 과연 옳은지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지리산 변화지원조직의 각 지원활동은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관점에서 그 내용과 방식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상당한

투자가 다년간 추진될 필요성이 높다. 이의 누적을 통해 다양한 활동 및 주체가 증가하고 지역 변화의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사람 지원에는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며, 다년간의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도 지역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쌓이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늘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 지원을 이어왔다. 만약 센터가 단기 성과를 중시했다면, 사람 지원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센터의 사람 지원이 가능했던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지리산권 지역에 이미 꾸준히 활동해 온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지리산권에는 지리산 개발에 맞서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시민사회 역량을 키워왔다. 또한 귀농·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대안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 예술과 대안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중심지가 되어 왔다.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센터도 어려움 없이 사람 지원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현장에서 사람 지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활동가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되는 건가?’, ‘활동비를 받는 만큼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며 중압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센터는 사람 지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중압감을 신뢰로 바꾸어 활동의 성장을 돕고자 했다.

사람 지원에는 정서적인 지지와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센터 활동가들의 큰 노력이 투여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센터 활동가들에게는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센터는 지원 방식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센터의 사업 명칭과 방식이 자주 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센터가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사람 지원 방식이 지원기관의 핵심적인 방향이어야 함을 확인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지원보다도 필요한 지원이었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활성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고 믿는다. 사람 지원 방식에 대한 민간 지원기관의 이러한 시도가 확산되어 공공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고 다채롭게 시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유연한 지원

지리산권은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이자 농촌 지역으로, 대도시의 시민사회 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리산권에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의 수가 적으며, 상근 인력을 보유한 단체는 더욱 드물다. 대부분의 시민사회 활동은 개인들의 필요에 근간한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또, 센터 설립 이전 지리산권에는 지자체나 민간을 막론하고 시민사회와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 단체가 상당히 드물었다. 지자체로부터 공공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들조차 행정으로 인한 실무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며,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 상황 속에서 공공의 전통적 지원 방식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활동에 있어서도 일상 속에서 작은변화를 필요로 하고 이를 실천하며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했다. 이로 인해 센터의 지원 방식은 기존과는 달라야 했으며, 이에 따라 ‘유연성’이 필수 요소라는 판단을 내렸다.

센터는 지원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활동을 포용하고자 했다. 활동 경력이 오래된 기존 단체보다는 비록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활동의 목적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활동도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활동을 시작하는 개인이 지원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원 신청서나 결과보고서 양식도 간소화했다. 지원 방식에 유연성을 더하여 활동가들이 ‘지원의 맛’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 지원을 받는 것이 번거롭거나 어렵지 않고 오히려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었다.

유연한 지원의 방식 ①
지원 방식의 유연함
.....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고유번호증이나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 등록이 지원사업 참여의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의 소규모 모임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와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단체 등록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 모임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이 주를 이루는 지방 소도시인 지리산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리산권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

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으로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리산권의 활동 단체나 모임들은 주로 면이나 동네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시골 마을 곳곳에 홍보되고 제안될 필요가 있으며, 일상 활동 지원에서는 행정의 지원사업과는 다른 관점과 절차가 필요하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상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진입 조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지원사업 절차를 과감히 변경하는 등 유연함을 발휘했다.

“ ‘사업’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 없는 우리들에게 진입이 어렵지 않은 공모 사업이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기존에 운영할 여력이 없어 결과를 만들어 오라며 떠넘기듯 지원하는 사업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집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점도 좋았다. 그리고 센터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지원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열정으로 유지될 동아리가 생겼다. 동력과 열정을 만들어서 첫발을 디디는 데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중 활동을 위한 활동, 작당 모의가 가능한 모임이 생긴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2020

센터는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단체와 모임뿐만 아니라 1인 활동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1인 활동가까지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하지는 않았다. 지역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원과 활동 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작은변화의 시나리오〉에서는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지리산권 5개 시군 소재 시민사회단체(미등록 단체 포함) 및 활동 모임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작은조사 지원사업〉은 처음부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역량이 요구되는 지역 활동과는 달리 조사 연구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모 사업 운영 경험이 쌓이고 지역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센터는 지역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반드시 모임이나 단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작은조사 지원사업〉에 개인 또는

소수로 구성된 모임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낸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는 2021년부터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지리산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공익 활동 단체, 시민사회 단체, 활동 모임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포함한 것이다.

센터는 지원사업 대상의 자격 조건만이 아니라 활동 내용 면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노력했다.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지원 대상 활동

- ① 해당 지역 주민 대상의 사업.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 ② 지역의 이슈와 관련하여 작은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
- ③ 지역사회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실험
- ④ 해당 단체 및 모임의 이전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⑤ 기타 해당 지역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 활동

위의 표는 2021년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의 모집 요강에 명시된 지원 대상 활동을 보여준다. 센터는 가능한 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포괄하여 지원 대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센터가 생각하는 작은변화의 의미를 폭넓게 담은 것이기도 하다. 센터는 상세한 설명서보다는 활동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이런 활동도 지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활동을 발견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지원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을 바꾸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지리산이음 구성원들도 여러 공모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공모 지원사업 양식에서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공모 지원사업 신청 경험이 없는 지역 활동가들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더 높은 문턱이 될 것은 당연했다.

센터는 첫 공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를 실감했다. 아름다운재단이 기존에 사용한 공모 사업 양식을 활용해 지원신청서를 만들었는데, 적지 않은 활동가가 작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작성된 신청서로 활동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공모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다.

2018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듬해부터 센터는 신청서 양식을 완전히 변경했다. ‘목적, 목표’ 등 모호한 문항 대신에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하는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당신(소속 단체 또는 모임)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나요?’, ‘이 활동을 통해 바라는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활동의 목표를 물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가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질문에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문을 추가했다.

예산서 작성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는 지원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복잡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관행이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용 내역만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지원 신청 단계에서는 특별히 세부 예산 계획을 요구하지 않았고 최종 선정된 단위에 한해서만 세부 예산 계획을 받았다.

신청 양식이 간소화되었지만, 활동의 계획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신청자가 가진 활동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부족한 정보는 서류심사 후 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 실사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센터는 현장실사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적인 대면 심사는 지원기관의 회의실 등에서 짧은 시간 동안 사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하는데, 이는 발표자의 컨디션에 따라 지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센터는 현장실사는 지원 단위와 함께하는 소통의 첫 시작이며 충분한 현황 확인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회의실 대신 지원 단위의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실제 현장실사는 지원 단위 당 약 1시간가량 충분히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계기,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센터는 현장실사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원 단위의 활동 방향성을 이해하고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현장실사를 위해 사업 담당자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내내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 단위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는 증빙 서류와 결과보고서 양식도 간소화했다. 최종 선정된 단위의 사업비 집행에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사업 수행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 가이드에는 지원사업 일정부터 지원사업의 기본 원칙, 회계 처리 규정, 지원 취소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가이드가 활동을 제한하는 용도가 아니라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사용에 있어 제한 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활동 인건비, 감사비, 물품 구입에 있어 예산의 한도가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등 제한 사항이 많으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최대한 없애고자 했다.

결과보고서 작성도 지원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구성됐다. 활동 결과 작성의 핵심은 ‘활동을 통해 발견한 작은변화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성과를 강조하기보다 활동의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활동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센터는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성과를 돌아보며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과 공유회 자리를 반드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활동의 성과를 행사 횟수나 참여 인원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찾는 것이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활동이 개별적으로 남지 않고 다른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었다. 결과 공유회를 통해 활동 단위는 활동의 의미를 찾고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며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유연한 지원의 방식 ②

시의성 있는 지원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유연함

지역의 사회문제는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라는 센터의 미션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작은변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현실과 필요를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하려면 시의성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작은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하고, 그 시점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센터의 지원사업을 함께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기획 지원사업’과 ‘공모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기획 지원사업은 작은변화활동가들과 연계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모 지원사업은 새로운 활동 주체들이 지역에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연도	기획 지원사업	공모 지원사업
2018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2019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청년 모임 지원사업 •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2020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 긴급지원 수해복구 사업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 작은강좌 지원사업 • 작은조사 지원사업 • 작은모임 지원사업
2021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2022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 활동가 교육비 지원사업	• 프로젝트활동가 지원사업 •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교육/학습 • 조사/콘텐츠
2023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 따로활동 •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 중 기획 지원사업은 본래 시의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기획 지원사업에 포함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때,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작은변화활동가가 의제를 주도하기보다는 먼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의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역이나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빠르게 시작되기도, 그렇지 못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를 선정하고 활동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작은변화활동가들은 센터에게 지역의 상황에 맞춰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라도 상황이 급변해 갑작스러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생겼다.

“‘구례 살림 연구소’는 구례군의 예산을 살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구례군과 구례교육지원청이 한곳의 부지에 각각 도서관을 짓겠다는 예산이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부랴부랴 대책위도 꾸리고 공청회도 열고, 군수를 찾아가 통합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나서 ‘구례 좋은 도서관 추진모임’을 만들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결론은, 한 개의 부지에 두 개의 도서관이 지어졌다.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스스로가 만드는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마침, 사회단체들의 공유공간이었던 느티나무 공간이 이전을 해야 했던 터라 지역에는 약간의 자산이 있었다. 또 지역의 주민들이 기금을 모았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지원하면서 구례시장 입구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하게 되었다. 일반 사무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은 큰 공사였다. 하지만 지역의 목수들 도움과 재능 나눔으로 공사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고 <산보고책보고> 도서관은 이듬해 봄에 문을 연다.”

구례 지역 의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9

위 사례처럼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활동의 방향성을 찾는 동안 숨을 고르며 함께 기다려주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는 빠르게 지원함으로써 활동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활동가들이 긴급히 요청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 집행 계획이 종료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상이란 흔히 그렇듯 지원사업 역시 연초에 계획한 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발생하는 상황은 많다. 이를 대비해 예비비를 책정하기도 하지만 센터는 그런 여건을 갖추지는 못했다.

“8월 8일 긴 장마와 함께 내린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하동 화개면, 구례 구례읍, 남원 노암동과 금지면에 큰 수해가 났다. 수해 당사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는 수해 복구를 위한 활동이 한창이며 지역 시민사회 또한 수해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는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과 수해의 원인과 규명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여 지역 시민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기안서, 2020

2020년 섬진강 지역의 큰 수해가 발생하자 센터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을 통해 가장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과의 논의를 통해 전체 사업비를 조정했다.

긴급 조정된 사업비로 우선 수해복구 자원봉사자를 위한 식사를 지원했다. 또 복구 이후 수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지원하여 재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빠른 대처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했다.

공모 지원사업에서도 현장의 욕구에 기반해 시의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역에서는 지원사업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해왔다. 공모 지원사업이 주로 상반기에 있다 보니 하반기에 무언가 새롭게 시도하고자 해도 시작하기 어려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센터 입장에서라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등 사업 운영에 있어 하반기에 공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복잡한 심사 과정을 두 번이나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 활동의 활성화라는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공모 지원사업 일정을 조정했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공모 사업을 시행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사업에 많은 신청이 있어 공모 지원사업 일정을 세분화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상반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자 공모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도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을 위해, 해를 넘어 지원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청소년들은 주로 겨울방학을 활용해 활동을 계획했는데, 화계연도를 넘어 다음 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센터는 지원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2월 안에 선정과 예산 집행을 완료하고, 활동은 다음 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월에 계획된 청소년 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세부적인 평가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며 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집행과 정산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의성 있는 지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센터의 유연함은 작은변화를 이끄는 신호

지원조직에서 명시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과감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 역시 지원조직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장 요구 수용 여부는 센터와 활동가 사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과 활동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개선했을 때, 사업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함은 작은변화를 이끄는 신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유연함은 센터가 스스로 작은변화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센터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지역 활동가들에게 작은변화의 한 형태로 다가갈 수 있다. 만약 센터가 경직되고 반복적인 사업만을 고수했다면, 그 변화는 공허한 말에 그쳤을 것이다. 센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고자 해야 활동가들도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다.

물론, 유연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매년 달라지는 지원사업의 명칭과 방식 때문에 지역에서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나요?”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지원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이를 알리고 설명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다.

유연한 지원 방식은 때로 센터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요구를 받게 만들기도 했다. 센터는 센터에서 주도해 지리산권의 중심 의제를 제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센터가 의제를 선점하여 사업화하는 과정이 활동가들의 대상화, 도구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센터는 프로젝트, 강좌, 조사, 네트워크 등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지원

을 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상근 활동가도 있고 재원도 충분하니 중심에 서서 의제에 기반한 활동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냐”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센터가 아무리 유연성을 중요시하더라도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기에, 그럴 때마다 센터의 고유 역할과 목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센터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지원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는 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었으며, 동시에 사무국 활동가들의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센터는 공모 지원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지원신청서와 개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위원들과 심사의 방향을 논의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신청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모임, 단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매년 빠짐없이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사 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지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해당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활동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사무국에서 시간과 인력을 크게 할애해야 했음에도 현장에서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꾸준히 실천한 이유이기도 했다.

센터의 위와 같은 노력은 활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사회가 한 걸음 더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절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일은 결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센터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간혹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대화 중에 센터의 지원 사례를 공유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센터의 유연성은 민간 지원조직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민간 지원조직에서 먼저 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보였다면, 공공 지원조직에서도 시사점을 얻고 지원 방향의 하나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센터가 만들어 낸 유연한 지원의 사례들이 더 많은 지원조직에서 공유되고 이야기된다면 지원 시스템 전반에서 한층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지원조직의 공통된 목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3. 연결 중심 지원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지역사회 밖이 아닌 지리산권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리산권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운영 원칙 전문에서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함께 설정한 센터의 운영 원칙은 ‘시민사회의 주체인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센터 활동도 사람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특히 활동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센터는 공익 활동 간 상호작용과 상호 영향력으로 생태계가 형성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생태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리산권에서도 연결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리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며 연대 활동을 펼친 단체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지리산종교연대’ 등은 지리산 주민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낸 주요 조직이다. 또한 지리산 지역에서 케이블카, 댐 등 개발 이슈가 증가하면서 5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대 활동은 행정구역을 넘어 ‘지리산권’이라는 개념을 시민사회 진영에서 성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연대 운동이 특정 사안에 집중된 나머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이나 지역 내 개별 단체의 활동까지 그 성과가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조사결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나, 단체 및 활동가 간에 정보 소통과 교류, 무리를 주지 않는 한에서의 전문성 및 자원의 공유 등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변화지원조직은 이를 위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현장 조사 과정에서 만난 활동가들은 지역 내에서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

다. 특히, 시민사회 인적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연대운동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각각의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활동 범위가 증가해 개별 역량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경험 때문이었다. 따라서 센터는 연대운동과 네트워킹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단순히 사안별 대응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간의 연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센터는 스스로 지리산권의 활동을 연결하는 노드(node)^{*}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지리산권 5개 시군 개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가들의 만남을 통해, 또는 지리산권을 아우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러한 방향성이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결 중심 지원의 방식 ①
센터 스스로가 연결점이 되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지역별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이들은 서로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첫 만남 속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역 간의 연결이 느슨하지만, 활동가들 사이에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일단 만나 서로 자신들의 활동 내용과 고민 등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을 통해 만남과 상호 연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 노드(node)는 컴퓨터 과학에 쓰이는 기초적인 단위이다. 노드는 대형 네트워크에서는 장치나 데이터 지점(data point)을 의미한다.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프린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들이 노드이다. 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이 모이고 연결되는 하나의 노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연결은 일단 사람들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해 각자가 혼자 활동하는 현실이었다.

센터는 스스로 연결점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을 주선할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첫해에는 각 시군에서 결과 공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각자의 활동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활동가들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교류 모임을 더 자주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별 결과 공유회는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교류가 부족했음을 상호 확인하며 앞으로의 연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센터는 결과 공유회의 범위를 지리산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에는 <작은조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각자의 지역 공유회만이 아니라 지리산권 전체 공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은 지리산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 주제와 방식 등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센터는 6년간 각 지역 및 지리산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 공유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활동가들의 교류를 이어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도 작은 규모로 공유회를 계속 진행하며, 중요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이 모임들은 지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활력과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센터의 활동가 지원과 살핌도 든든했지만, 지리산권 활동가들을 만나는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가장 큰 응원과 지지였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까워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힘도 되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고고도 싶고, 제가 힘들다고 할 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작은변화활동가들은 정말 최고였어요.”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2

작은변화활동가들의 연결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센터는 작은변화활동가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모임은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단순한 점검을 넘어 지역 상황과 의제, 시민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작은변화활동가들의 정기 모임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응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동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정기 모임을 통해 지역 내에서 쉽게 꺼내지 못하는 고민을 나누고, 활동의 영감을 찾을 수도 있었다.

작은변화활동가의 범위를 넘어 더욱 다양한 연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리산권의 활동들을 널리 소개하는 것은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열심히 공익 활동을 하더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하면 연결의 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알릴 기회는 많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활동도 정착 지역 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센터는 활동과 활동가를 인터뷰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며, 지리산권과 그 외 지역에 알리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지역 활동 현장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약간의 호기심을 계기로 여러 활동가와 활동들이 실제 연결되는 사례들이 등장했다. 특히 대면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인터뷰 활동이 끊어진 활동을 연결하고, 활동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터뷰는 5개 시군을 넘어 외부 지역과 지리산권을 연결하기도 했다. 센터는 온라인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기획 기사 시리즈 ‘지리산활동백과’를 기고했다. 한 편의 조회수가 최대 15만 회가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전국에 지리산권 활동을 알렸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지리산권 지역 활동을 외부로 알리면서 지리산권 지역 활동이 전국적 관심을 받는 경우도 생겼다. 인터뷰로 알게 된 활동에 영향을 받아 타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해보는 사례들도 점차 생겼다. 센터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의 활동을 드러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자 자연스럽게 더 넓은 범위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연결 중심 지원의 방식 ②

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한 연결성의 회복

센터는 주요 지원사업을 통해 연결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역 활동가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을 펼치고 지원하는 것이 센터가 할 역할이었다.

특히 작은변화활동가들을 통해 지역과 밀접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지역 의제 지원사업> 및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작은변화활동가가 지역 안에서 사람과 사람, 활동과 활동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도	기획 지원사업
2018	• 지역 의제 지원사업 • 지리산권 공통의제 지원사업
2019	• 지역 의제 지원사업
2020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2021	•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2022	•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2023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들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구례에서는 의제를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모임과 지역생협 준비 모임 네트워크 그룹이 생겼다. 남원에서는 소셜 다이닝 식사 모임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정기 모임인 ‘남원 작은변화포럼’이 결성되었다. 산청에서는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산청 작은변화네트워크’ 모임이 ‘산청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의 마중물이 되었다. 하동에서는 지역 개발에 맞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추진되었고, 함양에서는 각자의 활동과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이 모인 ‘함양 작은변화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처음에 ‘남원 작은변화포럼’은 저만이 유일한 접점이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첫 1년은 밥을 함께 먹으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두 번째 해에는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다들 정치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보자고 했고, 그것이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2020-2021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슬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 2022

이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 지역 네트워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만큼 지역 네트워크의 지속은 어려운 일이다. 네트워크가 구성된 후에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센터 지원 기간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의 활동은 약화되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지역 시민사회의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리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고, 지리산권을 활동 범위로 하는 연대

운동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센터는 이러한 연대 운동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들 운동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기반이 되어주지 못하고 연대운동의 성과가 연대에 참여한 개별 활동 단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많았다. 다양한 개별 활동의 확산 없이는 연대운동도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센터의 생각이었다.

“‘지리산 운동’은 댐 건설, 케이블카, 산악열차, 성삼재 도로 등 지리산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반달곰, 구상나무, 수달 등 생태환경 문제만으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운동’은 단순히 개발이나 생태환경 관련의 반대운동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산의 많은 문제는 기후 위기와 함께 21세기 최전선의 상징적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고 그런 지구 위기에 대한 답 또한 이 지리산에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운동’은 그 답을 창출해 내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리산 운동’의 취지문, 2023

센터는 2023년부터 ‘다시 지리산 운동’ 모임을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센터의 연결 중심 지원 방식이 ‘다시 지리산 운동’의 취지와 깊이 닮아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센터는 지역의 개별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의제를 중심으로 한 연결과 협력을 이루려는 새로운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센터는 지리산권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지역살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청년 모임 지원사업〉도 운영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 단위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을 주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임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더해 지역의 여러 활동 현장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을 통해 지역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을 지원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촘촘히 연결되고, 각 활동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힘써왔다.

2023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종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연결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부족한 연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다시 한번 다지고자 했다. 센터는 기존 공모 지원사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에 필요한 연결 활동을 찾아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재설계했다. 바로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이다.

“〈지리산 활동가대회〉에서 만난 지리산 활동가들은, 지구옹사들 같았다. 눈에서 광선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기 살 공리만 하지 않는 빛나는 사람들이었다. 지리산 활동가들이 가진 마음, 고민, 힘 그것이 바로 지리산 운동이다. 지리산 활동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리산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리산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사는 모양으로,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내디딘 발걸음으로, 지리산 운동을 이어간다. 우리는 지리산 활동가이고, 우리가 곧 지리산 운동가이며, 우리 삶 곁이 바로 지리산 운동이다.”

지리산 활동가대회와 n개의 시선, 2023

센터는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잠시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고, 기존의 연결을 다져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기획했다. 사업설명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활동가들이 지역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숙의하고 자원을 나누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마련했다.

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리산 활동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을 넘어 지리산권의 활동가들과도 연대할 기회를 만들었다. 전 과정을 거치며 활동가들은 지역의 변화를 위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가능성의 지도를 함께 그려볼 수 있었다. 센터의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도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에서 연결된 주제와 활동들은 여전히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리산권으로, 연결의 의미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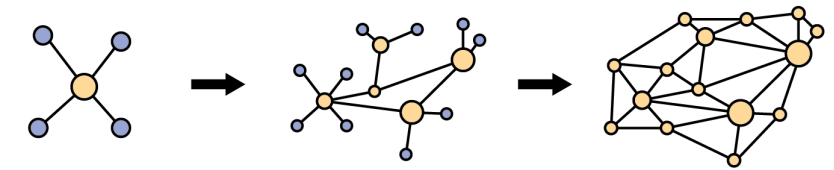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라면 생태계의 연결망은 튼튼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활동 자체가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주목했다.

센터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시도하는 데 주력했다. 기존 연대운동 방식의 한계와 운영상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연결이 단순한 관계 형성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활동에 도움이 되고 활동가들의 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히 논의했다.

또한, 센터는 하나의 고정된 연결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와 욕구에 기반해 다각도의 연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내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때로는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공통의 활동을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가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과학에는 ‘노드(node)’라는 기초단위 개념이 있다. 데이터 지점(data point), 즉 대형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프린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들이 노드이다.



노드의 연결망 확장 방식

센터는 지리산권의 각 활동가, 모임, 단체들 역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접속하는 노드로서 역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센터 자체도 하나의 노드로 역할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될 때 활용도와 효과성이 극대화되듯이, 지리산권의 활동가와 활동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촉진하고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은 센터의 핵심 역할과 긴밀하게 닿아 있다.

센터는 연결점이 더욱 확대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개별 지역을 넘어 지리산권 전체로 확장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군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활동 동료를 만나게 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는 물론, 지리산권 특유의 지역적 이슈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와 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이루고 다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리산권의 시민사회 생태계가 완전히 튼튼히 구축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연결과 협력의 경험들이 지리산권 활동가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의 연결을 향후 중요한 과제로 가져갈 계획이다.

4. 기록을 통한 지원

지리산권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센터의 활동 계획 수립과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7년 센터 설립 준비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개한 인구 분포 등의 자료 외에도, 지리산권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 단체들의 현황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리산권 5개 시군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지리산권이 행정구역상 3개의 광역 시도와 5개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서 조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지역사회 내 설정된 의제와 관련한 모니터링, 혹은 새로운 의제 파악을 위해서는 본 조사와 같은 지역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 진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 조사에서 제기된 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후속 조사나 추가 연구를 변화지원조직과 지역의 활동 주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리산권 5개 시군 지역 현장 조사 보고서, 2017

센터는 이 보고서를 지역사회와 널리 공유하고, 지역 활동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단기적인 진단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의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센터는 사무국에 전담 구성원을 두고 지역 조사를 이어갔다. 2018년에는 <지리산권 청년 조사사업>, 2019년에는 <지리산권 청소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새로운 활동 주체를 발굴할 수 있었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 전문가가 아닌 활동가들로 구성된 센터 사무국의 인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연구 역량 없이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센터는 추가적인 조사사업을 기획하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질적 조사 방법론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지역 내 활동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별도의 사업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뷰를 통해 사람과 활동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의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년부터는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사업으로 활동가나 커뮤니티 등 센터가 조명하고 싶은 지역의 활동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결과물은 온라인 콘텐츠로 발행했다. 또 사무국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동가들도 인터뷰어나 기록자로 참여함으로써 기록 활동의 경험을 지역 시민사회와 나누고자 했다.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기록 활동이 더 구체적이고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믿었다. 이를 위해 센터는 2022년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을 개편하면서 ‘기록활동가’를 선정하여 지

역의 생생한 활동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기록 활동은 해당 시점에 지역 주민들이 주목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활동의 연결과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센터는 지역과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을 조명하여 드러내는 것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록하는 일과 기록을 지원하는 일이 센터의 핵심 활동 방식이 되었다. 이제 기록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한 방식과 이에 따른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록을 통한 지원의 방식 ①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조사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작은조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리산권 5개 시군 현장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는 주민 주도의 조사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며, 지역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센터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역 변화를 모색하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도입해 지원사업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촉진하고자 했다.

설립 첫해부터 운영된 <작은조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통합되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센터는 이 기간 동안 총 36개의 지역 조사 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지역의 활동 주체들이 직접 수행한 조사 프로젝트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사업과 비교할 때 더욱 일상과 밀착된 거리에서, 좁고 깊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민들의 시선에서 지역의 현실을 세밀히 반영한 결과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8년과 2019년에 연속해서 지원한 함양의 백전마을을 기반으로 농사 모임에서는 ‘풍년새우 논’ 조사 활동이 진행했다. ‘풍년새우 논’은 농사 모임에서 공동으로 농사짓고 있는 논에 붙인 이름으로, 이곳에서 식생하는 생물 58종, 식물 24종을 조사하고 관찰기록물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이었다. ‘풍년새우가 논에 많아지면 풍년이 든다’는 오랜 속설을 바탕으로, 생태 환경적 관점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의 위해성을 알리고 약품 없이도 농사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젝트는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총 1년 동안 기록된 논 생물 관찰 보고서로 완성되었다. 일견 소박해 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대

중적인 눈높이에 맞게 다른 유의미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또, <작은조사 지원사업>의 결과물이 새로운 정책 제안의 근거가 된 사례들도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시가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점을 감안해야 하는지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고, 지역 놀이터 현황 조사, 구도심의 빈집 조사, 읍내 보행 환경 실태 조사 등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한편, 센터는 작은변화의 정의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센터가 주목하는 다양한 활동과 사람들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했다.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인터뷰는 이 작은변화의 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된 방법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작은변화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는지, 지역의 변화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조명하고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작은변화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센터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몇 편의 자료집을 펴냈다. 첫 결과물이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2018~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이다. <한발짝>은 활동가 지원사업인 지역협력파트너와 공모 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센터의 지원 활동과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가’가 될까요? 지리산권 지역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이 호칭을 낯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단어가 주는 무게감 탓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만나는 활동가들은 각자 해오고 있는 활동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몇 이 모여 돌봄의 짐을 나누거나 작은 모임을 시작해보는 게 별일이나는 식입니다. 마음을 모아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이분들께 ‘아니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라고 말씀드리고, 널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3년 동안 인터뷰를 이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2020-2022 커뮤니티 인터뷰 자료집
<지리산활동백과 :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2022

이후 센터는 <지리산활동백과>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24명의 활동가, 또는 활동 모임을 인터뷰하고 온라인 콘텐츠로 발행했다. 이 인터뷰는 지역의 평범한 이웃들이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또한, 작은변화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지역별 3인 체제로 진행된 시기의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이 남긴 성과를 갈무리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작은변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동안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주된 활동 목표와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어난 변화를 묻는 방식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센터는 2020~2021년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 보고서 <윤술 : 서로 만나, 함께 빛나는 사람들>을 발행했다.

센터가 진행한 다양한 인터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공통적으로 작은변화의 의미를 담아내고 이를 축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터뷰는 작은변화가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과 활동의 역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재구성되는 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센터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작은변화의 맥락으로 전달하고, 이를 다양한 활동과 연결하며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변화를 다각도로 기록하고, 기록의 역량이 지역에 쌓일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기록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었다.

센터는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활동 지원과 기록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활동가와 활동을 직접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록활동가’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록활동가는 취재를 통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파악하고 기록을 통해 지역의 작은변화들이 더욱 폭넓게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기록 활동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만난 사람이 여럿이다. 처음 만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숲이나 장터, 텃밭 등지에서 오다가다 만난 아는 얼굴들이다. 구례에서 작은변화가 일어나도록 품을 들여 온 이들을 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기록은 관계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이와 이런 시간에 함께했었지, 하며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2023년 구례 기록실에 내가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기록해 둔 이야기들이 있어 또 다행이다. 우리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온 시간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빛이 바랄지라도, 영영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활동가 구례 기록실, 2023

기록활동가들은 매월 1~3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활동가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물로 작성했으며, 기록물은 온라인 콘텐츠로 널리 공유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콘텐츠는 2년 동안 총 133개에 달했다. 지역별 기록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록 콘텐츠는 센터가 주도한 인터뷰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의 주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러한 기록은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현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기록활동가들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작은변화를 제안하거나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활동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리기도 했다. 작성된 기록물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획 인터뷰부터 지켜야 할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기록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며, 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기록활동가 개개인의 관심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자료로 완성되었다.

기록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산권의 농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지원한 <논발생활백과>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이었다.

2021년에는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업 후원이 이루어졌다. 지리산권은 농산촌 지역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은 주민들이 많았으며 센터 활동을 통해 만나는 이들은 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유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센터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금을 활용해 농부와 농사에 관련된 기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촌 지역의 다양한 현황과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더 많은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감에 늦기도 하고 가끔은 빼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글의 소재가 나의 농사일이기에 끝까지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힘든 점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이 기록 활동을 통해 나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농부로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기에 두고 두고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다만 수입 농산물, 경매제도, 농촌인력, 농산물 가격 문제 등 하고 싶은 이야깃거리가 많았는데 글로 정리할 능력이 부족해다 다 담지 못한 것은 아쉽다.”

딸기밭에서 열세 달, 2023

센터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해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를 별도의 페이지로 개설하고 운영했다. <논발생활백과 아카이브>에는 지리산권 농부들의 인터뷰, 농부들이 직접 기록한 농사 일지 등 2년 동안 총 272개의 콘텐츠가 쌓였다. 이 기록들은 양적으로도 방대했을 뿐 아니라, 각자의 농사와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산청의 농사 기록을 바탕으로 펴낸 <딸기밭에서 열세 달>은 함양 독립 출판사의 기획으로 단행본 출판되며, 농촌 기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기록을 통한 지원의 방식 ②

기록을 넘어 발신하기

센터는 지역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다수의 기록 콘텐츠를 축적했으며, 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록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록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음을 인지하고, 기록 콘텐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공유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기록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기록 콘텐츠를 발신하는 과정은 센터를 홍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드러내는 기록을 경유하여 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의 존재감과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축적된 기록 콘텐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며,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신했다.

센터는 우선 뉴스레터를 통해 센터의 활동과 지역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발신했다. 이메일 기반 뉴스레터가 콘텐츠 마케팅의 주요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며, 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또한, 센터는 외부 채널을 활용해 활동과 작은변화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매월 뉴스레터 발송과 SNS 홍보를 통해 활동 소식을 전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센터의 활동을 알리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였다. 지리산의 활동이 가진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리산을 넘어 새로운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매체를 통해 지리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지리산활동백과> 인터뷰 콘텐츠를 외부 채널과 연계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활용했다. ‘오마이뉴스’ 채널을 활용해 인터뷰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정기적인 기사 발행으로 더 넓은 독자층에 다가갔다. 일부 기사는 조회수가 15만 회에 달할 정도로 주목받았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콘텐츠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다른 매체의 취재 요청으로 이어지는 등 센터의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발신과 비교할 때 파급력의 차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채널을 통한 홍보는 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 증가와 메일링 리스트 신청자 확대 등 센터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 플랫폼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의 관계망을 넘어 대중적으로 센터의 활동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3년 센터의 지원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지리산 관련 정보를 종합해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이하 ‘아삭’)을 발행했다. 센터가 활동한 6년 동안 만난 사람들, 공간들, 그리고 지리산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담아낸 이 작업에는 지리산권을 다방면으로 기록하고 아카이빙하고자 노력했던 센터의 구슬땀이 담겨 있었다.

“〈아삭〉의 제일 큰 목표는 그렇게 산청에 사는 사람이 함양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남원에 사는 사람이 하동을 다룬 기사를 읽었을 때에 ‘여기는 가까우니까 주말에 가 볼까?’, ‘여기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할 정도의 흥미를 돋우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뜻밖의 발견을 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사실 ‘지리산권’이라는 게 없지만 그래도 지리산에 머리를 기대고, 서로에게 어깨를 맞대고 사는 우리끼리 생활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데에 〈아삭〉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리산권 매거진 Asak! 아삭, 2023

매거진 〈아삭〉에는 종전의 여행 정보처럼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지리산의 멋과 맛,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통해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낸 총 165건의 이야기가 실렸다. 47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아삭〉은 사실상 지리산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방대한 기록물이 되었으며, 지리산권을 비롯해 전국의 도서관, 책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곳에 배포되었다.

앞서 인용한 〈아삭〉의 서문처럼, 산청에 사는 사람이 함양의 이야기를 펼쳐보는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된 이 매거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권 다른 지역의 공간과 마을을 찾아가는 탐방을 떠났다. 이 소식을 통해 지리산권 주민들이 이웃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며, 기록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록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센터는 활동의 과정에서 방대한 기록물을 축적해 왔다. 2권의 지역 조사 보고서, 3권의 활동 보고서와 인터뷰집, 그리고 470페이지에 달하는 매거진을 발간했으며, 이러한 기록물들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다. 이에 더해 농부들에 대한 기록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뒷이야기를 담아낸 자료들까지, 센터의 홈페이지는 지난 6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기록의 집합체로 자리 잡았다. (2024년 현재,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지리산이음 홈페이지에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다.)

센터는 이처럼 인터뷰와 기록을 핵심적인 활동으로 여겨왔다. 비록 기록이 물리적 자원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처럼 즉각적인 효능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작은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

2022년, 센터는 〈지리산살롱〉의 주제 중 하나로 ‘기록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다루며 기록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했다. 진행자는 “과거와 현재에 방점을 둔 기록이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기록 속에서 변화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

고 옥천에서 미디어 활동을 지속해 온 한 발표자는 이 질문에 대해 “기록은 이미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하며, 기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계를 형성하며 독자들에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기록의 힘은 단순히 이야기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발표자의 말처럼 기록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듣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관계와 영향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은 기록이 변화를 지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센터의 기록물 대부분이 텍스트 형식으로 남아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 온라인 매체 환경에서는 텍스트 중심 기록의 확장성에 한계가 느껴진다. 또한, 기록된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정성 들여 만든 공간을 소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대응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기록을 통한 지원을 사람 중심 지원, 유연한 지원, 연결 중심 지원과 같은 지원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사무국 활동가들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활동을 꾸준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터뷰와 기록을 진행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기록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센터의 이러한 노력은 기록을 통해 작은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센터가 기록을 통한 지원을 매개로 지역 현장과 더욱 밀착된 관계를 형성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지원조직은 기록 활동을 하나의 중요한 지원 방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원이나 역량 강화처럼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직관적으로 그 효과를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을 센터는 경험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산이음은 센터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활동가 인터뷰 아카이브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플랫폼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기록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작은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연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 작은변화활동가 워크숍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활동 공유회

4장 시선과 회고

1. 이해관계자의 시선

2. 간담회를 마치고

3. 아름다운재단의 회고

4. 지리산이음의 회고

1. 이해관계자의 시선

지리산권 활동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일으킨 변화

유지선 / 남원 지역협력파트너 (2018~2019), 작은변화활동가 (2020~2023)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시작을 함께했다. 그리고 여전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벌써 7년째이다. 처음 만남은 ‘우연’이었다. 2017년에 나는 남원 아이쿱생협에서의 오랜 활동을 정리하고 쉬고 있는 중이었다. 생협에서 활동할 때도 생협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활동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남원의 지역 활동에 관심이 없었고 당연히 지역 활동가들도 몰랐다. 그런 내게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함께 하는 사업을 연결해 준 사람이 당시 생협의 감사였던 오관영 선생님이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있던 내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타이밍이 좋았다.

센터가 생기기 전,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모여 지리산권에서 어떤 활동을 기대하는지 얘기 나누고, 각 지역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았다. 반면 설렘과 기대가 있었다. 그때가 딱 그랬다.

든든한 ‘지원’

3~4개월 준비 과정을 거쳐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외형을 갖췄다. 지리산권 5개 지역 남원, 구례, 하동, 함양, 산청 활동가들이 한 명씩 모여 센터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남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를 하나도 모르는 내가 첫 번째 선택한 활동은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에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과 단체를 만나 그들을 연결해서 ‘남원 작은변화포럼’이 탄생했다. 포럼을 꾸리는 과정 중에 막막할 때, 고민될 때, 힘들 때 센터와 의논했다. 센터의 든든한 ‘지원’ 중 하나였다.

남원 작은변화포럼은 특별했다

남원 작은변화포럼은 내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의 첫 지역 활동이었고, 5~6년간 지속된 남원의 첫 공익단체 네트워크였다. 작은변화포럼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이어갔다. 소셜 다이닝, 시의회 모니터링,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시장 후보 정책제안, 여성의 날 기념 행사, 416 세월호 참사 추모식 등. 굵직한 활동들 덕분에 무거운 단체가 되었다. 결국 이 무게 때문에 더 오래 지속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5~6년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났고 지역의 공익 활동을 알아가고 서로 연결되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작은변화포럼은 이후에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끼쳤다. ‘헤쳐 모이기’가 된 것이다.

지역에서 첫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고 작은변화포럼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해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내게 이런 곳이다.

활동비

남원 지역협력파트너로서 6년을 활동하면서 첫 번째 변화는 활동비를 매달 받았다는 점이다. 성과와 결과를 따지지 않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센터는 활동비를 매달 지급했다. 이는 센터와 활동가 사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그동안은 활동비 없이 활동하는 게 일상이었고 활동비를 준다고 해도 일시적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활동비를 받았다. 이에 비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재정적 지원은 작은 변화가 아니고 큰 변화였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익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어 활동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 같은 활동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활동비 지급을 얘기하기 어렵거나, 활동비 얘기가 나왔을 경우, 활동가답지 않다는 시선을 받아야 했다. 센터는 활동가에게 활동비 지급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환기해 주었다.

사람에게 투자

활동비 지원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센터의 방향을 잘 보여주었다. 사실,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모두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말은 한다. 하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사람은 희미해지고 일단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센터는 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매달 지급하였고, 활동비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비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등 활동가 발굴과 활동가의 활동 지원,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연결

남원 지역에서 작은변화포럼을 통해 단체와 사람이 연결될 수 있었고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될 수 있었다. 남원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전혀 몰랐던 내가 작은변화포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작과 과정, 방향과 방법을 함께 의논할 수 있었던 센터 덕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를 찾아가 있을 때,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제안했을 때, 선뜻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센터의 뒷배(?) 덕분이라 생각한다.

따로 또 같이

각 지역 활동은 지역의 특성과 협력파트너의 관심 영역에 따라 달랐다. 청소년 공간, 개발 이슈, 네트워크 형성, 새로운 공동체 조직 등. 활동가들의 주 활동 영역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활동을 다른 지역에서 진행할 때 센터가 중심이 된 네트워크 자체가 도움이 되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고민을 의논하기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협력파트너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응원과 격려를 주고 받았다.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지역의 활동가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였을 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경계를 과감히 수용하는 유연성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 특히 공모 지원사업 선정 시 공익이나, 아니냐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경계에 있는 활동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공익 같고, 저렇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럴 경우 센터의 기준이 궁금했다. 보통의 경우, 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은 보수적 기준을 가지는데,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경우는 달랐다. 이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되면 경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일지라도 과감히 수용했다. 그런 포용력과 유연성이 센터의 특별한 성격 중 하나였다.

다양한 변화 시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라는 이름만큼이나 시스템 자체에도 ‘변화’를 많이 주었다. 공모 사업도 매번 방법을 달리해보고, 활동가를 선정할 때도 사람 수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기록활동을 선정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활동가를 지리산권에서 활동하게 하는 시도를 해보는 등. 심지어 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 이름도 지역협력파트너에서 작은변화활동가를 거쳐 네트워크 활동가로 바뀌었다. 다양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조직이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시도들이 경험이 되어 앞으로 센터의 방향을 잡고 가장 잘 맞는 활동을 찾는 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기록의 중요성

센터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엮었다. 2022년부터는 기록활동을 선정하여 지역의 사람과 활동을 기록하였다. 남겨진 기록을 볼 때마다 우리의 활동이 휘발되지 않고 쌓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작업이었다.

고유의 색깔

센터의 활동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꼭 짙어 표현할 순 없지만, 어쨌든 지리산권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중간지원조직과 비슷하리라 생각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었고 지역의 공익단체와도 달랐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센터의 특징이 모두 합쳐져서 그런 결과를 낳았으리라. 그만그만한 단체 가운데, 독특하게, 다른, 세련된 조직이 있어 좋다.

공간의 중요성

2021년에는 ‘들썩’이란 공간이 생겼다. 공간은 ‘모일 수 있는 곳’이란 의미 이상인 것 같다. 들썩이 오픈하면서 더 자주 모이게 되고 활동들이 축적되는 느낌을 받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꿈꿔볼 수 있게 되었다. 센터가 확실한 센터(center, 중심)가 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센터는 앞서 열거한 특징을 가지고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름대로 ‘지리산’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지원’을 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개인적 견해로는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한 시즌을 마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기대된다.

그리고, 변화의 시간에,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리산권 활동가

활동가라는 말도 몰랐던 내가 지리산이음의 이사?

김한범 / 산청 작은변화활동가 (2020~2024)

라이트노벨이나 애니메이션, 웹툰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세계 전생((異世界 轉生)이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혹은 평범보다 더 모자란 삶을 살고 있던 주인공이 검과 마법의 세계로 전이되어 맹활약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작품마다 다른 설정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인공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서 그를 소환한 신이나 마법사로부터 특별한 능력이나 선물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며 빠르게 성장하여 멋진 동료들의 신뢰를 받으며 마왕을 무찌른다거나 세상의 몰락을 막아내거나 해서 해피엔딩으로 달려간다. 잘 기억해 두시라. 지금 내가 할 얘기는 위와 비슷한 이야기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활동가라는 말

12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것은 교사도 학생도 대상이 되어 버린 학교 교육에 대한 절망과 그 절망이 잠식하면서 스스로 걱정스러울 정도로 흔들린 건강 때문이었다. 잠시 쉬면서 내가 가진 대안을 구체화할 준비를 하다가 산청 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며 느슨한 공동체를 꾸려 신나는 마을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경직된 지역문화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서둘러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산청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응원해 주었다. 그렇게 산청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청소년 공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이것을 하나의 개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 내가 ‘공익 활동’의 세계로 스스로 뛰어든 것을 알지 못했다. 청소년 공간을 준비하면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나는 담당자 직위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 당시 청소년 지원단체 하마의 대표였던 김병준 선생님께서 “직위는 뭐, 활동가지.”라고 정리해 주셨다. 그 활동가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하게 들려서 혼자 몇 번 되뇌었던 기억이 난다.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 활동 아닌 것이 어디 있다고 그런 애매한 호칭을 붙였는가 하면서 남몰래 투덜거리기도 했다.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세계로 전생할 때 내가 받은 선물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고백하건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청소년 공간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얹혀 모임을 갖던 어느 날, 김병준 선생님과 함께 온 사람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활동과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를 얼마나 자주 보게 될지 몰랐던 나는 적당히 흘려두고 있었다. 어둡침침한 조명 아래에서 명분에 대한 딱딱한 단어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 탓에 우리의 모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사업에 지원했을 때 얼마나 성가신 서류작업과 결산을 거쳐야 할지, 돈 내려주는 사람의 갑질을 견뎌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학교에서 경험했던 공모 사업으로 인해 쌓인 편견은 견고했던 것이다.

여긴 조금 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간단했던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면서 여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 공간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보다 세심하게 물어보고, 만들어야 하는 성과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비로 청소년들과 밥이라도 사 먹으며 공간을 직접 만들어 가던 어느 여름,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한창 천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참이라 공사판 같은 현장에 접대할 것도 없는데 불쑥 찾아오겠다니 난감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으로 오시라 했다. 간식을 손에 들고 온 세 사람은 비닐이 깔린 바닥에 그냥 함께 앉아 간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다정하게 물어보았다. 센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지원사업이란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확인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경험은 아니니까. 그 뒤로도 센터는 꾸준한 연락하며 종종 방문하여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면 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도 해서 진심으로 응원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센터에 대한 호감이 충분히 높아졌을 때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지리산 워크숍〉(이하 ‘모떠꿈’)에 초대받았다. 함께 하게 된 자리에는 센터와 긴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었고 그분들은 서로 익숙해 보였다. 나만 혼자 어색한 느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소외되거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술들을 실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던 활동가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더욱이 교사로 지내던 시절부터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화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 관심이 높았던 나에게 〈모떠꿈〉은 맞춤형 워크숍이었다. 다양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고 이후 모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기술적 고민을 〈모떠꿈〉에서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도움이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

그렇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신뢰를 쌓으며 지낸 2년 후, 센터는 나에게 작은변화활동가 역할을 제안해 왔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나는 저항감 없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조금 더 긴밀해졌더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다. 이름처럼 센터는 스스로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지원사업의 형태까지 매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는데 이는 이전 활동의 경험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유연함이 때론 불확정성이라는 불안 요소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관점에서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속한 곳의 작은 변화를 스스로 일으킬 수 있도록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동시에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해 더 다양한 분야의 세밀한 변화 또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느낌이라는 말이다.

지역의 이름을 앞에 건 작은변화활동가들은 그러한 지역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더 친근해

지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곤 했다. 그렇게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센터와 연결된 사람들은 〈지리산 활동가대회〉라는 행사를 통해 또 한 번 크게 연결될 기회를 만나면서 서로에게 자극받고,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활동가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세계와 다름없었다. 전에 살던 세계와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며,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다. 불신과 의심 속에서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출발점으로 생각하던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특별한 힘이 되어 주었다. 나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업들 속에서 빠르게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동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만남과 성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 주었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고 구현하게 도와주었다. 덕분에 넉넉하지는 않으나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활동가로 살고 있으며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 세계에 잘 정착한 것이 아닌가?

2023년을 끝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없지만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해체하지 않았다. 지원금이 없는 만큼 센터의 사업과 지원 범위는 대폭 축소되었지만, 센터의 의지는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지원했던 지리산권의 활동가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는 큰 숙제로 남았다. 금전적 지원이 축소된 만큼 그들을 어떻게 계속 연결하며 연대의 기회를 이어갈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6년간의 활동이 숙제만 남겼는가?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지원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를 인식하게 한 것, 연결될 수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변화들, 지역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들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남았다. 뭣도 모르던 활동가 입문자가 지리산이음의 이사직을 제안받고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수락을 하게 만든 것,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애써 온 ‘사람 지원’의 결과다.

지리산권 활동가

돌아보니,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있어 든든했다

윤주옥 / 구례 지리산사람들 공동대표

지리산의 가치는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되었다. 지리산자락 사람들에게 지리산이 품은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는 국립공원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리산 때문에 내려왔다고, 지리산에 고맙다고, 지리산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리산은 이곳 사람들 삶의 중심이며 자부심이다.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리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지길 바라는 사람들’(우리)은 지리산이 가지는 가치만큼 지리산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리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토건개발업자)은 지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 실상, 이 ‘돈’은 실재하기보다는 ‘가능성’으로 주장될 뿐이다. 토건개발업자들은 지리산을 ‘개발 유보지’-지리산국립공원은 못 생명의 마지막 피난처가 아니라 개발을 위해 남겨놓은 놓은 땅이다-라고 말한다.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해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인다.

1988년 국가의 이름으로 토건개발업자들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동서로 단절하는 성삼재, 정령치도로를 건설하였다. 국가는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 거미줄처럼 많은 탐방로를 만들었다. 국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주민 민원 해소라는 명분으로 국립공원 경계를 이리저리 변경시키고 있다. 국가는 정책과 제도, 인식 등 모든 측면에서 안전하지 못한 지리산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했다. 2004년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으로 지리산은 반달가슴곰 90여 마리가 사는 땅이 되었다.

지리산 개발 반대 운동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리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포유류이며 천연기념물이고 환경부 지정 멸종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되자, 우리 중 일부는 지리산 개발사업은 이제 멈추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국립공원도, 백두대간도, 반달가슴곰도, 그 어떤 제도와 존재도 개발사업을 멈추게 하진 못한다는 게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개발사업의 부리는 토건개발업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내재한 욕망이며 자본주의적 축적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멈추지 않는 개발 욕망은 2024년 현재 지리산에 케이블카 3개, 산악열차 1개, 골프장 1개, 관통 도로 1개 등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지리산이 위치한 5개 시군에서도 많은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실행되며, 모든 건강한 의제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거론되는 ‘1조 4천억’, ‘3천억’, ‘약 1천억’은 주민들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 결국 주민에게 쓰일 교육·복지예산이 개발사업으로 전용

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개발사업이 나가지는 아니어도 지역에는 이익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다. 토건개발업자들은 이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지리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토건개발업자와 일부 정치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에 분노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두가 저항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2008년 지리산자락 구례로 내려왔고, 2010년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를 위한 현장 활동에 참여했고, 우리의 뜻은 완전무결하니 모두가 지지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의 활동은 확장되지 않았고,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했던 시민사회단체조차 우리를 멀리서 쳐다본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좀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싶었으나 우리 앞에 떨어진 일을 허덕이며 쫓기면서 하루를 소비하고 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등장은 신선하고 낯설었다

그러한 때에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다른 언어-예를 들면 작은변화, 협력파트너 등-로 모습을 드러냈다. 독특하고 부드러웠으나 낯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좀 별다른 단체가 하나 생겼나 보다. 우리와의 접점은 없을 거야’ 지리산자락에는 많은 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벤트처럼 잠시 빛났으나 입에서만 회자되기를 반복하니 센터도 그런 단체이지 않겠냐는 마음이었나 보다.

그런데 2018년 시작된 이 낯선 시도에, ‘어느 순간’ 우리도 참여하고 있었다. 센터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지원, 워크숍 등으로 우리는 초대했다. 2020년 나에게도 초대장이 왔다. 지리산시민과학자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표해달라고 했다.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보던 얼굴이 아닌, 노란 머리에 빛나는 눈빛을 가진 청년이 앉아 있던 그날의 풍경은 여전히 선명하다. 이 낯선 사람들에게 나는 지리산시민과학자가 구상나무에 주목하는 이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구상나무 모니터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이야기했다. 그날 다른 발표를 들으며, 이런 일들이 지리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대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일까 어리둥절했다. 그날 구례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 ‘구상나무 모니터링이 궁금하다고, 참여할 수 있냐고.’ 세상에나, 그렇게 간절했던 연결이 발표 한 번으로 이뤄지다니! 센터는 늘 연결하려 노력했고, 그 연결망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신경 썼다.

확장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다

센터의 협력파트너들은 대화하면서 일을 만들어간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상 속 각자의 꿈을 소중히 생각했다. 해야 할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와 함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들으려고 했다. 구구절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센터가 주관한 워크숍, 포럼, 활동가대회 등에 참여하면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이며, 해보고 싶었던 어떤 일들이 실천되어 공유되니 신기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소개했고, 서로의 활동에 고개

를 끄덕였고, 늘 활력이 넘쳤다.

센터는 우리-구태여 지목하자면 지리산지킴이연석회의, 지리산사람들 등-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자상함을 보여줬다. 발표하도록 해줬고, 센터의 작은변화 활동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지리산의 아픈 이야기, 개발사업의 문제점 등을 들으며 눈빛을 반짝였고, 눈시울을 붉혔다. 머리 속에만 존재했던 서로에 대한 지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센터와 지리산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의 지리산운동 <다시 지리산>을 시작하였다. <다시 지리산>은 개발 반대 운동을 넘어서 삶 속의 활동, 물질문명에 저항하는 돌봄과 협력, 연대에 기반한 활동이다. 현장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목표로 지리산운동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길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꾸준히 가려고 한다. 그 길에 함께 한 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센터 활동백서를 보면서, 나는 센터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걸 알았다. 나의 의제에만 빠져있었기에 센터의 움직임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아쉬운 일이다. 지난 6년간 지리산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센터와 관계 맺었던 분들의 노력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센터 활동의 가장 큰 성과물은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우리와 각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은 지리산의 큰 자산이 되었다. 이들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마다 만들어진 공간은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마운 공간이다. 이들 활동가들이 관심 갖고 시작한 일들은 연기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니 이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아름다운재단은 대단한 곳이며,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된다.

그러면서 센터의 지난 6년이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각각의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열매가 맺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다. 센터의 작은 나무들이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다.

한편 6년이 지난 오늘, 센터는 ‘지리산권 스스로가 나서서 지리산 활동가를 지원하는 기금’(지리산활동가기금)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나는 센터가 지리산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방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에, 그 방식의 연장선에서 ‘지리산활동가기금’을 조성하는 일에 나서려고 한다. 센터가 뿌린 큰 씨앗이다.

시민사회 전문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6년

이호 /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2011~2023)

참으로 기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겨우 6년밖에 안 됐어?”라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 온 것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으로 지리산이음의 창립을 멀리서나마 지켜봤고,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창립하기 위한 아름다운재단 연구팀에 참여하면서 센터의 창립 과정 역시 간접적으로나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이음의 감사로 4년 참여하면서, 정기적으로 활동들을 접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데, 그 지원이 2023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재정 기반을 찾아내는 등으로 위축되지 않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공설 시민사회 지원센터들과의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는 시민사회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례이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전에 없었던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몇 년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애초 아름다운재단에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당시만 해도, 이 지원이 지리산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리산이음과 같은 파트너를 찾기 힘들었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역 중간지원조직 건설이라는 막대한 프로젝트가 지속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나름 일정한 성과를 냈고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그 특성을 고려한-을 만들어 준 활동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저 같은 활동가들에게 구체적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의 창의적 힘 - 새로운 사례들을 보여주다

제가 지리산에서 일상을 함께 하며 살지 않았기에,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고민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얼핏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몇 가지 사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원’, 즉 활동가들을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역협력파트너’ 또는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업 활동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활동입니다. 물론, 활동을 위한 사업비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사람만 있다면 사업비 등은 부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 내에서 주로 사업비만 지원받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 활동가의 일상을 지원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업비 지원이 늘어난다 해도, 정작 그 활동의 핵심 주체인 활동가들은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또 지속적인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도 처음 빈민 운동을 위해 빈민 지역에 들어가 살 때, 제가 속한 단체로부터 1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일상생활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활동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예산 낭비 등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활동가를 기대할 수 없고, 이는 우리 시민사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또 한 가지 시사점은 네트워크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사회에도 많은 단체가 있고 대부분의 단체는 상근자를 두고 있습니다. 상근비가 단체에서 나오다 보니, 이 활동가들의 활동은 주로 자기 단체 활동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단체마다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니,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각 단체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네트워킹을 적절하게 매개하고 운영할 만한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작은변화활동가 지원사업>은 네트워크 활동가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매우 유연한 지원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업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공모 사업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 시 하고 싶은 사업만 신청하도록 한 후, 필요한 예산을 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상의해 정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가 큰 곳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지원센터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가장 적절한 공모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 빙그레 미소 짓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발전을 기원하며

저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지금부터 5년, 아니 10년 이상 오래 존재하며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나 기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단일 조직의 긴 수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지원센터들은 하루빨리 자기 소명을 마감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그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잘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이곳에서 (now and here,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해 나가길 기원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위한 재정적 여건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역량과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면, 이는 지리산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센터의 중요한 활동 내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애초 요청받은 기고문 내용은 지원센터에 대한 조언이나 제언 등을 정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는 저로서는 그런 멋진 제언을 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6년간 지리산권과 우리 시민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필요한 만큼 지속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지리산권과 우리 시민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보여 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그 활동의 한켠에 손가락 엮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전국의 변화를 촉진하는 작은변화지원센터

정란아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시민사회 속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하 지원넷)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관설민영(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한), 민설민영(민간이 설립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조직과 그 모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원넷의 운영위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설립된 작은변화지원센터는 관설민영 지원조직(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나서기 어려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관설민영 지원조직, 민간재단에서 일하는 ‘지원러’(지원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활동가들의 별칭) 등이 같이 모여 학습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론장으로서의 〈지원의 전환 워크숍〉은 매년 1회 ‘들썩’에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지리산 센터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사회 리더와 고연차 활동가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전국 네트워크망을 활동가라면 누구나 전국적으로 동료를 만나고,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사업이 〈비영리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6기까지 추진이 되었고 한 기수는 10명~15명이 참여합니다. 지원넷의 공동사업입니다. 기수별 선발, 2박 3일의 워크숍 진행, 공동 채널 운영, 지속적인 교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많은 역할을 지리산이음과 센터가 맡아서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과 지지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활동가주간’을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식탁, 각 지역의 시민사회포럼,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활동가의 인터뷰와 기록 아카이브 등의 활동이 이 주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리산이음과 센터는 예전부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10개 시민사회지원 재단들과 함께 설립한 ‘비영리활동가학교 엿지’의 협력기관이자 주관단체로서 엿지의 3개의 정규학과 과정은 지리산을 캠퍼스로, 들썩을 강의실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음이 운영하는 공간인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은 전국 활동가들의 쉼·학습·네트워크의 전국 거점이자 공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리산이음과 센터의 활동에 주목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청년들은 〈지리산포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팬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변화를 만드는 방법

지역사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지역들이 각자 변화를 만들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몇몇 지역의 좋은 모델이 전체 사회로 확대되거나, 지역이 거점이 되어 사회를 지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이라는 무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의 활동가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센터는 지리산권에서 ‘든든한’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활동가들에게 ‘편한’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은 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지원에 대한 철학을 설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세대, 영역의 경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하여 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지리산으로 초청하고 불러모아 그들의 연결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지리산에 둘러싸인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원가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지리산포럼이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벌어지고 그 활동이 존중받고 지지받는 공간)에서 지리산을 중요한 거점으로 만든 사람들은 지리산이음과 센터의 활동가들입니다. 산내로 들어서는 순간 느끼게 되는 안도감, 편안함, 친근함은 ‘들썩’과 활동가들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의 선이 많아지고 그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기를,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전환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다양한 영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의 상징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라고 스스로를 혹은 타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지역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서울이나 경기 같은 큰 도시에 비해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주력합니다.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상대적 ‘결핍’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지역에 도시의 그 무엇이 더해지는 기획이 많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역의 변화를 사람으로부터 찾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리거나 창조적인 설계를 하는 사람보다 이웃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고, 주민의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무엇을 가져다 마을에 구겨넣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드러내 공동체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혁신이 아닌 일상에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 로컬 그대로그가 돋보이는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무엇을 더 해보고 싶을까?’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돋보이는 작업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를 기대하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고민이 많을 듯 합니다. 걱정도 되고 마음이 조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변화와 임팩트를 점검해보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무엇을 해볼까?’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걱정과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의 웅장함과 뱀사골의 역동성을 닮아가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의 성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아름다운재단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간담회를 마치고

2024년 11월 21일,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이 자리는 작은변화활동가로 참여한 지리산권 활동가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 당시 연구자로 함께한 연구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로, 센터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 오랜만에 만난 시간이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센터를 운영해 온 지리산이음과 아름다운재단도 함께 참여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 짓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지난 6년을 돌아보며 센터가 활동가들의 삶, 지역사회, 지리산권,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비록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센터의 여운 속에서 성과와 한계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간담회는 앞서 실린 각 참석자의 글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면상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4. 11. 21. (목) 14:00 ~ 18:00
- 장소 :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 참석자 : 김한범, 유지선, 윤주옥, 이은진 (지리산권 활동가)
이호, 정란아 (시민사회 전문가)
김누리, 임현택, 채지연 (지리산이음)
박정옥, 최지은, 홍리재희 (아름다운재단)

Q. 센터와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 온 지역 활동가로서 센터가 가진 의미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김한범 / 산청

(센터를 만나기 전) 성가신 서류작업과 결산, 돈 내려주는 사람의 갑질 등의 경험들이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센터는 ‘이런 게 지원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곳이다. 지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준 곳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라고 생각한다. 센터가 신청서류와 정산을 간소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었던 것을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기획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에게 ‘작은변화지원센터랑 한번 해 봐’라고 말할 수 있었다. 서류를 쉽게 만들었다는 것은 활동가

입장에서 서류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센터의 활동을 권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지역사회에 일으킨 변화라고 본다. 지역사회 활동에서는 현대의 분위기, 친밀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다. 사업의 결과나 성과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가끔 허무할 때가 있다. 활동을 하다 상실감을 느꼈을 때, 여기서 느꼈던 어떤 한 대,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함께한다는 동료의식 같은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고, 또 해나가고 싶어 한다.

이은진 / 함양

(센터가 있기 전) 지역의 시민사회와 만나면 ‘여기 시민사회랑 함께하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약간 선불리 뛰어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 소통의 방식이나 활동의 결을 보면, 나 자신이 뛰어 들기에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센터가 있고 나서는 ‘작은변화’라는 새 판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어떤 활동의 언어, ‘나는 이런 걸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또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활동의 무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을 묶는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지리산보다는 ‘시골’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소멸을 말하고 있는 시골 지역 말이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만의 활동, 이런 것들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조금 더 이야기될 수 있었다. 그런 활동들이 서로 힘을 받고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보는 작업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서 네트워크 역량이 많이 개발되었다고 본다. ‘서로 연결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뭐지?’, ‘연결할 때 좀 더 지원을 잘하기 위한 방식은 뭐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결을 통해 우리 안에 쌓였다고 생각한다.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모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의제를 우리 스스로 추진해 보고, 돌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인 모임이라서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의 역할과 쓰임에 대해 센터가 복돋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내가 좀 더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다.

센터의 활동에 아쉬웠던 부분을 덧붙이자면, 처음 5개 시군 현장 조사 연구 조사할 때, 각 지역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딱 나왔을 때의 희열 같은 게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연구나 데이터로 변화를 견인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연구에서 그친 것이 아쉬운 지점이다. 기록 자체가 주는 힘은 있지만, ‘데이터 기록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누리 / 지리산이음

나에게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거의 첫 직장과도 같다. 이 때문에 6년 동안 센터에서 일하며 절반 정도는 이 일이 맞는지 갈팡질팡했던 것 같다. 시민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었고, 관심이 크지도 않았고, ‘남원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크지 않았다. 산내에 잠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사무국 활동가 자리를 제안받아서 어떻게 보면 ‘덜컹’ 시작했던 일이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나 역시 신뢰에 기반해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사람 지원을 받았던 활동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지역에는 센터와의 연결, 교류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남았고, 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마을 관련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지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올해는 좀 지역 활동가에 가까워진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 요새 기웃거리는 지역 내 모임들을 보며 ‘지금 타이밍에 약간의 컨설팅과 지원금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하는 아쉬움도 든다. 그런 식으로 지역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의 지역 활동가 선생님의 입장에 다가갈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냈다.

Q.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어떤 성과와 의미를 남겼는가?

이호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 것이 좋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행정의 제도에 편입된 어떤 지원센터들이 생기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안 좋게 평가한다.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행정의 집행 기관일 뿐이다. 오히려 그런 조직들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가능성이 말살되어 버린다. 그러니 명확하게 얘기하자. 기존의 센터들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센터라고 얘기해야 한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촉진시키고,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을 처음 봤다. 기존에 내가 속했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센터는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의 전체 형태를 보여주었다.

센터가 한 일에 대해 다른 분들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거나 공모 사업을 신청서 쓰고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직접 가서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름다운재단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려면 실무자가 훨씬 더 늘어나야 하는 구조다. 재단은 할 수 없지만, 지역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그 지원하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가라는 점도 굉장히 신선했다. 예전에 빈민 지역에서 현장 활동을 할 때 항상 동료들하고 그런 말을 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 소속되지 않고 지역만 고민하는 활동가가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리산 활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걸 꿈꾸는 활동가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

거기서 핵심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지리산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센터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네

트위크 활동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보통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런 사람, 활동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한다. 그런데 우리 단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하는 곳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사람 중심 지원, 유연한 지원, 연결 중심 지원 등 그 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시민사회 운동에 굉장히 신선한 시사점을 주는 활동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센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역할은 지리산권 네트워크의 구심 역할, 플랫폼이라고 하는 역할이다. 네트워크는 이유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든다. 그것을 할 때 누군가 저 사람들이 무슨 욕구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만나게 하고, 얘기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정란아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뭘까 해서 보니,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변화’라는 것이 이 사업의 임팩트로 정의되어 있더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변화는 뭘까? 지역사회도 아니고 그걸 중심으로 하되 사회 변화를 가져간다고 하는 건데….

사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변화에 가장 관심 있는 그룹들은 요즘 지역의 청년들이다. 20개의 전국의 청년층들을 만나본 상황으로 보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청년들이 작은변화지원센터나 지리산이음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도 대체로 청년 그룹들이다. 지역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미 지리산이음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변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다. 첫 번째는 그냥 각기 지역사회 변화들이 한 100개 정도 만들어져서 사회가 변하는 거다. 지리산은 지리산대로 덕유산은 덕유산대로, 100군데의 지역이 각자 변화를 만들면 사회가 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부족인 상태다. 두 번째는 지역의 좋은 모델이 전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지역마다 너무 고유성과 특수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거주하기조차 쉽지 않다. 지역민들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하고 정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조건인데, 지역의 좋은 모델을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는 지역이 사회 안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사회를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지리산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 사회에 걸쳐 있는 활동가들과 다양한 영역의 기획자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리산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현재 경상권과 전라권에서 지리산이음이 중추적인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센터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이하 지원넷)의 운영위원이다. 센터는 〈지원의 전환 워크숍〉, 〈비영리 커뮤니티〉 등의 사업에서 모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지만 행정의 예산을 쓰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맡기에는 어려운 역할들이 많다. 지원넷 운영이야 지원조직들이 회비를 모아 진행하지만, 민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가 여러 가지 실무를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임현택 / 지리산이음

외부 지원조직들의 경우, 지리산이음과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같은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센터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센터로서 더 부각되었던 부분들도 있었다. 지원넷 안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이 공간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지리산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려 했다. 그러면서 센터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공유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공공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지원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는 민간 조직이니까 가능한 거다’하는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토론회나 이야기 자리가 있으면 센터 사례를 이야기한다. 그런 자리에서 ‘민간이니까 가능해’ 이렇게 치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 지원조직에서 먼저 사례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고, 공공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틀을 조금씩 깨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런 자리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러한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지원넷에 참여하기도 했다.

Q. 앞으로 센터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은진 / 함양

‘작은변화 활동을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언어들을 좀 더 다뤄줬으면 한다. 지리산포럼에서도 작은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언어 안에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파악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이호

조직이 존재하거나 운영을 이어 나가는 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가 존재하다가 더 이상 우리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거나, 필요성은 있지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소진되면 그때는 문을 닫는 게 자연스러운 생태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단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은 그것도 아쉬운 문제이긴 하다.

모금은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의 조직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마련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네트워크 활동가를 지원한 것도 성과지만, 지원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면, 즉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활동가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네트워크 활동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본다. 지리산이음에서도 해본 경험이 이미 있다. 그런 것까지 연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센터 활동에서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지원하고, 돈이 떨어지면 지원 못 하고 이런 거는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반에 대한 고민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다양한 기록 활동을 했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

쉬운 점도 있다. 지역에서 한 조사 사업은 그냥 ‘로우 데이터’에 불과하다. 좋은 주제와 로우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썼다거나, 그 사람들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다. 그 기록을 그곳에 살면서 재해석해서 쓴 문화 인류학의 명저이다. 그 로우 데이터들을 기록했다는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해석하는,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는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면 지리산의 활동이 조그마한 지역의 활동이지만 반향을 크게 일으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란아

저는 시민사회 혹은 전국의 시민사회 지원조직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이 음에 대한 기대가 여기 있는 분들과 좀 다르다. 결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지리산이음이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전환의 담론을 만들고 합의하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사회 전환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이 민간 사회에서 합의되는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다음에 이 지역 안에서 스토리나 기반 시설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장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슨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서 혁신을 하기보다는 그냥 농촌의 일상, 변하는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 농민들의 지위나 일상이 좀 변하고 농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일상이 변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에 지속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센터의 활동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도 센터장님이 이후를 걱정 하셨길래 센터는 다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센터의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나 토론을 체계적으로 해보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센터의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되었다. 각 지역 활동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유지선 / 남원

기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남원 작은변화포럼’이라고 공익단체 전체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5~6년 동안 지속을 했고 센터의 지원이 종료되는 해에 같이 닫았다. 그 시기에 남원 작은변화포럼이 너무 특정 주제 없이 그냥 네트워크에 집중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역의 모든 일이 여기에 집중되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탄소중립 시민 네트워크’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거기에 기존 남원 작은변화포럼의 3분의 2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사업의 하나로 지원받은 함께활동에서는 지역의 의제를 하나 정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해보았는데, 그때 남원 지역 프로젝트가 ‘쓰레기 없는 시민 장터’였다. 그 장터 프로젝트를 올해 두 번을 더 열었고, 내년에도 이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센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역에서 이어받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은진 / 함양

함양에도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가 있다. 사실 어느 시기부터는 각자의 일이 바빠서 네트워크 모임이 활성화되기보다는 ‘모여서 그냥 정보를 나누자’ 정도로 되고 있다. 연초나 연말 정도에 모여서 우리 각자 뭐 했는지 하는 것들을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발굴됐던 활동 중, 거버넌스로 연결된 사례가 좀 있다. 예를 들면 토종씨앗 모임을 했던 팀들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수업에 들어갔다. 센터를 통해 무언가 첫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지원사업을 받고, 자료집도 만들고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간 사례이다.

함양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무언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책방 ‘오후공책’을 열었던 팀은 그 안에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자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활동들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다시 모여서 뭔가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애기해 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좀 같이 모여볼까?’하는 시기가 올 것 같다.

윤주옥 / 구례

(작은변화활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나, 센터에 결합했던 활동가들이 지역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농민회를 제외한다면 구례에는 3개의 활동 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리산사람들’이 한 축을, ‘느긋한쌀빵’과 ‘두루다살림장’, 그리고 ‘순환가게 선물’이 한 축을, 마지막으로 ‘산책도서관’과 ‘봉성신문’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세 축 모두 센터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다. 모두가 구례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주체가 됐다는 것은 센터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내가 속한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 현장에서 보전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현장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들을 센터와 지리산사람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지리산운동 〈다시 지리산〉이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모임에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리산운동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있는 담론도 무너진 세상에서 어떻게 지리산운동의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도 지리산에서 살고, 지리산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모임과 활동을 한다면, 담론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더 모일 것이고, 운동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지리산〉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 줄기를 잘 찾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지리산사람들의 임무라고 여겨진다.

산책도서관은 구례 도서관운동의 힘으로 탄생시켰는데, 도서관으로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례주민들은 행정에서 짓고 관리하는 두 개의 도서관에 이미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책도서관은 공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간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 특히 봉성신문에게는 든든한 자리가 되었다. 아쉬운 건 산책도서관 관리주체(사람)가 분명히 없다보니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구례 공동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느긋한쌀빵과 두루다살림장, 그리고 순환가게 선물은 구례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구례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센터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다. 목표했던 새로운 형식의 지역생협을 만들지는 못 했지만,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센터가 구례에서 수행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결합했던 사

람들이 지역의 요소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구례에서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함께활동의 최종 목표대로 지역 생협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주체들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것, 이것 역시 큰 성과이다.

김한범 / 산청

작은변화란 사실 피부에 와닿는, 당장 내가 직접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 자체도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정도 지원금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만들어졌고, 센터는 직접적인 지원금 배분 형식은 아니더라도 지역 활동을 하며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하고 싶을 때 컨설턴트의 역할로서 여전히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청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불편한 지원체계를 가진 공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같이 해 보자!’ 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힘이 생겼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센터와 함께 일했던 청년들이 그 변화의 구심점이다. 실례로 올해 1억 원 정도 규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다. 현재도 잘 진행 중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업을 하고 있어 바쁘지만, 서로 할 일을 나눠가며 하고 있다.

또 지역 활동을 할 때 산청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산청 활동에 하동에 있는 활동가를 초대해 강사로 함께하는 것처럼 지역을 넘어서 연결을 이어가고 있다.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마지막 해에 진행했던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의 지역별 함께활동과 〈지리산 활동가대회〉를 한 해 정도 먼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이게 한 해만 더 일찍 시작했었다면 뭔가 올해도 같이 해보고 내년도 같이 해보면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2023년 이벤트처럼 모여서 한 번 해보고 ‘안녕’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함께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작년에 생긴 ‘산청 작은변화네트워크’는 실질적 활동 인원은 많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고 있다. 실낱같지만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뭔가 기회가 있으면 함께 뭉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안부를 묻으며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순경 / 하동

하동에서는 센터의 공모 사업 덕분에 촉발되었던 제로웨이스트 모임이 ‘모두의 가게’로 이어졌다.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 사지 말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는 취지로 시작한 ‘모두의 가게’는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에, ‘문턱 낮은 사랑방 역할을 하며 재미난 일도 이것저것 해보자’는 욕심까지 더해 출발했다. 공모 사업을 하며 만났던 분들이 가게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고 크고 작은 일에 함께하시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동네 사람들의 왕래다. 8명의 사장들이 각자의 생업이 있어 욕심껏 일을 벌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서 좀 더 많은 이웃들이 드나들고 이야기 나누는 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6년간 센터가 부지런히 한 일이 ‘발굴과 연결,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없어진 지금,

다소 ‘활력 없이 뿔뿔이’인 느낌. 각자 자기 영역에서 ‘존버’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원래 그랬으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저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고 심심하다. 센터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즐거운 ‘부추김’ 말이다.

지역에서 ‘좋은 일’하며 살려고 애쓰다 보면 매몰되고 웅졸해진다. 그런 걸 센터가 많이 어루만져줬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줬다. 서당 개도 삼 년이면 읍는다는 풍월을 내가 흥내라도 내볼까? ‘오! 하동’이 변화의 싹들을 찾아보고 조명해 볼까? 그런 생각만 하다 1년이 갔다. 흥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작은변화라는 말의 애매함에도 주저하지 않는 실험정신, 열정, 전문 인력들. 센터의 부재가 섭섭하다.

그래도 지역은 굴러간다. 원래 그랬으니까. 조금 재밌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가게’ 식구들과 하동주민신문 ‘오!하동’, ‘하동참여자치연대’와 함께 작은 즐거움 만드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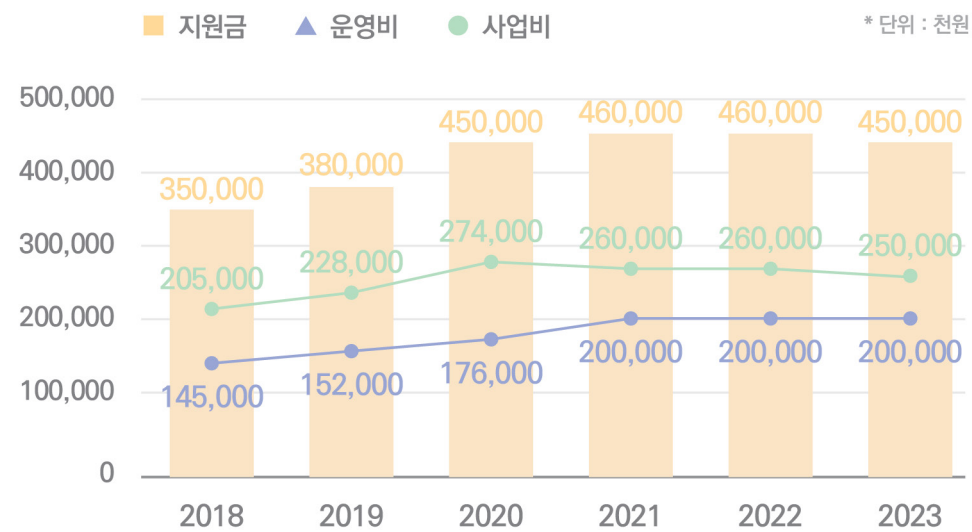
* 이순경 활동가는 개인 사정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지 못해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함.

3. 아름다운재단의 회고

쉽지만은 않았던 도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리산이음은 지리산 지역 5개 시군 시민사회를 직접 만나 활동을 펼친 반면,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재단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약 4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6년 동안 총 25억 5천만 원 규모로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센터 활동가의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등 센터의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리산이음은 센터 운영과 지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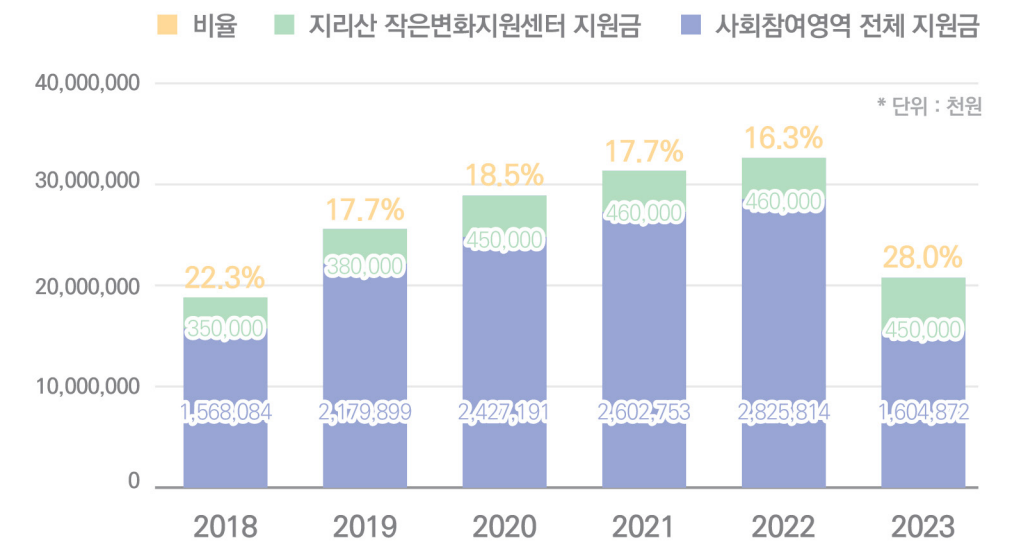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지원 규모*

실제로 이처럼 큰 규모의 지원금은 재단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외에도 재단은 시민사회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6개의 다른 사업(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변화의물꼬, 유스펀치, 공익단체인큐베이팅지원사업, 공익단체인프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총 연간 예산이 약 7억 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매우 큰 액수였다. 게다가 재단은 중간지원조직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지역 시민사회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도전적인 작업을 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지역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 2020년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썹' 준공을 위한 지원금 200,000,000원 별도

지역 시민사회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수도권 중심의 기존 시민단체만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단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역으로 향하자'는 가치를 내걸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사회참여영역 기금 (출처 : 아름다운재단 2018 ~ 2023 연차보고서)

재정적 지원 외에도, 센터 설립 초기에는 센터 운영과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센터가 문을 연 첫해에 1년 동안 오랜 시간 재단의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설립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재단 간사 한 명을 파견했다. 이 간사는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센터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며, 사무국이 자리 잡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재단의 파견 인력은 지리산이음과 재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두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목적과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동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 위원회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운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구였다. 재단에서는 센터 지원사업 담당자, 담당자가 속한 팀장 및 국장, 사무총장이 참여했고, 지리산이음에서는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 구성원이 참여했다. 비록 물리적 거리는 있었지만,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운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센터 운영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노력했다.

도전에서 얻은 성과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6년의 도전 과정에서 얻은 성과도 적지 않다. 아름다운재단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그로 인해 쌓인 자산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1. 지역에 대한 이해

아름다운재단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설립되기 이전에도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시민단체의 연간 프로젝트를 단발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를 깊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6년 동안 5개 시군 시민사회를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 활동가부터 모임, 네트워크, 단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지리산이음에 비하면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6년 동안 5개 시군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센터 설립 전, 재단이 지역 시민사회를 바라보던 시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진행된 지역조사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를 기존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하여 협소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부족하거나 활동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역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가, 모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존재들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역 활동의 의제와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센터 설립 초기, 5개 시군에서 다루는 활동 의제는 대부분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 기후위기, 여성, 자원순환, 차없는 거리, 지역장터, 지역생협 등 다양한 활동 의제가 등장했다. 앞서 언급한 2017년 지역 현장 조사 당시, 지역 시민사회는 수도권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과 거리가 있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6년 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제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며, 일상적이고 지엽적으로 보이는 주제들 속 더 깊은 의미와 맥락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 요소와 활동 방식, 의제의 다양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를 보다 다층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재단이 지원해야 할 시민사회의 범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가를 지원하는 것도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금, 그리고 현실

재단은 지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비와 공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속 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금 전문 기관으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센터 초기 설립부터 모금을 통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고, 센터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재정적 구조까지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센터 사무국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단이 모금 구조 마련에 필요한 역량과 재원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재단은 작은변화지원센터 설립 초기, 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모금 구조를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센터 운영비 모금은 물론, 자립을 위한 모금 구조 마련도 미루어졌다.

또한, 지역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모금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인구가 적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에서는 기업기부나 개인기부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그나마 있는 자원 대부분은 공공의 자원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 또한 모금을 어렵게 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단은 모금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고, 지역 시민사회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재단에게 아쉬운 성과로 남았지만, 지역의 모금 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재단의 모금 역량을 시민사회와 어떻게 공유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찾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모금에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센터의 유연한 지원방식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유연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활동 주체와 의제를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엄격한 규정이나 조건에 얽매이기보다는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지원을 펼쳤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재단은 기부금에 대한 높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꼼꼼한 지원사업 관리에 주력해 왔다. 그러다 보니 센터의 유연한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센터는 지역 활동가들과의 밀접한 소통과 참여 방식의 모니터링으로 유연한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작은변화활동가 활동비 지원이나 영수증 증빙 없는 정산 같은 실험적인 방식은 활동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단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유연한 지원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재단은 이번 경험을 통해, 반드시 영수증 증빙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재단의 규모나 역할을 고려할 때, 센터처럼 실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지원의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재단은 더 많은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4. 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역할

센터를 통해 배운 경험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조직으로서 ‘지원’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관 주도의 중간지원조직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단이 가진 특수성과 시민사회 내에서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재단은 지리산이음과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 〈지원의 전환 워크숍〉에 참여해 전국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재단이 가진 ‘인내자본’과 ‘유연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 지원에 있어 재단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재단은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더 많은 지원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갈 예정이다.

4. 지리산이음의 회고

지원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지리산이음에게도 지원조직 운영을 맡는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이전까지는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무국 구성원들 역시 지원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으며, 지원 사업을 받아본 경험과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따라서 센터 운영 초기에는 이러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산권에서 대안적 공동체를 일구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역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접점은 부족했다. 지리산이음 자체 프로그램에 지리산권 활동가들이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거나 공동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없었다.

그럼에도 지리산이음이 지원조직의 첫 번째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산권 지역 활동을 발굴하고 연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름의 의미와 잠재적 확장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지리산이음의 출발점인 산내마을의 공동체적 가치와 대안적 활동 모델이 지원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였다.

지리산이음이 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조직으로서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조직으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아름다운재단은 센터가 문을 연 첫해에 간사 한 명을 파견해 1년 동안 실무적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무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간사는 단순히 실무를 돕는 것을 넘어 센터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두 기관의 목적과 방향을 일치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지역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원사업의 핵심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사람 중심의 유연한 지원 방식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센터 운영의 주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리산이음은 또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지역 현장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를 수행한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주요 주체들과 연결되었다. 이 과정은 센터가 지원조직으로서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조사에 참여한 지역 활동가들은 이후 협력파트너로 함께하며 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작은변화와 시민사회 생태계의 성장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리산에서 펼쳐지는 ‘작은변화’를 지원해 왔다. 작은변화라는 단어는 친근한 어감 속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동시에 그 구체적인 정의가 모호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작은변화는 단순히 소규모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변화는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포괄하며, 정치

적이는 일상적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시민사회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변화와 같은 ‘큰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 권력 감시나, 권리 옹호와 같은 활동이 뚜렷하고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민사회 활성화라고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러나 변화의 목적이 큰 변화를 향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든 예외 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만으로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듯이 큰 변화의 흐름에도 새로운 시도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센터는 변화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리산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시도와 작은변화가 쌓여왔다.

센터는 또한 이러한 작은변화와 개별 활동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그 연결은 개별 활동의 성장과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장의 ‘연결 중심 지원’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당위성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연대는 활동가의 역량을 소진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연대 방식보다는 새로운 활동의 주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새로운 연결의 판을 만들어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활동 주체들과 논의해 왔다. 지역에서 하나의 대오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연대 방식이 아닌, 다양한 펼쳐지는 연결이 시민사회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센터는 이러한 연결 방식의 활동을 최대한 집중해서 지원하려 노력했다.

센터 운영에 남는 아쉬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조직을 설립하고자 한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공익 활동에 있어서도 심각하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비록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지만, 지리산권에서 공익 활동의 저변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고는 자신하기는 어렵다. 센터를 설립하던 시기에 문제로 인식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시민 활동에는 시민들의 동력이 불붙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온 과제이자, 현재진행형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 센터는 지원조직으로써 자립의 길을 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리산권의 변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 그리고 변화의 경험이라는 훌륭한 자산이 쌓인 것은 사실이다. 아름다운재단이 계속해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금 마련을 하지 못했다.

센터 차원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펀딩이 추진되어, 별도의 기금을 통해 〈논발생활백과〉아카이브 사업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리산 작은변화 커뮤니티공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 마련되기도 했으며, 그 외의 온라인 펀딩을 통한 기금 마련의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지는 못했다. 부족한 사무국 인력으로 기금 마련까지 추진하기에는 힘에 부친 것이 사실이다. 또, 지역 현장에 밀착하는 운영구조를 유지하면서 기금 마련에까지 여력을 내기는 어렵다고 후순위로 남겨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금 모금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내내

아쉽다. 규모 있는 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센터가 주도하는 모금의 경험조차 충분히 쌓지 못한 것은 센터가 평가에 있어 가장 아픈 지점으로 남는다.

센터 이후 지리산이음의 과제

지리산이음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리산포럼, 워크숍, 인터뷰 콘텐츠 제작 등 여러 방식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주제 또한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젠더 불평등 문제, 지역 로컬 이슈 등 긴급한 사회적 과제부터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장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며, 작은 변화를 지원하고 키워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리산이음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시민사회 생태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지난 6년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도 지리산이음은 사람, 연결, 변화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복합적인 기대와 역할을 담고 있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유지하며 활동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센터의 활동을 통해 쌓아온 사람과 연결의 경험, 변화의 시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선, 지리산이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내 마을에서부터 사람, 연결, 변화의 가치가 새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산내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와 대안적 활동은 지역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리산이음은 이곳에서의 활동 경험이 지리산을 넘어 전국을 연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산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리산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리산권에서는 특히 연결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전처럼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겠지만, 연결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점을 모색하며, 개별 활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리산이음은 전국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해 갈 것이다. 지리산이음의 ‘이음’에는 지리산의 사람과 활동을 연결하는 것과 지리산에서 사람과 활동을 연결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지역 안팎의 사람과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리산에서도 좋은 영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남원 사업 기획 워크숍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하동 사업 기획 워크숍



2023 구례 커뮤니티 탐방



2023 하동 커뮤니티 탐방



2023 <지리산 활동가대회>



부록 지원사업 세부 내용

1. 활동가 지원 영역

2.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1. 활동가 지원 영역

① 지역협력파트너 및 작은변화활동가 활동 현황 (지역별)

▶ 구례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정태연	• 지역협력파트너 (2018년~2019년)	• 지역 현안 대응 활동 : ‘구례 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탄압 관련 지역 시민사회 대책위 활동 (2018년), 한 부지 두 도서관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 (2019년), 봉성산 환경 이슈, 문척교 건립 관련 대책위, 섬진강 홍수 관련 대책위, 산동면 지리산 골프장 문제 대응 활동 (2021년~2023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구례살림연구회’ 활동 : 구례군 의회 방청 및 예산 감시 활동 (2018년~2023년)
강은경	• 네트워크활동가 (2022년~2023년)	• 섬진강 관련 활동 : 구례 수해 이후에 섬진강의 물 대책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섬진강을 더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함 (2022년~2023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산책도서관’ 조성과 운영 : 2019년 구례 좋은도서관모임이 구례 5일장 근처에 작은도서관 ‘산책도서관(산보고책보고)’을 개관함. 이와 관련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와 활성화를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함. (2020년~2021년)
차승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지역 생협 기반 만들기 : 한국의 대표 생협 공단이 있으나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감은 부족한 구례의 지역적 상황 속에서 지역 생협의 기반이 되는 로컬 매장을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감. 2023년 함께활동을 통해서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 (2021년~2023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느긋한쌀빵’ 운영 : 한국의 대표 생협 공단이 있으나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감은 부족한 구례의 지역적 상황 속에서 지역 생협의 기반이 되는 로컬 매장과 쌀빵집을 오픈하고 운영함. (2021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두루다살림장’ 운영 : ‘느긋한쌀빵’ 앞 마을 공터에서 로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커뮤니티 장터를 통해서 생협의 기반을 다져가는 활동을 함. (2021년)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이신지원	• 기록활동가 (2022년)	• 영상 기록 활동 진행 (총 18편)
		• ‘생태텃밭, 그들이 있었어야 할 공간을 돌려주는 것’, ‘작은 것들을 위한 기후정책’, ‘봉성산이었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음식과 사람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장터’, ‘중심이 아닌 것들을 파는 가게’, ‘외롭지 않은 환경운동가’, ‘그와 반달가슴곰은 이번 겨울을 어디서 날까?’ 등
문현경	• 기록활동가 (2023년)	• 글 기록 활동 진행 (총 13편)
		• ‘구례의 작은변화? 지구의 날 어린이 기후행동에서부터!’,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골프채는 두고 오세요’, ‘만족할 줄 아는 당신이 바로 아나키스트, 지역 장터에 부는 대안 경제의 바람, 두루다살림장’, ‘드디어, 구례에 자원 순환 공간이 생겼다!’ 등

▶ 남원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유지선	• 지역협력파트너 (2018년~2019년)	• ‘남원 작은변화포럼’ 결성 및 운영 : 센터 설립 이전 남원 지역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대 조직이 없었음. 느슨하면서도 지역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기반해 서 ‘남원 작은변화포럼’을 결성하고 운영함. (2018년~2022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남원시의회 모니터링단 운영 :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참여에 기반하여 남원 시의회의 회기 기간 중 의회 모니터링을 실시함. (2019년)
	• 네트워크활동가 (2022년~2023년)	•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 코로나 기간에 실시된 21대 총선 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돕기 위해 온라인으로 국회의원 후 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함. (2020년)
		• 지자체 선거 정책 제안 : 2022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남원시 장과 시의회에 대한 평가 설문과 욕구 조사를 통해서 정책 제안 서를 만들고, 시장 후보자 간담회를 진행함. (2021년~2022년)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의 남원‘함께활동’을 통해서 자전거 및 보행도로 조사, 식당 및 카페 일화용품 실태조사, ‘쓰레기 없 는 남원 시민장터’를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함. (2023년)
김양오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친일 화가가 그린 춘향 영정 교체 캠페인 : 남원의 상징으로 간주 되는 춘향 사당에 걸려있는 춘향 영정이 친일 행적이 있는 화가 의 작품임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영정 교체를 요구하는 시민활동 을 만들어 감. (2020년~2023년)
	• 기록활동가 (2023년)	• 기후위기 남원 시민모임 : 남원 시내 나무에 설치된 야간 경관 조명 장치 철거 활동과 남원 산악열차 설치 반대 운동에 활발하 게 참여함. (2020년~2022년)
		• ‘해오라기 바윗굴 주민모임’ 운영 : 노암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1년)
		• 글 기록 활동 진행 (총 12편, 2023년)
		• ‘국내 최초 남원 여성 농악단’, ‘정명희 교수의 남원춤’, ‘비너루 없는 점빵’, ‘귀정사 사회연대실험터 10주년 행사 기록’, ‘남원 청 년들의 지금 여기_ NOWWON’ 등
장소영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 3월~5월)	• 면 단위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산내면의 청년 활동가 •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활동 후 종료함
김정미	• 기록활동가 (2022년 5월~6월)	• 남원시농민회, 도시재생센터, 남원문화원, 남원시공동체지원센 터 등 지역 활동을 지원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인터뷰함. • 개인 사정으로 2개월 활동 후 종료함

▶ 산청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김병준	• 지역협력파트너 (2018년)	•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 운영 : 단체간 네트워크가 부족했던 상 황에서 산청 내 단체와 활동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 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 크를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함. (2018년)
		• 난민, 이주민 연대 활동 :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한국어 교실, 지역사회 나들이 활동 등 난민 이주민 활동을 중심이 되어 진행함. (2018년)
		• 이주민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자, 1년의 활동 후 지역협력파트너 역할을 마무리 지음.
김은영	• 지역협력파트너 (2019년)	• 산청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모임 운영 : 새롭게 만들어진 산청 읍의 청소년 공간 ‘명왕성’, 시천면의 ‘모하노’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함. (2019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목화장터’ 운영진 활동 : 산청의 대표적인 대안 장터인 ‘목화장 터’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장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 파렛트 놀이터 사업을 진행함. (2019년~2021년)
		• ‘지속가능산청발전네트워크’ 참여 : 지역의 환경 등 지속가능성 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는 ‘지속가능산청발 전네트워크’에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감. (2020년 ~2021년)
김한범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3년)	•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 코디네이터 활동 : 지역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9년 ‘명왕성’ 공간을 만들고 코 디네이터로 활동해 왔음. 청소년 자치에 기반한 공간 운영을 위 해 ‘청소년 꿀알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자치 운영진 구성과 활 동을 만들어 나감. (2019년~2023년)
		•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운영자 네트워크 : 산청 ‘명왕성’, 구례 ‘홍당무’, 남원 ‘룰루랄라’, 함양 ‘빈둥 청소년 기획단’ 등 청소년 공간 운영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 이고 교류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감. (2021년~2023년)
		•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친화적인 지역장터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의 대안장터인 목화장터와 말랑장을 지역 활동가 들과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의 산청 ‘함께활동’으로 운영 함. (2023년)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이종혁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뒤편 옥탑방’ 운영 : 지역 한의원에서 열어 준 공유공간을 지역 공동체 활동과 청년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0년~2021년) • 청년들의 ‘몰래산타’ : 청년과 함께 지역 내 소외계층과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몰래 산타’ 프로젝트를 운영함. (2020년~2021년) • 청년들의 커뮤니티 모임 운영 :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진 시기, 온라인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활동함. (2020년~2021년)
	• 기록활동가 (2022년~2023년)	• 글과 그림 기록 활동 진행 (총 28편) • ‘산청 시천면 해미와 우옹’, ‘다 같이 모이면 어려운 것도 재미있지’, ‘아름답고 말랑한 것을 찾아서 – 덕산 말랑장’, ‘다시 돌아온 소소한 인터뷰 – 청년농부 이견해’, ‘그 동안 산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등

▶ 하동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이순경	• 지역협력파트너 (2018년~2019년)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네트워크활동가 (2022년~2023년)	• 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 하동군 악양면의 공유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하교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공간을 조성함. (2018년) • ‘하동 작은변화네트워크’와 ‘월간하동사람들’ : 지역 내 개발 및 환경 파괴 이슈가 많아지면서 지역 활동가 및 당사자들과 ‘작은 변화네트워크’ 모임을 만들고, 관련 이슈를 영상으로 다루는 ‘월간하동사람들’을 제작하고 운영함. (2019년) • ‘하동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활동 : 하동군이 추진한 지리산 형제봉 일대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응하는 대책위를 꾸리고 저지 운동을 진행함 (2020년~2022년) • 하동주민신문‘오! 하동’창간 : 지역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공부모임을 진행하면서 월간지 형식의 지역 신문을 창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 (2022년~2023년) •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하동 ‘함께활동’을 통해 하동 갈사만 산단의 자연 복원을 준비하는 지역활동을 진행함. (2023년)
배혜원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월간하동사람들’ 콘텐츠 제작 : 지역의 환경 개발 이슈를 다루는 영상을 담아 ‘월간하동사람들’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동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 활동을 함께하며 영상으로 문제를 알려내는 활동을 함. (2020년~2021년) • ‘지리산게더링’ 운영 : 지리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기후위기와 탈성장, 생태전환을 실현하는 캠프를 기획하고 함께 운영함. (2020년~2021년) • 영화 <선상지> 상영 :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리산권 사람들과 서울 청년들의 장편 합작 영화 <선상지>, <양수 발전소와 하동 사람들> 상영회를 구례, 하동, 남원에서 진행함. (2021년)
이정희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진교면 여성들의 글쓰기 모임 : 지역 여성들과 자신의 사회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는 모임을 운영함. 지역 작가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는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인 문집을 발행함. (2020년~2021년) • ‘아이(i)날다’ 활동 : 매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모임으로, 코로나19 기간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물 나눔과 크리스마스 산타 활동으로 지역 어린이들을 만남. (2020년~2021년) •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누리농장’ 활동 :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공동텃밭을 조성하여 함께 농사짓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감. (2020년~2021년)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팀 옥동 (오주옥, 나은동)	• 기록활동가 (2022년)	• 글 기록 활동 진행 (총 17편) • ‘오늘도 꿈가방 메고 공부길 나선다’, ‘노량실버타운 최미순 분회장’, ‘쓸모를 탐구하는 삶, 정진이’, ‘봄바람 순례단과 길동무들이 만난 다른 세상을 향한 외침들’, ‘청년스타트업 다른파도 박승아, 권경민’ 등
	• 기록활동가 (2023년)	• 글 기록 활동 진행 (총 12편) • ‘의미 없는 의미를 찾아서 – 제1회 체력 없는 체육대회 참가기’, ‘한 번의 결혼식을 치르려면 마을 하나가’, ‘동동제가 되고 싶은 동동이, 하동이네’, ‘기다렸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동네책방의 탄생 – 이런책방’,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 수진’ 등

▶ 함양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이은진	• 지역협력파트너 • (2018년~2019년)	•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 결성 : 지역 활동가들과 정기적인 모임, 워크숍,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활동의 성과로 함양 작은변화 네트워크 모임을 결성함. (2018년) • 주민 주도 문화 강좌 운영 : ‘까페빈둥’ 공간을 기반으로 ‘슬기로운 마을탐구’, ‘문화로수다방’ 등의 주민 주도로 기획한 연속 문화 강좌를 운영함. (2019년) • 2020년부터는 함양 교육지원청의 학부모활동 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활동가 지원사업 참여는 마무리 지음. 청소년 활동 공간 네트워크 모임, 지리산 축진자 이야기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작은변화활동을 이어나감.
김찬두	• 작은변화활동가 • (2020년~2021년) • 네트워크활동가 • (2022년~2023년)	• 함양 ‘문화놀이장날’ 운영 :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놀이, 마켓 플랫폼으로 지역 장터를 만들고 운영함. (2020년~2023년) • 주민 주도 커뮤니티 활동 운영 : ‘까페빈둥’ 공간을 기반으로 ‘문화로수다방’, ‘우리동네 하루 배움터’, ‘책으로수다방’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2020년~2022년) • 서하 사회혁신공간 조성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함양 서하면 LH 주택단지예 마을 카페와 청년 공간, 레지던스 공간을 운영함. (2022년~2023년)
김현임	• 작은변화활동가 • (2020년~2021년)	• ‘다함께사이좋은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백전 초등학교 방과 후 마을학교의 모델을 함양에 확산하기 위해 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진으로 참여함. (2020년~2021년) • ‘온배움터’ 공간 활동 : 백전면의 대안 대학 ‘온배움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학교의 아지트 공간을 만들고, 전환기술 교육 및 전환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 텃밭과 목공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0년~2021년)

활동가명	지원사업명	주요 활동 내용
최홍성미	• 작은변화활동가 (2020년~2021년)	•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 : 지역 공동체의 노력으로 지자체가 조성한 행복안의봄날센터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공동육아, 돌봄, 방과 후 마을학교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감. (2020년) • ‘어디든 놀이터’ 프로젝트 운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아이들과 숲놀이, 밭줄놀이, 자연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0년) • ‘건강한 밥상’ 요리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여성 양육자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1년)
	• 기록활동가 (2022년~2023년)	• 글 기록 활동 진행 (총 29편) • ‘문화놀이장날, 서하다움 매니저 정은경’, ‘마을학교와 학교 경계 넘나들며 활동하는, 조영선’, ‘정주하는 노마드, 김지은’, ‘가 보지 않은 길 위의 여행자, 해수’, ‘오래 기억될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 슬렁슬렁 동네 탐방’,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나무들의 죽음’ 등

▶ 프로젝트 활동가 지원사업 (2022년)

활동가명 (팀명)	프로젝트 내용	지역	사업비 (원)
이화영, 이채연	구례의 대안장터인 두루다살림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직거래 시스템 구축등의 활동을 진행함.	구례	5,000,000
구례넝쿨컬렉티브	지역 내 대안적 공간을 중심으로 작은 넝쿨 음악회를 개최함.	구례	5,000,000
현관앞비상배낭	구례 홍수 2년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재난 후 회복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집을 제작함.	경주	5,000,000
장병관	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남원의 사회연대센터를 알리고, 숲 치유 예술제 행사를 개최함.	남원	5,000,000
이로운궁리	하동 1호 제로웨이스트숍을 오픈하고 관련된 워크숍과 캠페인을 운영함.	하동	5,000,000
쥬행단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지구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는 탈탄소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약 캠페인을 진행함.	구례	5,000,000
구디로그	청년 장애인 활동모임의 지리산 여행을 통해서 지리산권 무장애투어가 가능한지 실험함.	전주	5,000,000
정푸른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함.	산청	5,000,000
이재영	지역 행사 현장에 어린이 모험 놀이터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함.	산청	5,000,000

② 활동가 지원 연계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연도별)

▶ 2018 지역 의제 지원사업

지역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남원	남원 작은변화포럼 소셜다이닝	매월 정기적으로 식사하며 지역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를 만 드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통해 남원의 단체 와 활동가들의 정기적인 네트워크인 ‘남원 작은변화포럼’을 결성함.	3,500,000
	남원 시민정치학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 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학교를 기획 하고 운영함.	2,500,000
산청	청년 요양원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지역 청 년들이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2,500,000
산청	이주민, 난민 한국어 교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주민, 난민 한국어 교실 수업을 위해 교육 재료를 구입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 함.	1,000,000
산청	산청에도 청년이 있 다 프로젝트	독서 모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청년 모임이 청년 공간을 조성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공간 오픈 후 옥상영화관, 오픈 독 서모임, 퇴근 후가 즐거운 그리는 책 프로그램을 운영함.	5,900,000
하동	악양 청소년 공간 조 성 활동	청소년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악양면에 청소년 공간을 조성함.지역에 청소년 공간을 조성함.	7,000,000
함양	함양 작은변화네트 워크 활동	공동체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함양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의 제를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함양 작은변 화네트워크’의 기반을 만들.	2,000,000

▶ 2019 지역 의제 지원사업

지역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구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도서관 건축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모 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직접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함.	8,000,000
	남원 작은변화포 럼 운영 사업	의회 모니터링단과 지역 모임들의 저녁식사 소셜다이닝을 운 영함. 기획 강의를 통해 정치, 경제, 환경, 예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11,000,000
산청	산청 어린이 놀 이터 조성 사업	룰루랄라 놀이터, 목화장터 팝업 놀이터 등 아이들이 모험하 며 놀 수 있는 나무 파렛트 놀이터를 조성하고 운영함.	2,500,000
산청	산청 청소년 공 간 지원사업	산청에 자발적으로 조성된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의 난방 시설 및 청소년 필요 물품 마련	2,500,000
하동	하동 작은변화 포럼 운영	지역 개발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 대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함.	1,630,000
하동	월간하동사람들 유튜브채널 운영	지역 내 개발 및 환경 이슈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 해서 널리 알려내기 위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 채 널을 통해 연속 공개함.	5,000,000
함양	함양 작은변화 네트워크 운영	‘슬기로운 마을 탐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양한 마을 사례 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어른들을 위한 방 과 후 놀이터 ‘문화로수다방’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으 로 다수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8,000,000

▶ 2020년 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구례 지역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	‘산책도서관’, ‘홍당무작은도서관’, ‘다무락작은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서관 관련 정책 마련과 조례 제정 등을 위한 논의와 협의체를 만들고,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동아리 모임과 연합 축제를 기획, 운영함.	4,000,000
남원	남원 작은변화포럼 총선관련 시민 정책활동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들어 ‘남원 작은변화포럼’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운영함.	4,000,000
산청	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크 원탁회의 및 분과모임 활동	‘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크’ 안에서 의제별 다양한 분과모임을 활성화하여 분과 안에서 지역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원탁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 발굴된 의제와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함.	4,000,000
하동	월간하동사람들 인터뷰와 콘텐츠 제작 활동	유튜브 채널 ‘월간하동사람들’을 통해 하동에 사는 사람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으며 2020년에는 특히 청년과 이주민에 주목함. 산악열차 개발 이슈가 떠오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	4,000,000
함양	문화로수다방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네 강사를 발굴하고 다양한 배움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이어지는 프로그램 ‘문화로수다방’을 운영함.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강사가 되고, 주민이 학습하는 순환적 관계와 함께 문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자생적인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4,000,000

▶ 2020년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지원사업

지역	활동가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정태연	과거 활성화되었던 ‘지리산학교’를 다시 시도하기 위해 지리산학교 교사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2,000,000
구례	강은경	‘산책도서관’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지킴이들의 네트워크와 역량 강화 및 섬 프로그램을 운영함.	2,500,000
구례	차승아	‘느긋한살뺑’ 중심으로 지역 생협 공간 만들고, 정기적인 대안 장터인 두루다 살림장을 기획하고 운영함	2,000,000
남원	유지선	2019년 진행된 남원 시의회 모니터링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단체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공부와 모임을 운영함.	2,000,000
남원	김양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함께 남원 역사와 인물을 알리는 글쓰기 모임을 운영함.	1,450,000
산청	김은영	‘어린이를 생각하는 산청 부모 모임’을 조직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함.	1,700,000
산청	김한범	청소년 자치 공간 ‘명왕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꿀알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함.	2,000,000
산청	이중혁	산청군 신안면의 옥탑방을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진전시, 책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00,000
하동	이순경	하동군의 산악열차, 모노레일 설치 계획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함.	3,500,000
하동	배혜원	지리산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과 사람들을 기록하여 영상 콘텐츠로 제작함.	2,000,000
하동	이정희	진교면에 거주하는 40대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글쓰기 정기 모임을 조직함.	2,000,000
함양	김찬두	지역문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하고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함. ‘함양 청소년 문화기획단’ 활동을 시작함.	2,000,000
함양	김현임	백전면 ‘온배움터’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마실방 ‘온다방’을 만들고,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텃밭, 건축, 목공등 작업형 모임과 워크숍을 진행함.	2,000,000
함양	최홍성미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저녁밥상 모임을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여 모두를 위한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감.	2,000,000

▶ 2021 작은변화활동가 씨앗기금 지원사업

지역	활동가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정태연	수해 이후 섬진강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섬진강 TV’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함.	1,500,000
구례	강은경	‘산책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운영진의 공부 모임과 워크숍을 진행함.	2,500,000
구례	차승아	‘느긋한쌀빵’을 중심으로 대안 장터 ‘두루다살림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일상적인 공유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운영함.	1,000,000
남원	유지선	지역 커뮤니티 공유공간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함.	1,000,000
남원	김양오	‘남원 작은변화포럼’ 시민단체 소모임 지원사업과 이야기모임을 운영함.	4,000,000
산청	김한범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의 영상, 사진 등의 스튜디오 환경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3,000,000
산청	이종혁	산청의 청년들과 온·오프라인 모임을 꾸준히 운영하고, 연말에는 어린이를 위한 ‘몰래 산타’ 활동을 진행함.	1,000,000
하동	이순경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한 ‘하동참여자치연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하동 지역 신문을 만들기 위한 기획모임을 운영함.	3,000,000
하동	배혜원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지리산권 청년과 수도권 청년들의 장편 합작 영화 <선상지>를 상영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야기자리를 만듦.	1,000,000
하동	이정희	진교면 여성 글쓰기모임 ‘연연하다’ 활동의 하나로 글쓰기 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문집을 발간함.	1,000,000
함양	김찬두	소셜 리딩 클럽 프로그램 ‘책으로수다방’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모임을 새롭게 리빌딩하는 활동을 진행함.	3,000,000
함양	김현임	재활용 물품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워크숍과 생태 텃밭을 활용한 전환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함.	2,400,000
함양	최홍성미	어린이와 양육자가 채식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지리산권	김한범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로의 공간을 탐방하고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3,000,000

▶ 2022 지역 의제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지역	활동가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정태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함. 지역 생협의 구성을 위한 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함.	2,000,000
남원	유지선	‘남원 작은변화포럼’이 지역사회에서 대중적인 행사로 어린이극 상영을 추진하고 포럼의 날 행사를 운영함.	2,000,000
산청	김한범	정기적인 산청 활동가 모임을 운영하고, 확대해서 산청-함양 활동가 모임을 운영함.	2,000,000
하동	이순경	하동 시민사회 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함.	2,000,000
함양	김찬두	함양 ‘까페빈둥’ 공간을 청년과 청소년 친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 개선사업을 운영함.	2,000,000
지리산권	김한범	지리산권 청소년 공간 운영자 네트워크의 정기적인 모임과 학습, 청소년 축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함.	3,000,000
지리산권	유지선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지리산 시민문화제 ‘우리들의 지리산’ 프로그램을 운영함.	2,500,000
지리산권	김찬두	‘924 기후정의행진’ 지리산권 참여단을 모집하고 행진에 참여함.	1,500,000

2. 활동 및 의제 지원 영역 (연도별)

① 2018년

▶ 2018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남원	학부모연합 동아리 ‘따신밥’	지리산의 작은 학교인 인월, 산내, 운봉, 아영중학교 양육자들이 연합 동아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상 교육을 진행함.	3,000,000
	오랑오랑	남원 원도심 지역에서 공간 기반으로 활동하는 3명의 청년 활동가가 일상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함.	3,000,000
남원	시민공감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멤버십 정책 학교를 운영함.	3,000,000
산청	산청약초통밀 학교	로컬 농산물을 활용한 빵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나눔 행사를 개최함.	3,000,000
산청	목화장터나눔회	지리산권의 대표적인 대안장터인 ‘목화장터’ 운영진들이 배움을 얻고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3,000,000
산청	간디어린이학교	산청 소재이지만 지역 밖 학생이 많은 간디어린이학교에 산청 지역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3,000,000
산청	산청군농민회	농민회 회원을 넘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민회를 활성화함.	3,000,000
산청	하마	산청 지역 청소년 공동체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운영함.	3,000,000
함양	봄(BOM, Big One Mide)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명상, 치유 글쓰기, 춤과 연극 등 마음 수업 운영을 운영함.	2,550,000
함양	안의사랑마을 공동체	‘안의사랑마을공동체’를 만들면서 진행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고, 양육자들이 더 가깝게 연대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함.	3,000,000
함양	함양 2030 책모임	책을 매개로 시작된 함양 청년 모임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책 외에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2,200,000
함양	나무아래계절	마을의 경계를 넘어 지역 영유아 어린이들을 함께 키우는 프로젝트,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육아맘, 육아아빠되기’ 등을 진행함.	2,642,000

▶ 2018 작은강좌 지원사업

지역	단체(모임,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구례살림연구회	‘우리동네 예산 꼼꼼히 들여다보기 강좌’를 통해 구례의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쓰이는지 공부함.	1,000,000
남원	남원아이쿱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남원 시민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미숙 작가를 초대해 ‘고전에서 찾는 몸과 마음의 인문학’ 대중 강좌를 진행함.	1,000,000
남원	(사) 밝은마을	북을 매개로 교류하고 배우는 북놀이 교육을 통해 운봉면을 넘어 남원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였고 전국적인 3.1 운동 100주년 행사에도 참여함.	1,000,000
남원	자연놀이터 그레	‘자연 순환 빗물프로젝트 워크숍’을 통해 물과 민주주의, 지구를 살리는 빗물의 비밀에 대한 강좌를 듣고 실습형 빗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1,000,000
남원	남원시민 공공디자인단	‘남원시민이 도시 건축과 공공디자인에 대해 공부하는 작은 강좌’를 통해 타 지역의 공공 공간 사례에 대해 공부함.	1,000,000
남원	행복명상	스스로를 치유하고 수련하는 명상과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함.	1,000,000
남원	함께걸어좋은길	협동조합 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동조합과 노동3권 등을 공부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강연을 진행함.	1,000,000
산청	숲속새마을 작은도서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산청 새로 삶 디자인’ 연속 강좌를 운영함.	1,000,000
산청	어린이도서연구회 산청지부	어린이책 작가를 만나 강연을 듣고 어린이들을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1,000,000
하동	하동생태해설사회	자연물로 만들기, 과학 마술 등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활동의 폭을 넓히는 생태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함.	1,000,000

▶ 2018 작은조사 지원사업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엄O윤	다무락마을 폐교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을 위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함.	1,000,000
남원	김O연	2017년부터 산내면에서 운영된 ‘지리산 청년활력기금’의 확장성을 위한 과제연구의 일환으로 자료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1,000,000
남원	정O영	남원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임대아파트인 ‘남원 1차 부영아파트’ 임차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첫 동별 대표자회의를 운영함.	1,000,000
남원	서O희	남원 시민 입장에서 남원의 주거 유형을 조사하고 그 안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남원 주거의 흐름과 앞으로 필요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1,000,000
산청	김O영	산청지역 놀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기 위한 지역 주민 인터뷰를 진행함.	1,000,000
산청	김O범	산청지역 청소년 인식 및 생활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진로와 진학, 스트레스, 청소년 지원과 보호, 인권 의식 등에 관해 조사함.	1,000,000
하동	김O민	섬진강 지역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인 보성강 지역의 수생식물을 조사하고 섬진강의 수질 정화 가능성을 연구함.	1,000,000
하동	최O주	걸음으로 걷는 악양 생태길 조사를 통해 악양의 27개 마을을 연결하는 걷는 길 지도를 만들.	1,000,000
함양	김O경	안의초등학교 및 안의 어린이집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함.	1,000,000
함양	이O인	백전면 농사모임의 ‘풍년새우 논’에 서식하는 생물 58종, 식물 24종을 조사하고 생물 관찰기록물을 만들.	1,000,000

▶2018 지리산권 공통의제 지원사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지리산 시민사회 포럼	지리산권에서 활동해 온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지리산 시민사회포럼’을 지리산 생명연대 주도로 개최함.	1,000,000
지리산 NO DAM 축제	지리산댐 백지화가 선언된 원년인 2018년에 댐 대상지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치를 개최함.	1,000,000

② 2019년
.....

▶ 2019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좋은도서관 모임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사와 설문작업을 진행했고, 인근 지역 6개의 도서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함.	2,000,000
남원	산내놀이단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당극 극단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판소리, 민요, 전통춤 강좌를 진행함.	2,000,000
남원	작은목수들	인드라망 공동체의 공유공간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짓기 위해 설계, 내부 인테리어, 집모형 골조 만들기, 난방-에너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안주택 탐방 워크숍을 진행함.	2,000,000
산청	방정환 하늘학교 교육연구모임	팝업 놀이터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함. 2일간 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팝업 놀이터를 진행함.	2,000,000
산청	하마	산청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을 개소하고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들과 함께 타 지역 청소년 공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2,000,000
산청	목화장터나눔회	지역 내 대표적인 대안장터인 ‘목화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함. 운영주체들의 공부모임인 ‘목화장터나눔회’의 워크숍을 진행함.	2,000,000
산청	산청군 농민회	농민회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어린이 농사 체험 소모임, 여성회원모임 ‘별노래’를 운영함.	2,000,000
하동	하동생태해설사회	회원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만드는 연속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 회원이 강사로 참여하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2,000,000
함양	함양토종씨앗모임	함양 지역의 토종씨앗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을 받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백전면과 서백마을을 중심으로 토종씨앗을 모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함.	2,000,000
함양	안의사랑마을 공동체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의 식생태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초록꿈틀학교’를 운영함.	2,000,000
함양	함양시민연대	함양군 의정과 예산 감시를 위해 의정 참여 실천단을 꾸리고 의회 모니터링 활동과 교육활동을 진행함.	2,000,000

함양	함양 마을교육 공동체 준비모임	함양 지역 마을교육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 마을교육에 대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께할 구성원들과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함.	2,000,000
	함양 문화단체 함양, 문화, 사람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묶어 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함. 창작물 낭송회를 진행하고 시집 <할말은 많지만 부끄러바서>를 출판함.	2,000,000

▶ 2019 작은강좌 지원사업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담백	구례에 사는 여성들과 퍼머컬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함.	1,000,000
구례	북시터 공부모임 ‘책노리’	도서관에서 아이 키우기,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를 주제로 전문가 강좌와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함.	1,000,000
남원	두목회	새롭게 생긴 마을도서관인 ‘주천면 작은도서관’에서 강사와 함께 독서 토론을 진행함.	1,000,000
남원	문화기획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치유를 위한 타로 프로그램 ‘자기탐구생활’을 진행함.	1,000,000
남원	해오라기 바윗골 마을모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행복 충전 음악놀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산청	산청군농민회	산청 여성 농민들을 위한 마음 열기, 내면 탐색, 관계맺기, 꿈꾸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산청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산청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산청	삼장, 시천 학부모 모임	‘성평등한 부모 & 시민되기’를 주제로 지역 학부모 워크숍을 진행함.	1,000,000
산청	목화장터나눔회	‘산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사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산청	숲속새마을 작은도서관	산청군 시천면, 삼장면 여성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생활 강좌를 진행함.	1,000,000
하동	하동생태해설사회	생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기획 방법론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함.	1,000,000
하동	악양부모모임	마을의 숲을 이용한 숲놀이 교육을 운영함.	1,000,000
하동	아이(i)날다	일상적인 어린이 친화 활동을 위해 보드게임 강좌를 진행함.	1,000,000
함양	함양토종씨앗모임	토종씨앗 농사 사례 교육을 받고 견학 프로그램 운영함.	1,000,000

▶ 2019 작은조사 지원사업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반달곰 친구들	생태통로와 로드킬 조사를 통해 본 야생동물 길의 실태를 조사함.	1,000,000
구례	구례다움 연구회	구례군 청년 현황 및 실태조사와 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함.	1,000,000
남원	도공디회	남원지역 특히 구도심지역의 빈집을 조사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함.	1,000,000
산청	숲속새마을 작은도서관	산청군 삼장면/시천면 거주 여성의 문화 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모임의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함.	1,000,000
산청	황O홍	산청군 선주민과 귀농 · 귀촌인의 소통을 위해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조사함.	1,000,000
함양	풍년새우는 조사모임	함양 ‘풍년새우 논’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함.	1,000,000

▶ 2019년 청년 모임 지원사업

지역	단체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남원	작은자유	‘작은일 만들기’를 통해 농사, 목공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동료 만들기’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골살이를 모색하는 ‘비전화기술 워크숍’을 진행함. 손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전화제품과 햇빛식품 건조기를 제작함.	3,000,000
남원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남원 청년들이 민주주의적 토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교류회를 진행함.	3,000,000
산청	산청에도, 있다	청년 공간 기획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진행함. 지리산 권 청년 단체와의 교류 및 독서 모임, 사진 모임 등 소모임을 운영함.	3,000,000

▶ 2019년 청소년 공간 지원사업

지역	단체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남원	가온누리	인월고등학교 동아리로, 스마트폰으로 마을들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마을 기록을 담은 포토북을 제작함. 통영 문화여행을 직접 기획, 운영하며 우리 지역에서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변화를 상상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함.	3,000,000
	산청	하마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에서 필요한 일을 청소년들에게 의뢰하거나,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계획하여 알바 형태의 실질적인 보상과 연계하는 '꿀알바 프로젝트'를 진행함. 교과 학습 도우미, 기타 레슨 등의 교육 활동과 청소, 물품 제작 등 34건의 '꿀알바'를 진행함.
산청	모하노	자발적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요리, 책 만들기, 문화연구,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동아리들이 영화 상영, 콘서트, 장터, 보드게임 축제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3,000,000
하동	우악청소년's	스마트폰으로 기획, 촬영, 편집 과정을 배우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 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사화와 발표를 통해 공유함.	3,000,000
함양	물음느낌표	함양읍 '카페빈둥'을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카페 운영자 워크숍을 진행함. 이를 통해 '청소년 놀까페 빈둥' 프로그램을 만들.	3,000,000

▶ 2019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산청	모하노 토론동아리	동아리들의 토론 캠프를 진행함.	500,000
산청	생태보전 낚시 동아리	낚시를 통해 생태보전 활동과 지역 생태 환경 돌보기 프 로그램을 진행함.	500,000
산청	머꼬보자	동네 맛집을 탐방하고 후기를 남김.	500,000
산청	간식여행	친구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부산 간식 여행을 떠남.	500,000
하동	하이쏘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과 놀아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500,000
산청	전투(전주투어)	전주 여행을 통해 친구들과의 추억과 여행 경험을 쌓음.	500,000
함양	도담도담	청소년 시절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영상으로 남김.	500,000
남원	김노정최	진로와 관련한 경험 쌓기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함.	500,000
남원	응가파워!!!!!!!	6인 6색 친구들과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함.	500,000

③ 2020년
.....

▶ 2020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구례아이교육공동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를 배우 고 실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3,000,000
	구례특공대	매월 구례 청년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테마가 있는 토크쇼를 진행하고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함.	3,000,000
남원	놀이와 놀이터 남원시민모임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자연 속 공간 을 조사하고 공유함.	3,000,000
남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리산 여성회의	관객 참여형 여성주의 연극공연을 열고, 마을 내 유흥업소 이용 실태와 의식조사를 진행함. 강의와 토론을 통한 여성 혐오적 문화 성찰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함.	3,000,000
남원	산내자전거작업장	안전과 지구를 지키는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함.	3,000,000
남원	오순도순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는 자녀와의 소통방법을 공부함.	3,000,000
산청	우리다가치	성인기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 조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함.	3,000,000
하동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누리농장'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모여 친환경 농사를 짓고, 탐방, 교육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토대를 다짐.	3,000,000

▶ 2020 작은강좌 지원사업

지역	단체(모임)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자연스레-자연농	자연스레 농사짓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연농 농법을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운영함.	1,000,000
	남원	자연놀이터 그레	하천 조사를 위한 하천 모니터링과 현장기록 방법, 하천 주변 동식물에 대해 배우는 교육을 진행함.
남원	한생명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 배우고, 일상에서 재밋고 만만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활동을 진행함.	1,000,000
남원	시민공감	민관 거버넌스 시도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 정책에 관한 기초 교육을 진행함.	1,000,000
산청	숲속새마을 작은도서관	도서관 내 중국어 소모임에서 주도적으로 작은 강좌를 열어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배우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1,000,000
함양	수아랑	그림책 강의와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낭독이 주는 기쁨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관계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1,000,000
남원	산내면농민회	농사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에 대한 학습할 수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남원	피어나	실크스크린 판화를 활용하여 천과 종이에 일상 소품을 제작하는 교육을 진행함.	1,000,000
산청	보태니컬 아다지오	일상에서 허브를 활용하는 생활용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함.	1,000,000
산청	천사11	에코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지리산의 일대의 풀과 나무, 잎을 담은 소품 제작 교육을 진행함.	1,000,000

▶ 2020 작은조사 지원사업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조O라	지리산의 여성 하이커 영상 인터뷰 제작 과정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이커들을 재조명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곤란함에 대해 알아봄.	1,000,000
구례	안O자	탐조 활동과 조사를 통해 구례의 새 지도를 만들.	1,000,000
구례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구례 길들에 관한 보행 실태조사와 문제점 정리 후 군민 의견을 듣는 설문과 대안 마련을 위한 소통자리를 마련함.	1,000,000
남원	조O은	마을 인근의 수공예 작업자들을 찾고 작업기술과 경제생활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함.	1,000,000
남원	자연놀이터 그레	상반기 전문적인 하천 조사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내면 인근의 금강수계상류 수질 상태와 생물 종류 조사 활동을 진행함.	1,000,000
남원	작은자유	지역을 떠난 청년을 만나 왜 떠났는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살기 좋은 산내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사업만 진행함.	100,000
남원	애벌레 공작소	야간등화를 통한 채집활동으로 기존 곤충 생태 변화, 외부 유입된 곤충의 종류와 개체 수 및 특성 등을 조사함.	1,000,000
산청	산청 이야기 카페	산청의 숨겨진 스토리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에게 산청을 소개하는 여행자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함.	1,000,000
산청	산청군농민회	지역 내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지역별 실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함.	1,000,000
산청	청소년 프로그램 조사단	청소년 활동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프로그램을 조사함.	1,000,000

▶ 2020 작은모임 지원사업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예비농업인 귀 농, 귀촌 탐색이 야기	구례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예비 귀농인의 모임을 통해 귀촌 선배들의 경험과 사연을 듣는 모임을 진행함.	500,000
남원	지리산유튜버	지리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지리산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함.	500,000
남원	오! 이런 밥상이!	한 달에 한두 번 비건요리를 만들면서 비거니즘을 알리고 먹 거리와 윤리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 하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남원	게미	마을 어르신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남원	손길 가는대로 드로잉	마을 청년들이 모여 그림을 함께 그리고 담소를 나누는 모임 을 운영함.	500,000
남원	가족수공예모임 -가족향기	가족공예를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 는 모임을 진행함.	500,000
산청	페이스 드로잉	단순한 선 굵기를 넘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함께 그림을 그리고, 꾸준히 그릴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산청	그리고, 칠하고	그림 모임을 통해 평소 지나쳤던 사회적 문제를 한번 더 생 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	500,000
산청	그리:고	문화활동에 갈증을 느끼는 귀촌 청년 4명이 모여 그림을 그 리고, 영화를 보며, 밥도 먹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산청	잘놀자	함께 고른 보드게임을 플레이해보고 활용 방법, 특징, 추천 평 등을 담은 후기를 SNS에 발행함.	500,000
산청	새로잇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순환의 필요성과 방법을 모색해보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산청	어쩌다보니 산청	귀농 귀촌한 사람, 할 사람이 모여 로컬 문화를 소개하는 영 상 콘텐츠와 굿즈를 제작함,	500,000
하동	지리산 꼬메르	야생화를 그리고 수를 놓는 모임을 운영하고 전시로 연결함.	500,000
하동	보드클럽	보드게임의 재미를 깨우치고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양 육자 모임을 운영함.	500,000
함양	신심풀이	스스로 몸을 살피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이론과 실 천을 배우는 모임을 운영함.	500,000
함양	화요 자수 모임	남녀노소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서로 배우고 알려주는 자수 모임을 진행함.	500,000

▶ 2020 네트워크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함양토종씨앗모임	지역에서 수집된 토종씨앗과 토종종자, 모종, 수확물들을 중심으로 지리산 권의 토종씨앗운동을 위한 활동을 추진함. 지리산권 장터를 중심으로 교류와 네트워크, 관련 활동을 진행함.	4,000,000
지리산 시민과학자포럼	지리산의 기후변화를 기록하는 시민과학자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수달친구들’, ‘반달곰친구들’ 단체와 함께 시민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아고산 생태 조사와 연구작업을 진행함.	4,000,000
지리산게더링	지리산권 청년들이 모여 기후위기, 산업사회가 갖는 여러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대안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한 모임으로, 생태적 기술 워크숍과 캠프 등을 운영하며 관련 활동과 네트워크를 조직함.	3,500,000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남원 ‘더나은교육을상상하는부모모임’, 함양 ‘빈둥협동조합’, 함양 ‘안의사랑마을교육공동체’, 함양 ‘다함께사이좋은마을학교’, 구례 ‘구례아이교육공동체’ 등 지리산권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고민하는 단위들이 모여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함.	1,600,000
기후위기 지리산 비상행동	급변하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지리산 생태와 사람들이 함께 생명 중심의 실천적인 삶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자치연대 활동을 진행함.	3,000,000

▶ 2020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지역	단체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홍당무	구례 ‘홍당무’ 청소년 공간을 지키는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운영진 모집, 멘토 강의,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3,000,000
	모하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 기획 축제, 청소년 장터, 미니 강의, 영화 감상 등의 활동을 진행함.	3,000,000
함양	빈동협동조합	지리산 ‘문화놀이장날’ 청소년 기획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네트워크와 성장을 지원함.	3,000,000

▶2020 긴급지원 수해복구 지원사업

지역	단체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지리산사람들	구례군 수해로 인해 오일장 일대를 비롯 많은 점포와 집,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는 수해가 발생함. 긴급지원을 통해 오일장에 위치한 산책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지원 공간, 물품지원 등을 진행함, 관련 지원금은 섬진강 수위 조절 이슈와 수해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시스템의 정책적 대응에도 활용되었음.	3,000,000
남원	남원시농민회	요천강을 중심으로 수지면, 노암동 등에서 수해 재난 상황이 발생함. 관련 지원금은 수해 복구와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활용됨.	2,000,000

④ 2021년
.....

▶ 2021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남O인	동물권과 복지를 이야기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구례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활동을 함.	3,000,000
구례	구례살림연구회	예산감시 기초강좌와 예산감시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감시 모델을 개발함.	3,000,000
구례	홍당무작은도서관	공간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아지트의 활동을 이끌어 갈 계기 마련을 위해 산청 ‘명왕성’의 모델처럼 다양한 ‘꿀알바’ 프로젝트를 진행함.	3,000,000
구례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구례군의 탈탄소교통정책 재계획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구의 날을 기념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운영함.	3,000,000
구례	지리산인	종이신문 발행의 재정적 어려움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지리산인’의 인터넷신문을 전환하기 위한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과 전환을 위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함.	3,000,000
남원	남원 역사연구회	춘향제를 처음 만들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기생 최봉선의 이름을 알리고, 춘향제가 시대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포럼을 개최함.	3,000,000
남원	오순도순 사회적협동조합	지체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물건을 직접 사는 과정을 연습하고 실제 상점에서 실습을 해보고, 방학에 스스로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일상을 보내는 캠프를 진행함.	3,000,000
남원	오O덕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미디어 활동에 대한 실제 수요와 욕구를 확인하고 발표회를 가짐.	3,000,000
남원	나눔꽃	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옷들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야기와 옷으로 전시회를 개최함.	3,000,000
남원	삼반인작당	다양한 성 정체성, 성 지향성이 존중받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면 단위 퀴어축제 ‘산내 성다양성대축제’를 개최함.	3,000,000

산청	우리다가치	발달장애인 청년들과 함께 스포츠와 위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로 한 걸음 나서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함.	3,000,000
산청	모하노	청소년 기자단을 꾸려 워크숍과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들이 산청에 살면서 겪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담아내는 소식지를 만들.	3,000,000
산청	정O른	9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산청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집하는 조사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똑같은 무게의 사람으로 어린이를 배워가는 강연과 이야기 모임을 운영함.	3,000,000
하동	김O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걷고, 뛰고, 산을 타고, 자전거를 타며 쓰레기를 쬐는 활동을 통해 하동의 자연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청년 네트워크를 조성함.	3,000,000
하동	악양글벗학교 소다사 그림여행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익숙한 자연을 어른들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3,000,000
하동	하동 제로웨이스트 연구회	제로웨이스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함.	3,000,000
함양	박O숙	함양읍을 중심으로 보행 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걷기’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진행함.	3,000,000
함양	아이토피아로 오세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입주한 초보 귀촌인들이 텃밭을 함께 가꾸고 공동 돌봄의 문을 여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역에 오래 살아 온 선주민들과 이야기모임을 진행함.	3,000,000

⑤ 2022년
.....

▶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교육/학습 분야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남원	권O현	여덟 차례의 강의를 통해 마을 아이들과 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춤과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짐.	2,000,000
남원	기후정의 예산학교	남원에 한정 짓지 않고 지리산권 시민, 청년, 행정가들이 매월 1회 모여 예산 강의와 일상 시정 모니터링을 진행함.	2,000,000
남원	도공디공회	‘자세권’(자전거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도서를 선정하고 발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답사와 토론을 진행함.	2,000,000
남원	아동청소년쉼터 롤루랄라	청소년 스스로 <롤루랄라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이고 학습함.	2,000,000
산청	민들레	한 달에 한 번 격월간 교육지 <민들레>를 다 같이 소리 내서 읽고,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교육과 어떻게 접목하고 연계해 나갈지 논의함.	2,000,000
산청	이충미술관	산청 주민과 지리산권의 누구든 함께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일 파스텔과 색연필을 주재료로 일러스트 드로잉 수업을 진행함.	2,000,000
산청	함께평화	평화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제를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영화 4편을 상영하고, 소녀상 기림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와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의 장을 열.	2,000,000
하동	반디	어린이들을 위한 인문학 그림책 독서 모임을 통해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또 타인의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2,000,000
하동	소다사 시화 여행	악양글벗학교 어른들이 3년간의 글과 문학의 이해와 2년간의 그림 수업을 통해 다져진 실력을 더해, 나와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함.	2,000,000
함양	박O미	동네 어른신과 젊은 다문화 가정 엄마들과 함께 인형 작가를 강사로 초대하여 2주에 한 번씩 인형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만든 인형을 마을 도서관에서 전시함.	2,000,000
함양	마을 전환을 위한 공부모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부모임에서 열린 강좌 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주제들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	2,000,000

▶ 2022 작은변화 공모 지원사업 - 조사/콘텐츠

지역	단체(개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지리산사람들	남생이를 비롯한 양서류 및 파충류 생태관찰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열고 남생이 생태관찰을 진행하여 지도를 제작함.	2,000,000
	문O경	생태텃밭 교육과정을 일정별로 기록하고, 마을교사를 위한 안내 자료, 공부와 학습 내용을 정리한 기록집을 제작함.	2,000,000
남원	김O오	‘소리보살’ 명창 이화중선의 자료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출판 작업과 연계함.	2,000,000
남원	김O승	지역에서 창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인터뷰하고 영상 콘텐츠로 제작함,	2,000,000
남원	오순도순 사회적협동조합	남원시의 발달장애인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육구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진행함.	2,000,000
하동	같은파도	하동 시장 상인 대상으로 인터뷰와 사진 기록을 진행함.	2,000,000
하동	꽃보다 할매	하동 ‘할매’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동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담은 그림책 작업을 진행함.	2,000,000
함양	산들친구들	산야초 지식을 배우고 천연 제품과 식품을 만드는 워크숍을 열고 산야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함.	2,000,000
함양	함양토종씨앗 모임	토종씨앗 조사 대상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씨앗 파종과 수확 과정, 기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펴냄.	2,000,000

▶ 2022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봄)

선정자	소속단체명	지원금 (원)
조O승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500,000
배O리	화성환경운동연합	500,000
정O실, 박O연	불모지장	500,000
강O웅, 천O라	우리문화숨결	500,000
박O정	(사)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500,000
박O애	(사)철암세상 철암도서관	500,000
박O염, 이O민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500,000
박O현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500,000
박O민, 한O망	한국성폭력상담소	500,000
이O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500,000

▶ 2022 지리산 워크스테이 지원사업 (가을)

선정자	소속단체명	지원금 (원)
박O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400,000
김O혜, 홍O기	참여연대	600,000
류O희, 김O정	(사)함께크는여성울림	600,000
이O미, 김O정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600,000
심O주	재단법인 부산형사회연대기금	400,000
정O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사)들꽃청소년세상	400,000
이O하	사단법인 피난처	400,000
임O실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400,000
오O비	팝업플레이 서울	400,000
이O솔	한국YMCA전국연맹	400,000
장O현, 김O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600,000
허O은	녹색연합	400,000

⑥ 2023년

▶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함께활동

지역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구례지역 생협 디딤돌 모임	구례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구례지역 생협의 디딤돌을 놓는 사업으로 '두루다살림장' 활성화, 생협 공부모임 운영, 소비자 생산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함.	8,000,000
남원	기후위기라고 함께 외쳐!	기후위기 시대 지역 주민들이 실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식당, 카페 등의 일회용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공동 캠페인, 지역환경축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함.	8,000,000
산청	지역 문화장터 활성화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대안장터 '목화장터', '말랑장'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	8,000,000
하동	갈사만 재자연화를 위한 마을탐구	20년째 산단 조성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 갈사리 6개 마을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활동을 진행하여 이를 책으로 엮음. 화력발전소, 표류하고 있는 산단사업, 여수 화학단지, 광양 포스코를 마주하고 있는 갈사 지역 등을 영상에 담음.	8,000,000
함양	시민연결을 위한 생태계 구축	함양 지역의 공익활동 모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이야기모임을 운영함. 교류 및 학습과 자원 순환 에코 캠페인 등을 진행함.	8,000,000

▶ 2023 작은변화 탐험대 지원사업 - 따로활동

지역	선정자	프로젝트 내용	사업비 (원)
구례	김O리	자원순환 정책 연구와 소비를 줄이는 의생활, 옷 수선법 알리기 활동	800,000
구례	문O경	구례 초등학교 지구의날 행사 진행	800,000
구례	박O주	'섬진강 산책단'을 통해서 섬진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함.	800,000
구례	신O	구례에 있는 지리산의 산줄기와 물줄기를 답사하며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발굴함.	800,000
구례	구례살림연구회	예산 관련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공론장을 조성함.	800,000
구례	지리산사람들	성삼재 도로의 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살아 온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자료를 추적함.	800,000
구례	구례군농민회	416 세월호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사회단체와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함.	800,000
구례	정O연	섬진강 둘레 길의 쉼터 공간을 조사하고 구간 쉼터를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함.	800,000
남원	남원아이쿱생협	활동가와 엄마라는 타이틀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영상과 숲 거닐기, 동네 골목건기 등 쉼 프로그램을 진행함.	800,000
남원	서O희	지역의 이야기를 동화로 기록한 김양오 작가의 동화책을 게임 콘텐츠로 제작함.	800,000
남원	안O연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집단 상담 등 업무공간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편안한 대화모임을 진행함.	800,000
남원	시민공감	시민공감의 주사무소를 이전하며 시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리빌딩하는 작업을 진행함.	800,000
남원	아영아꿈부모회	아영면 학생 기자단과 함께 즐거운 마을 놀이 문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함.	800,000
남원	이O구	'소소하게 작은집'을 주제로 갈치마을에서 워크숍을 진행함.	800,000
남원	룰루랄라	룰루랄라 청소년 자치동아리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진행함.	800,000
남원	살래장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는 장터 '살래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800,000
산청	함께평화	지역 주민들과 평화 감수성 워크숍을 진행함.	800,000
산청	이충미술관	지역 주민들과 산청 지역의 곳곳을 다니면서 야외 스케치를 하고 그림 모음집을 만듦.	800,000

산청	달맞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면생리대를 만들며 여성의 월경과 몸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 활동을 진행함.	800,000
산청	공간산아	마을 숲에서 책과 함께 자연을 알아가고, 친해지고, 함께 놀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800,000
산청	민들레	육아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에게 육아 퇴직을 한 회원들이 ‘섬의 밤’을 선물함.	800,000
산청	이O영	산청지역 어린이 청소년들과 자전거 수리 워크숍을 진행함.	800,000
산청	정O은	밭줄 매듭 방법 배우기 강좌를 열고 지역 내에서 클라이밍 동호회 기반을 만드는 활동을 함.	800,000
산청	어린이도서연구회 산청지부	산청의 황매산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 도서를 전시하고 제로웨이스트 용품 사용 확산 활동을 진행함.	800,000
하동	국O일	비전화공방에서 개발한 햇빛건조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는 워크숍을 운영함.	800,000
하동	이O경, 김O주	지역 공익 활동가들과 사람책, 활동가들의 공연, 이야기가 있는 만남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800,000
하동	나O동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작지만 멋진 텃밭 ‘뽕뽕’을 운영함.	800,000
하동	하동참여자치연대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총 6회의 연속 강연을 운영함.	800,000
하동	양O영	도시의 문화생활보다 훨씬 재미있는 시골 놀이문화에 대해 조사함.	800,000
하동	열정건강클럽	청년들과 퇴근 후 저녁에 취미생활을 함께 만들고,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를 함께 듣는 활동을 진행함 .	800,000
하동	하동사람들	손재주가 좋은 마을 어르신과 굿즈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함.	800,000
하동	꽃보다 하동할매	평균나이 86세 어머님들과 독서 동아리, 글쓰기 활동을 진행함.	800,000

함양	오후공책	읽기와 쓰기 그리고 그림을 도구로 활용한 오후공책 리딩클럽을 운영함.	800,000
함양	함양토종씨앗모임	토종 씨앗 목록화와 ‘씨앗도서관’의 체계를 잡는 활동을 진행함.	800,000
함양	빈곤템동조합	지역 청소년들과 마을 장터에서 오픈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함.	800,000
함양	오후공책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인문학 모임을 운영함.	800,000
함양	최O진	함양의 나무와 마을을 활용하는 ‘인문 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함.	800,000
함양	함양청년네트워크 이소	함양 청년들의 정기적인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함.	800,000
함양	안의사랑 마을공동체	지역의 아이들과 함양, 거창, 남원, 전주 등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기록함.	800,000
함양	함양시민연대	‘의정참여실천단’을 통해 군의회의 행정 감시 및 의회 모니터링 활동을 함.	800,000

▶ 2023 지리산권 네트워크 지원사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원)
다시 지리산운동 모임	지리산운동의 대중적 활동을 위한 선언문 워크숍을 진행함. 지리산운동의 이야기 모임 운영 이후 대중적인 언어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선언문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자 함.	5,000,000
지리산 촉진자 이야기 모임	지리산 활동가들 중 대화와 소통, 배움을 촉진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서로 배움을 위해 모임을 운영함.	5,000,000
지리산권 청소년 네트워크	지리산 5개 권역의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리를 마련함.	5,000,000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입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자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의 배움과 소통,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리산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삶의 가치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2018-2023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백서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20일

펴낸이 임현택
펴낸곳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주 소 전북 남원시 천왕봉로 725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기획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글 김누리, 박정옥, 임현택, 최지은 외

전화 063-635-9484
전자우편 center@jirisaneum.net
홈페이지 jirisaneum.org

ISBN 979-11-976405-5-1 (93330)

- * 이 책의 저작권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있습니다.
-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 이 책은 KoPub서체, 강원교육튼튼체를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 오자,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